전라북도 문화관광 진흥을 통한 생활(관계)인구 유입 및 확대방안 연구



전라북도의회

본 보고서에 수록·제시된 내용과 계획은 향후 대내외 환경 변화 및 시책·상위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 역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제 출 문

전라북도의회 귀하

본 보고서를 「**전라북도 문화관광 진흥을 통한 생활(관계)인구 유입 및 확대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유 상 호

전라북도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

효율적인 문화관광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전라북도의회
Jeollabuk-do Provincial Assembly

I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범위

더 보기

갈수록 심화되는 전라북도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문화·관광진흥 도모 필요

지역 이슈

전라북도 지역소멸 위기 심화에 따른 지역 차원의 해결책 모색

지역이 직면한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 대응책 마련을 위기 타개 필요

2019년부터 22년까지 최근 4년 간 전라북도 출생률 전국 최하위 수준 및 고령인구 전국 평균 대비 약 5.2%p 높은 수준 유지

2023년 기준 전주시를 제외한 전북 총 13개 시군 소멸위험지역 분류

해법 모색

지역소멸 위기의 실제 대응책으로 생활인구의 개념 적용 고려

新정책적·행정적 개념 도입을 통해 지역 활력의 새로운 방향 제시 필요

소멸압박 위기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지역 연계형 생활인구 개념 도입으로 국가의 정책 및 제도 방향 재설정

이동을 기반으로 지역과 상호작용하는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지역 활력 도모

전략 제시

한계 지역의 구조적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문화관광 진흥 전략 도출

실제적·가시적 정책 효과 창출을 위한 전략으로 지역의 지속가능성 강화 도모

정주인구 감소 지역에서의 관광은 정주인구 대비 약 6배 이상의 지역경제 창출 효과 및 사회 시스템 재구조화에 긍정적 기여

인구감소 지역 역동성 강화를 목적으로 체류 기반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

더 보기

가시적인 지역소멸 위기 대응책으로써 문화·관광형 생활인구 확대 방안 모색

지역에서 관찰되는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와 지역소멸 관련 현황 이해

도내 인구구조, 인구이동 분석으로 지역 맞춤형 '생활인구' 유입 확대 전략 방향성 설정

전라북도 지역소멸 위기 이해를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 수립

다음

객관적 증거 및 데이터 기반으로 지역 가치 경쟁우위 확보 방안 모색

문화관광 관점의 국내외 정책, 제도, 사업 분석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생활인구 확대 기틀 체계화

증거 기반의 지역특화 문화관광 진흥 전략으로 생활인구 확대

다음

지역 소멸압박 이슈는 국가의 지속 성장과 맞닿아 정부의 개입 필요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연계 협력이 가능한 지역 특화 정책사업 발굴로 새로운 도내 인구 증진 기반 마련

국가적 차원에서 전라북도 위기 이슈 대응이 가능한 정책 발굴

시작

더 보기

“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지속가능한 지역소멸 위기 대응 전략 발굴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2023년
계획연도 2024년 - 2028년

단기정책 2024년 - 25년 [2년]
생활인구 마중물로써
지역 특화 고유자원 기반
생활인구 유입 촉진

장기정책 2024년 - 28년 [5년]
정책사업의 실제적 경제 및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를 위한
외연 확장 목적의 콘텐츠 강화

내용적 범위

지역에 적합한 사업 발굴
수요 밀착형 정책사업 제언

사례분석
국내·외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상위 정책 및 계획의 분석으로
지역 밀착형 실제적 사업 제언

정책제언
전북 지역소멸 위기 이슈 대응
문화관광 진흥 전략의 방향 설정
및 추진체계 구체화

공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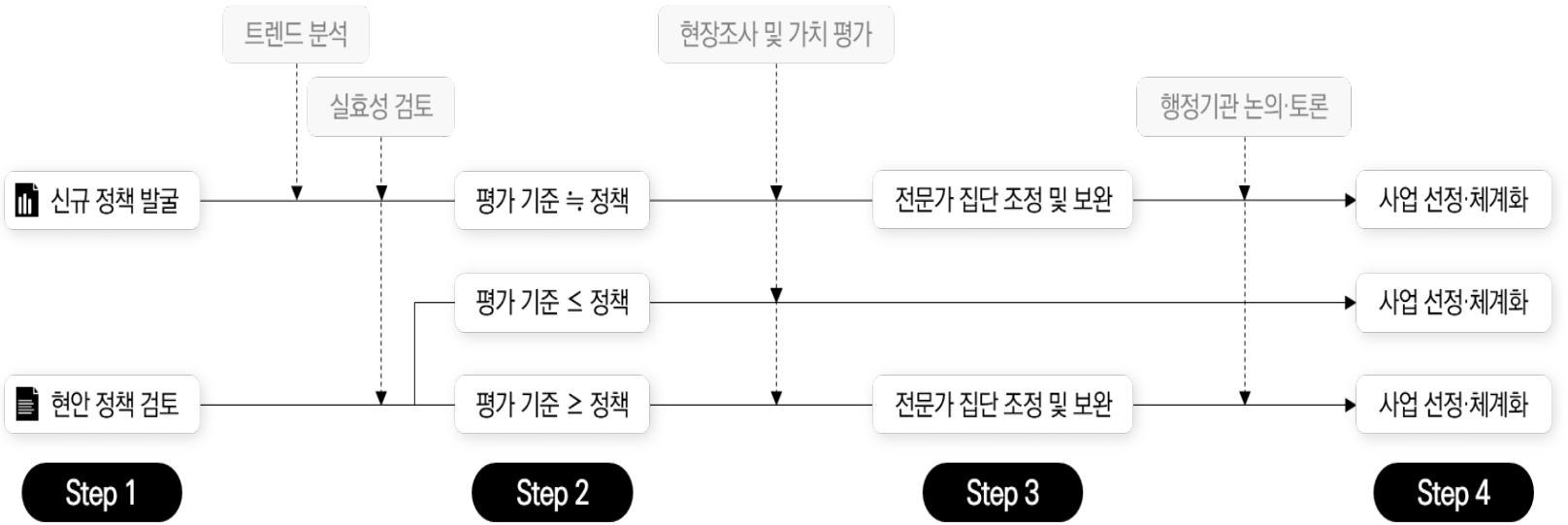


더 보기

행정기관 및 전문가 집단 토론을 통한 실천적이고 실효성 높은 사업 발굴 추진

지역 현안과제와 신규 제안사업 간의 융복합·다각화를 통한 기대성과 창출

지역여건과 환경에 부합되고 경쟁력 있는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고자 행정기관 **현안과제** 및 전문가 집단 토론 기반 **신규사업 발굴 추진**
특히, 지역 특화 자원 기반 사업의 유형화 및 범주화를 통해 **실천적 사업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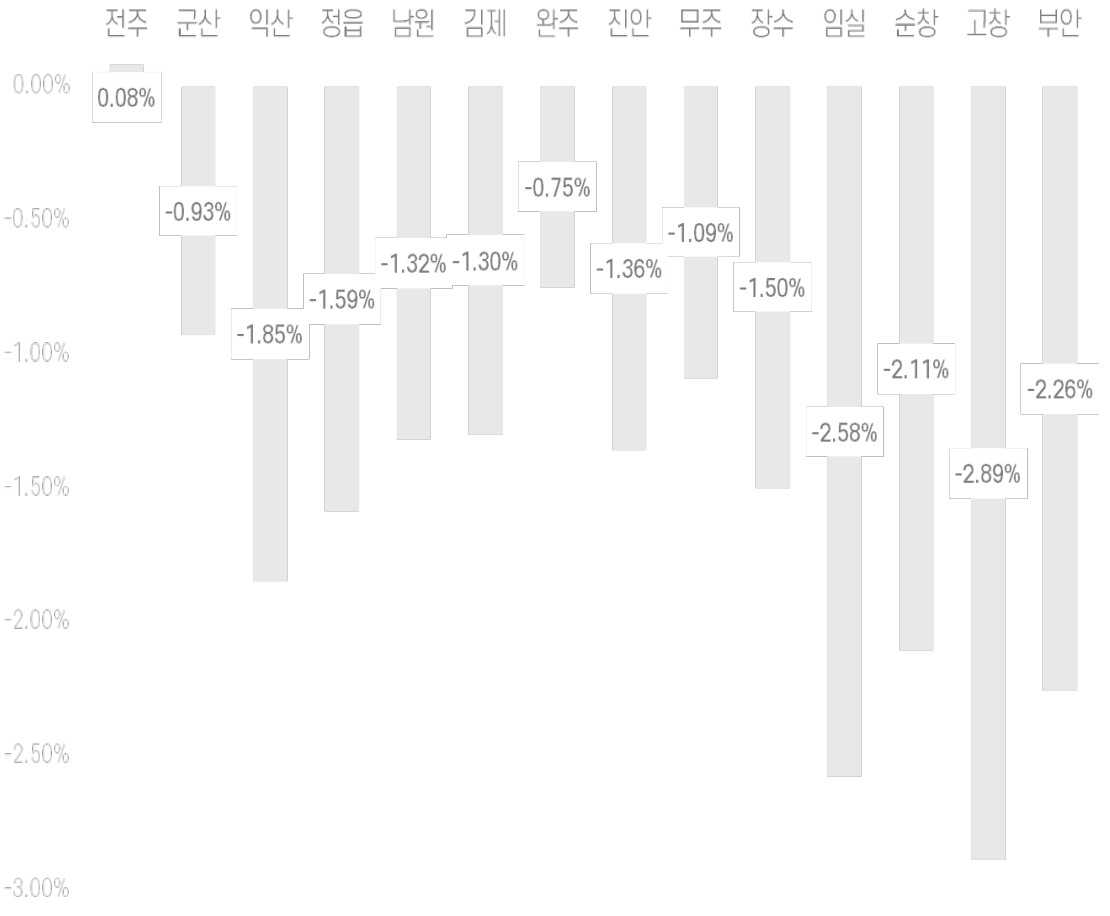


II

지역 현황

1. 전라북도 지역소멸 위기
2. 전라북도 인구변동 원인
3. 지역소멸 위기의 악순환
4. 전라북도 생활인구 현황

더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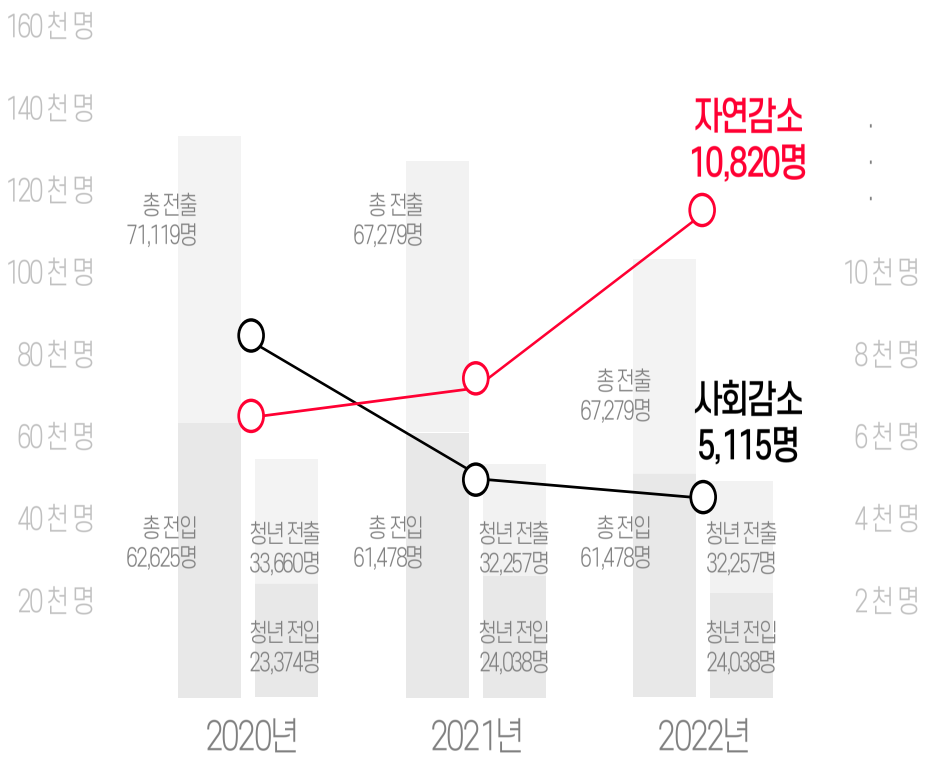
2018년부터 전라북도 인구 감소 추이 계속

2021년 기준, 전라북도 인구 180만 명 선 붕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간의 **전라북도 연평균 증가율은 -0.86% 수준**으로 특히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의 인구증가율은 지속적인 하락 추이 기록

176만 명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약 23%인 고령사회의 전북은 전주, 완주[혁신도시] 등 도심을 제외한 **군 단위**[임실, 장수 등] 지역에서 특히 **지역소멸 위기**를 심각히 경험 중

더 보기



자연감소가 사회감소를 역전하는 데드크로스

2022년 데드크로스 현상의 급격한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

2022년 전라북도 인구 자연감소 수는 +10,820명으로 출생자 대비 사망자가 현격히 높은 수준

사회감소 수도 + 5,115명으로 **전북 인구 감소** 추이는 **계속될 전망**

특히, 전라북도 청년인구의 지역 유출이 인구감소에 결정적

2022년 청년인구[19세-34세] 시도 간 전출 수는 30,526명으로 전입 21,860명 대비 + 8,666명으로 전라북도 인구감소에 결정적 영향

2020년부터 이어진 **청년인구 감소** 추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

더 보기 +

지역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경쟁력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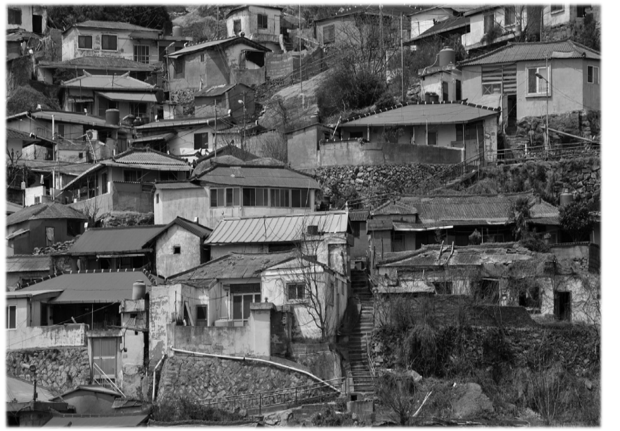
2021년 전라북도는 20년 만에 총 인구 180만 명 선 붕괴를 관찰
특히 19세-34세 청년인구 유출로 최근 5년 지역의 출생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
이러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결국 전라북도 성장에 **심각한 위협**



더 보기 +

무너진 사회기반시설, 인구 유출 악순환 발생

2050년 전라북도 총 인구는 149만 명 수준까지 감소할 전망
최근 5년 사이 지역 버스터미널 6곳 폐업, 빈집 중 30% 붕괴 고위험 신호
인구감소에 의한 **사라지는 기반시설**은 다시 **낙후지역 인구유출**로 이어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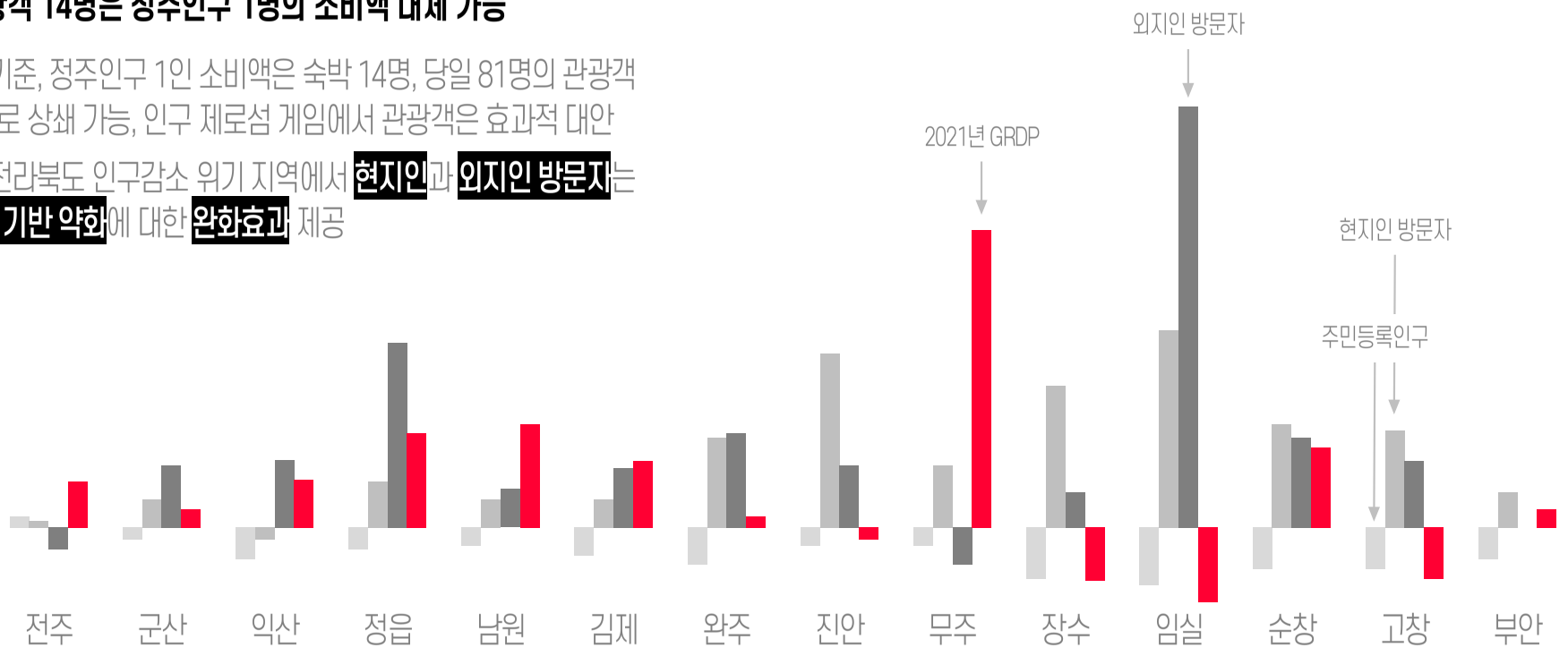
더 보기

문화관광 생활인구, 인구 한계지역에 중요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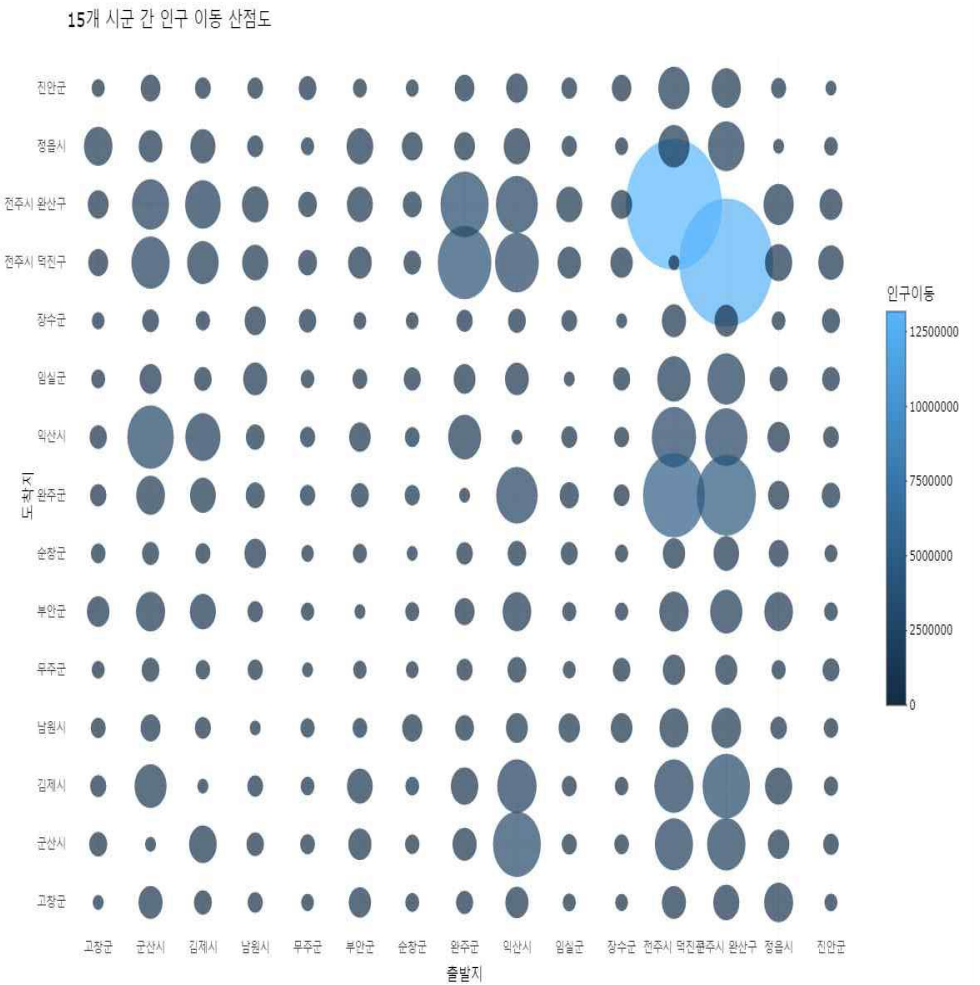
숙박 관광객 14명은 정주인구 1명의 소비액 대체 가능

2021년 기준, 정주인구 1인 소비액은 숙박 14명, 당일 81명의 관광객 소비액으로 상쇄 가능, 인구 제로섬 게임에서 관광객은 효과적 대안

2021년 전라북도 인구감소 위기 지역에서 **현지인**과 **외지인 방문자**는 **지역경제 기반 약화**에 대한 **완화효과** 제공



더 보기



시군 간 인구교류 확대 기반 마련 필요

지역 외 인구유입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의 교류 활력 필요

인구 교류에 따른 지역 활력 도모를 위해 시도 간 생활인구 유입 확대 뿐 지역 내에서의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2022년 기준, 전라북도 내에서는 **전주시를 중심**으로 생활인구 교류 현상이 관찰됨에 따라 **지역 간 유기적 연계 기반 마련 필요**

III

사례 분석

1. 국가 및 지방정부 정책사례
2. 유형별 국내·외 사업사례

더 보기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



문화체육관광부, 살아보기 생활관광 13선

최소 3일 이상 지역에 머물며, 현지인처럼 지역 고유 역사, 먹거리, 문화 등 생활양식 체험 체류형 여행상품



이탈리아 농가민박, 아그리투리스모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하는 빈집 및 방치 경작지 활용 농가민박 프로그램으로 로컬푸드 수확 및 야외 휴식·휴양프로그램 체험형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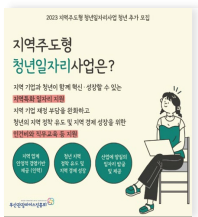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유학 프로그램

도시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농촌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학업 생활을 기반으로 농촌과 지역의 다양한 생활양식 체험 프로그램



울산-경주-포항 해오름동맹, 생활체육축전

울산, 경주, 포함 간 교류와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해오름동맹에서 개최한 체육대회로 정기 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 간 인구교류 확대 도모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기획 및 운영 지원사업으로 유형별 국고금 보조, 지자체 공모사업 프로그램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음악극 축제

국내·외의 다양한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음악극 축제로 공연관람 형태가 아닌 거리 공연, 시민 참여형 이벤트, 2022년 총 61,039명 방문

Ⅳ

기본구상

1. 전문가 의견
2. 정책사업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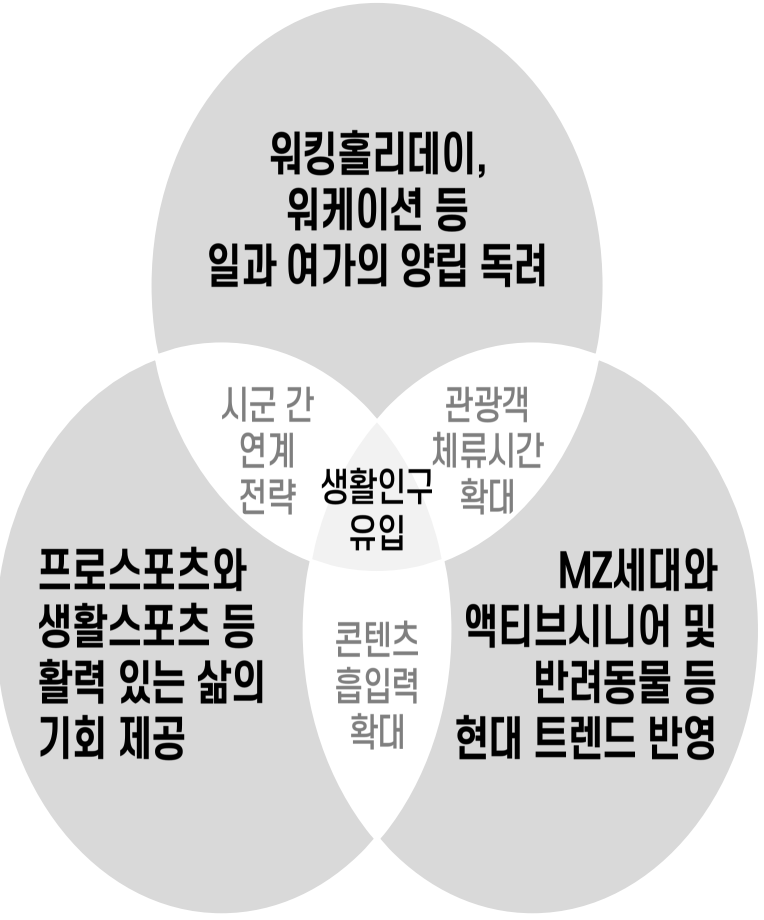
더 보기

문화관광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필요한 전략은?

지역에 특화된 문화·관광진흥의 실체적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관광 부문 **전문가 의견 청취 및 방향 구상**

결국 중요한 점은 **전라북도 특화 자원**과 **기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 사업 지속성을 기대 …

특히, 반려동물, 스포츠, 분산 근무제, 액티브 시니어 등 급변하는 **현대 관광 트렌드**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전략 수립으로 **성과를 창출**해야 …





더 보기

반려동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배경 및 목적

- 국내 반려동물 인구는 1,500만 명 수준으로 시장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발 맞춰 반려동물 관련 생활인구 유입 기반 조성 필요
- 특히, 전북은 반려동물 산업 특화 목적으로 임실, 익산 등 도내에 관련 기반시설 조성을 적극 추진 중이므로 기 구축 인프라를 활용하는 전략 마련 추진
- 따라서 전북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반려동물 친화적 선도 발전 모델**을 마련하고 **관광 및 헬스케어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 확충으로 생활인구 유입 도모

사업개요

구 분	세부내용
대상지역	전라북도 일원
총사업비	11,750백만 원 * 부지매입비 등 별도
기본컨셉	반려동물, 반려인구가 소통하며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지역 특화형 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반려동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

더 보기

반려 인구를 위한

거점형 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 건립

반려동물 편의시설, 반려인 여가공간 등 **동반 체류공간** 조성

어질리티 대회, 공연, 교육 등이 가능한 **다목적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반려동물 호텔, 뷰티샵, 병원 등 **복합화 웰컴센터** 조성

반려동물 예절교육, 반려인, 비반려인 문화교육 등 **교육 체험 콘텐츠** 운영

지역 활력을 위해

반려동물 산업엑스포 개최

펫푸드, 펫케어 등 **반려동물 산업 성장** 및 **관계 기업 지역 유치** 기회 확대

- 지역 반려동물 산업 성장 기회 제공
- 반려동물 산업 거점지역 이미지 구축
- 전북 반려동물 산업 클러스터 구축 도모

지역사회, 지역민 참여 반려동물 동반 체험 프로그램 기반 **축제·이벤트** 개최

반려동물 유기 방지 교육, 시군 입양 및 보호소 홍보 등 **인식 개선** 콘텐츠 제공

기반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국가 공모사업 대응

문화체육관광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공모** 사업 대응 체계 구축

-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도모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지원
- 1개소 당 5억 원 [지방비 50%]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공모** 사업 대응 체계 구축

- 반려동물지원센터, 동물보호센터 설치, 공설동물장묘시설, 놀이터 조성 지원
- 사업지구 당 80억 원 [지방비 50%]



더 보기

브라보 마이 라이프 빌리지 조성

사업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고령인구 비율이 약 20%를 상회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기정사실로 간주되며, 100세 시대 **제2의 인생을 희망하는 은퇴자 증가** 추세
- 세계 각국에서도 고령인구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은퇴자를 비롯한 고령인구의 주거, 생활복지를 위한 다양한 공동주택 또는 마을 조성을 적극 추진 중
- 따라서 전라북도는 **은퇴자**, **시니어**, 해외 **이주자** 외 **귀농·귀촌 희망자** 대상의 **공동거주마을** 조성을 추진해 새로운 정주인구 확대 도모

사업개요

구 분	세부내용
대상지역	전라북도 일원
총사업비	12,250백만 원
기본컨셉	은퇴자, 시니어, 귀국 희망 이주자 대상 공동거주 문화마을 조성
	귀농·귀촌 희망자 대상 농촌체험 및 교육 목적 문화 콘텐츠 구축



더 보기 +

브라보 마이 라이프 빌리지 조성

인구 정착을 위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빌리지 조성

전원주택형 **공공마을 조성 정책 제도화** 및 **시범사업** 추진

- 공공주택 공급 지원제도 마련 및 시군 협력 기반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 단기 거주 시범사업 기반 지원대상 검토

은퇴자, 시니어, 해외 이주자 및 귀농·귀촌 희망자 **공동거주마을 조성**

- 돌봄[고령], 취·창업[은퇴], 체험[이민], 교육[귀농·귀촌] 등 다양한 테마 구성
- 의료, 문화예술체험 등 기반시설 구축

지역 활력을 위해

액티브 시니어 교류 프로그램 운영

전북형 액티브 **시니어 교육체험 관광 콘텐츠** 기획 및 운영

- 액티브 시니어 대상 지역 문화, 예술 및 일상체험형 교육관광 프로그램 운영

세계 액티브 시니어 관광포럼 개최 기반 시니어 교육·교류 관광 거점화 추진

- 시니어 관광거점으로 전북 이미지 조성
- 해외 고령인구 지역 MOU 기반 추진 국가 간 시니어 교류 프로그램 운영

운영 효율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및 교류지역·기업 유치

전북형 시니어가이드 인력 양성 및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 운영

- 전북문화관광재단 연계 은퇴자, 시니어 대상 지역문화 전문가 양성
- 입주자 대상 빌리지 운영 관리자 교육

국내·외 교류 지역 및 **단체, 기업 유치** 기반 빌리지 운영 효율성 강화

- 국내 은퇴자 마을 조성 지역[서울, 속초, 경북 등], 해외[플로리다 등] 및 단체[시니어교류협회] 업무 협약 추진



더 보기

전북 워케이션 브랜드 강화

사업배경 및 목적

- 일과 휴양을 동시에 병행하는 워케이션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이후 보편적 업무 문화로 자리매김하였고 기업과 개인의 선호 및 수요가 꾸준히 증가 중
- 현재 전북의 전주, 군산, 부안 및 무주 등에서 추진 중인 **시군 워케이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간 연계 교류 기반** 조성 필요
- 특히, 지역 맞춤형 워케이션 사업 확대를 위해 **농·생명** 및 **식품산업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력 적극 도모

사업개요

구 분	세부내용
대상지역	전라북도 일원
총사업비	12,615백만 원
기본컨셉	종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시군 간 연계 교류 활성화 기반 조성
	지역 특화 관광 및 문화자원을 활용해 방문자 체류시간 연장 도모



더 보기

전북 워케이션 브랜드 강화

시군 연계를 위해

전북 워케이션 통합운영 거점센터 조성

지역 유휴 시설의 개조 또는 개선 기반 **전북 워케이션 운영 거점** 조성

- 비디오 컨퍼런싱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 워크스페이스, 회의실, 교육장 등 조성
- 카페, 문화시설 등 편의시설 구축

전북 워케이션 프로그램 예약, 홍보, 자원 네트워킹 목적 **통합 온라인시스템 구축**

- 시군 워케이션 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 전북 워케이션 프로그램 홍보 채널 운영
- 전북투어패스 등 지역 관광자원 연계

인구 유입을 위해

워케이션 생태계 구축 기반 조성

지역 특화 자원 기반 **국내·외 기업 워케이션 목적지 지정** 유치

- 농·생명, 식품산업 등 전북 특화 산업자원 연계 기업 워케이션 목적지 선정 유치, 기업 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

유치 기업 **워케이션 근로자 편의 기반 구축** 및 다양한 **지원제도** 마련

- 국내·외 프랜차이즈 기업 근로자 분산근무제도 지역 유치 및 워케이션 근로자 체류 편의기반 조성

방문 만족을 위해

워케이션 전용 체험프로그램 운영

전북투어패스, 디지털관광시민증 연계 **워케이션 전용 투어** 프로그램 운영

- 관광·문화시설, 숙박시설, 대중교통 및 음식점 등 시설 이용 할인 바우처 제공

지역 특화 문화·관광자원 연계 **워케이션 전용 체험프로그램 운영**

- 농촌체험, 해양관광, 문화예술 체험 등 워케이션 전용 체험프로그램 기획



더 보기

체험형 문화예술공연 국제 축제 개최

사업배경 및 목적

- 문화예술공연 및 체험형 축제는 대규모 인구 유입 및 체류시간 연장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진 매력적 콘텐츠
- 전북은 전국 두 번째로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자연, 전통문화** 및 **예술자원**을 적극 활용해 **대규모 방문객 유치**를 도모하기 위한 강점 보유
- 국내 및 해외 전통문화 예술가 초청 등을 통해 **국제적 문화 교류 기반 강화** 및 지역관광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도모

사업개요

구 분	세부내용
대상지역	전라북도 일원
총사업비	13,867백만 원
기본컨셉	세계유산자원 활용, 보전이 필요한 국제 문화자원 교류 기반 확대
	도내, 국내 및 해외 예술가, 단체 초청 문화예술형 공연 축제 개최



더 보기

체험형 문화예술공연 국제 축제 개최

보는 재미를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페스티벌 개최

세계소리축제 연계 **거리공연·참여형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 국내·외 전통음악 거리 공연, 퍼레이드
- 세계 무형문화재[음악, 춤] 거리 콘서트
- 시군 세계유산, 문화유산 장소 활용

관람객 참여형 문화예술 체험, 교육, 관람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시군별 전통음악[농악, 판소리 등] 체험 및 일일 교육프로그램 운영 개최
- 해외 전통음악 연계 체험형 콘텐츠 운영

운영 효율을 위해

페스티벌 운영 기반 구축

유네스코 세계유산 페스티벌 **운영 조직 구성** 및 **실시계획 수립** 등

- 국내·외 무형문화재[음악, 춤] 예술가 유치, 축제 홍보·마케팅 운영 계획 수립
- 거리공연, 퍼레이드 등 관람객 상호작용 가능 예술공연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시군별 분산 개최 목적 지역 간 관람객 이동 연계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지원 등

페스티벌 정기 개최 및 운영 목적 **정책·제도적 지원** 기반 조례 제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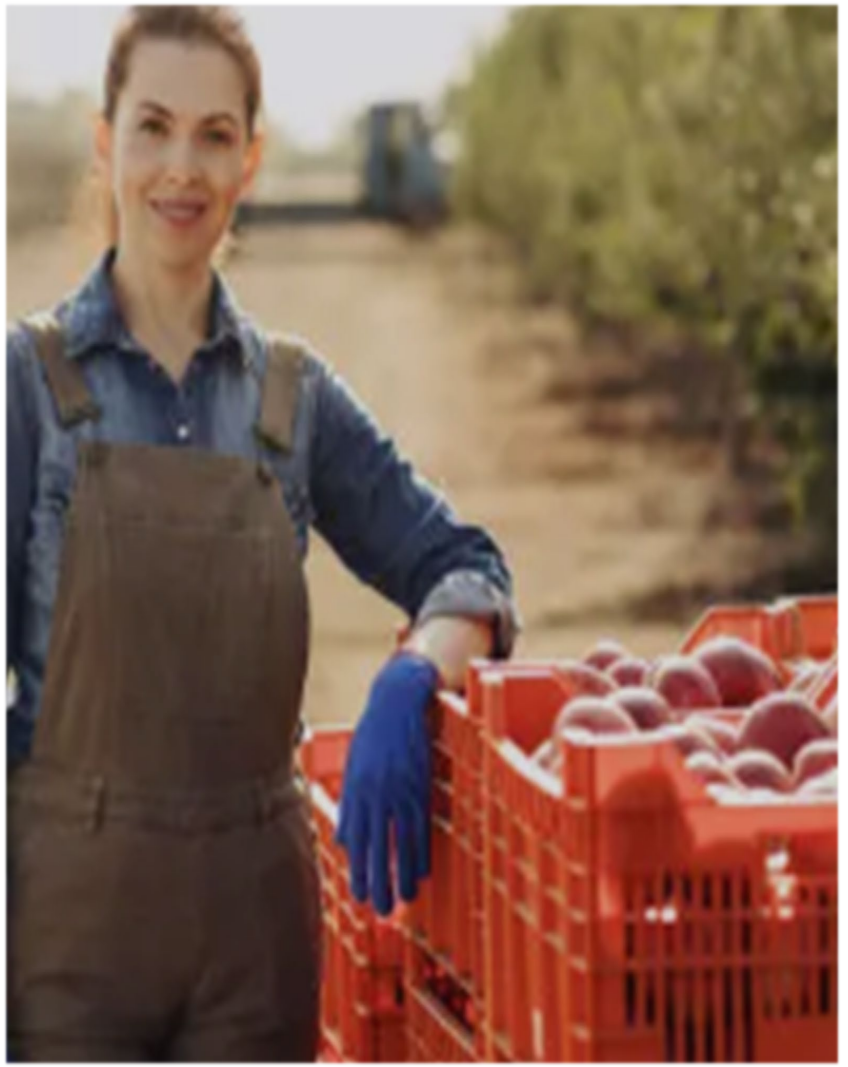
지역 관광을 위해

세계유산 페스티벌 관람객 지원제도

전북투어패스-디지털 관광주민증 연계 페스티벌 참여자 체류관광 지원 프로그램

- 숙박, 음식, 이동 등 지역 관광자원 및 프로그램 체험 편의기반 지원 등
- 디지털 관광주민증 연계 도내 문화예술 프로그램 이용 등의 편의 지원제도 등





더 보기 +

전북형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운영

사업배경 및 목적

- 워킹홀리데이는 청년의 지역 유입을 촉진해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장래 지역 이주자 창출** 등 정주인구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
- 특히, 생활관광에 대한 선호 및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지역 일상을 체험하면서 관광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는 인구 유입 도모에 매력적 콘텐츠
- 전북은 **"특별자치도 특례"**를 통해 외국인 유입을 적극 독려하므로 **관광 연계** 기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 유입 도모

사업개요

구 분	세부내용
대상지역	전라북도 일원
총사업비	5,500백만 원
기본컨셉	지역 일손 부족 문제 해결 및 다양한 문화관광자원 체험 기회 제공
	생애주기 및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로 인구 유입 적극 독려



더 보기

전북형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운영

인구 유입을 위해

전북형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운영

도내 시군 간 **차별화된 체험형 일자리** 및 **관광프로그램** 운영

- 시군 간 일손 유치 과열 경쟁 방지 및 다양한 체험 가치 제공을 위한 협업
- 시군 간 연계 관광프로그램 기획·운영

도내 빈집 활용 워홀러 주거 및 일상체험 지원 **농가민박 프로젝트** 추진

- 빈집, 방치 경작지 활용 농가 일상체험 프로그램 운영, 휴식·휴양 콘텐츠 구축
- 워홀러 주거 지원 기반 마련 등

환경 구축을 위해

전북 일자리 바로 알기 박람회 개최

워홀러 대상 도내 **워킹홀리데이** 참여 **프로그램 홍보** 및 **일손 유치**

- 전북형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홍보
- 체험형 일자리 및 관광프로그램 소개 등
- 외국인 대상 워킹홀리데이 참여 독려 등

구인·구직자 대상 **도내 기업 취업 연계 프로그램** 및 취업 **컨설팅**

- 도내 유수 기업 현장면접 및 채용 등
- 면접 실무 교육 등 취업 컨설팅
- 도내 유수 기업 일자리 홍보관 운영 등

정착 독려를 위해

전북형 워킹홀리데이 지원 기반 구축

도내 소재 대학교 연계 **워킹홀리데이 장학 프로그램** 운영

- 학업과 일자리 체험 양립 학사 프로그램 신설 운영 협력
- 참가자 장학금 지원제도 운영 등

전북 워홀러 도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제도 구축

- 도내 기업 취업 시 정착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제도 구축
- 도내 취·창업 희망자 대상 컨설팅 등



더 보기 +

프로스포츠 연계 체류형 관광 생태계 조성

사업배경 및 목적

프로스포츠는 지역 경제 발전에 긍정적 기여를 하며, 관중을 비롯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선수, 구단 관계자, 언론, 스폰서 등] 등 **생활인구 유입**에 강력한 이점

- 기존 프로 구단[전북현대 프로축구단] 외 신규 프로스포츠 구단 연고지 유치를 통해 생활인구 유입 기반 확대 및 지역 경제 낙수효과 강화 도모 필요
- 최근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e-스포츠**가 프로화 및 지정 연고제도 도입을 고려함에 따라 **연고지 유치**를 바탕으로 지역 활력 증진 기반 마련

사업개요

구 분	세부내용
대상지역	전라북도 일원
총사업비	11,200백만 원
기본컨셉	프로축구단 '전북현대' 연계 체류형 스포츠 관광상품 기획 및 운영
	신규 프로스포츠 연고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활력 제고



더 보기

프로스포츠 연계 체류형 관광 생태계 조성

지역 성장을 위해

e-스포츠 상설 경기장 조성

게임문화 Complex
e-스포츠 상설 경기장 조성

- 게임문화 복합공간 형태로 관계 산업 동반성장 기반 마련
- 국가지원 기반 유휴시설 개선 또는 신축

e-스포츠 상설 경기 개최 가능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

- 상설 경기 및 각종 문화행사, 공연 등이 가능한 다목적시설, 방송송출시설 구축
- 카페, 펍, 스토어 등 편의시설 구축

지역 경제를 위해

e-스포츠 문화조성 및 브랜드화 사업

e-스포츠 **경기장 견학** 관광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훈련 등 **전지훈련 프로그램** 운영

- 경기장 팸투어 관광상품 개발·운영, 지역대학 연계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 국내·외 프로구단 전지훈련 지원 운영

전북게임주간 선포 및 게임 개발사 연계 대회 개최 운영 등

- 일상의 e-스포츠 이벤트 상설화 및 게임주간 활용 국제 게임대회 개최 등
- 가족 동반 게임대회 등의 브랜드화 사업

연계 관광을 위해

프로스포츠 기반 연계 관광 활성화

프로스포츠-전북투어패스-디지털 관광주민증 연계 관광프로그램 기획·운영

- 전북현대-전북투어패스 연계 관광객 관광자원 무료/할인 이용제도 운영
- 디지털 관광주민증 연계 도내 프로스포츠 관람 할인제도 운영 등





더 보기 +

생활 SOC 기반 생활스포츠 활성화

사업배경 및 목적

-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약 61.2%**는 **생활체육**에 적극 참여 중이며, 국민 대다수가 체육과 스포츠 활동의 일상화를 경험 중
- 생활체육인의 증가에도 여전히 기반시설 운용, 대회 등은 엘리트 체육인 중심으로 진행 중이며,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동호인 체육대회를 개최 중이나 여전히 미흡

생활체육 동호인 거점 지역으로 전라북도 **지역 이미지 브랜드화**를 위해 각 시군에 분산된 생활 SOC 기반 연계 대회 개최 및 시설 운용 계획 수립·추진 필요

사업개요

구 분	세부내용
대상지역	전라북도 일원
총사업비	6,500백만 원
기본컨셉	도내 분산 생활 SOC 기반시설 연계 시군 간 인구교류 활성화 도모
	국내·외 생활체육 동호인 활력 거점화 추진 기반 지역 이미지 개선



더 보기 +

생활 SOC 기반 생활스포츠 활성화

인구 교류를 위해

국제 규모 종합생활체육대회 개최

시군 분산 **생활SOC 기반 국제 종합생활체육대회** 기획 및 개최

- 특정 지역 개최 지양, 도내 시군에 분산 조성된 생활SOC 기반시설 활용
- 다양한 종목[올림픽 수준] 동호인 대회

생애주기별 개최지 분산 및 **다양한 경기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생애주기별 누구나 건강과 활력을 경쟁하는 경기 프로그램 기획·운영
- 시군 분산 개최를 위한 연계 방안 수립

지역 연계를 위해

교류 생활스포츠 활성화 기반 조성

국내 및 해외 지자체 간 교류 기반 공동 생활체육 축전 등의 **정기 이벤트** 개최

- 배후 광역시·도 및 해외 지자체 교류 협약 및 공동 축전 개최 해오름동맹 참조
- 정기 이벤트 시 관계 산업 홍보 지원 등

도민 생활체육 실태조사 DB 구축 및 지속적인 **지원 정책프로그램** 발굴·운영

- 계절, 날씨 등 외부 제약 없는 생활체육 활성화 목적 인프라 개선 등의 지원
- 실태조사 DB 기반 지원 정책 발굴·기획

체류 연장을 위해

전국 생활체육인 연계 관광 활성화

전북투어패스-디지털 관광주민증 연계 관광프로그램 기획·운영

- 지역 방문 생활체육인 체류시간 연장 목적 생활체육 전북투어패스 기획·운영
- 디지털 관광주민증 연계 도내 체육시설 이용 및 관련 용품 구매 할인제도 등



V

연구 요약

1. 제언사업 요약
2. 연구결과 함의

더 보기

“

문화관광 진흥을 통한 전라북도 생활인구 유입 확대 도모

30 계획기간

2024년-2028년 [5년]

총사업비

73,682백만 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유형
반려동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	· 대상지: 전북 일원 · 사업비: 11,750백만 원	· 거점형 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공모사업 대응 · 반려동물 산업엑스포 개최	기반시설
브라보 마이 라이프 빌리지 조성	· 대상지: 전북 일원 · 사업비: 12,250백만 원	· 전원주택형 공공마을[은퇴자, 시니어, 귀농·귀촌 등] 조성 · 시니어 교육체험 관광프로그램, 시군 간 교류 협력 등	기반시설
전북 워케이션 브랜드 강화	· 대상지: 전북 일원 · 사업비: 12,615백만 원	· 전북 워케이션 통합운영 거점센터 조성 및 생태계 조성 · 워케이션 전용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프로그램
체험형 문화예술공연 축제	· 대상지: 전북 일원 · 사업비: 13,867백만 원	· 거리공연[퍼레이드]·관람객 참여형 세계유산 페스티벌 개최 · 페스티벌 운영 기반[조직, 실시계획 등] 구축 및 제도 마련	프로그램
전북형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 대상지: 전북 일원 · 사업비: 5,500백만 원	· 시군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농가민박 프로젝트 운영 · 일자리 박람회 개최 및 도내 대학교 연계 장학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프로스포츠 기반 체류형 관광 생태계	· 대상지: 전북 일원 · 사업비: 11,200백만 원	· e-스포츠 상설 경기장 조성 및 기반시설 운영계획 수립 등 · e-스포츠 경기장 견학 프로그램, 프로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프로그램
생활SOC 기반 생활스포츠 활력 제고	· 대상지: 전북 일원 · 사업비: 6,500백만 원	· 시군 분산 생활SOC 활용 국제 종합생활체육대회 개최 · 국내 및 해외 지자체 간 생활체육축전 등 교류 체계 구축 등	프로그램

더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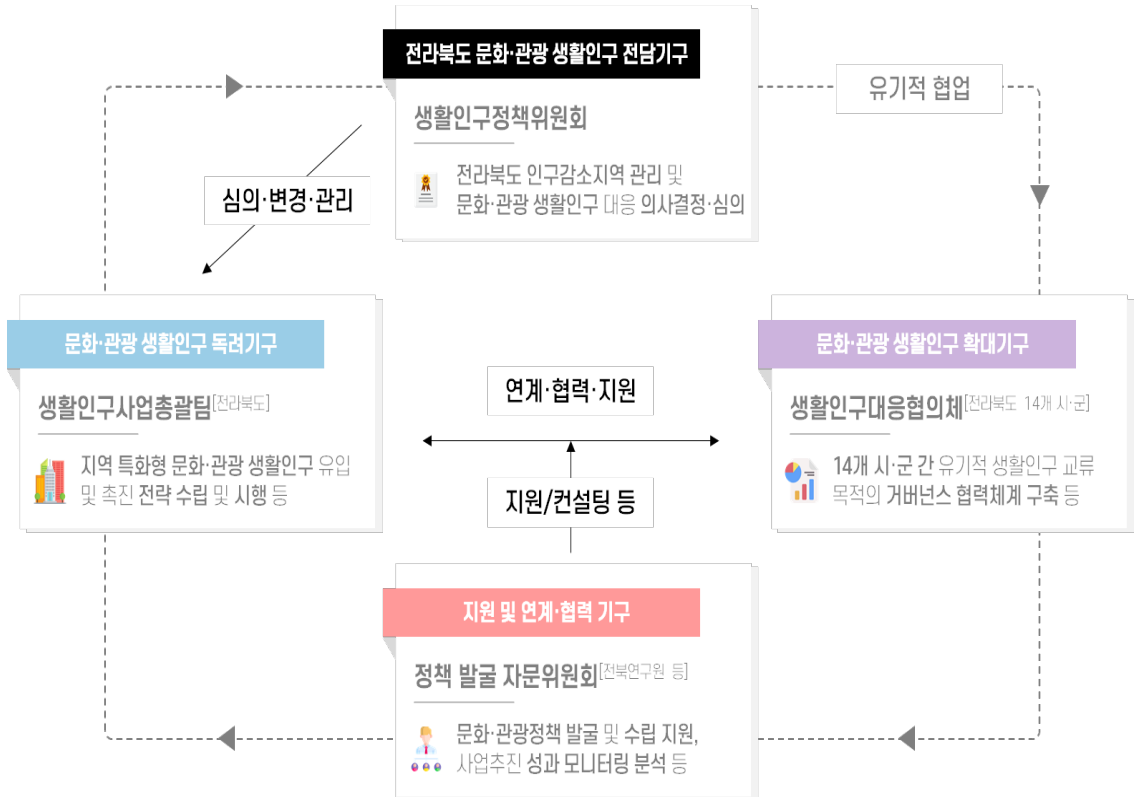
> **전라북도 문화·관광 생활인구 전담 모니터링 조직 신설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활력 제고 방향 지속 관리**

생활인구 확대·교류 대응 협의체

전라북도 내 시군 간 유기적 인구교류 및
지역 외 생활인구 유입 독려

지역 및 연계·협력 체계 고도화

지역 맞춤·특화형 정책 발굴 및 성과분석



CONTENTS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6
Ⅱ. 지역소멸과 생활인구	1. 사회적 문제: 지역소멸 위기	11
	2. 정책적 대처: 생활인구 확대	19
Ⅲ. 지역소멸 위기 대응 생활인구 확대 사례	1. 국가 및 지방정부 정책사례	37
	2. 유형별 국내·외 사업사례	54
Ⅳ. 전북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문화관광 진흥 전략	1. 기본구상 수립	73
	2. 정책사업 제언	78
Ⅴ. 연구의 요약	1. 연구 추진사항	109
	2. 연구결과 요약	113

TABLE CONTENTS

【 표 1 】2023년 기준, 시도별 소멸위험지역 시·군·구 분포 현황 ····· 13
【 표 2 】지방소멸위험지수 ····· 13
【 표 3 】인구감소지수 산정 지표 ····· 14
【 표 4 】K-지방소멸지수 산정 지표 ····· 14
【 표 5 】지방소멸지수, 인구감소지수 및 K-지방소멸지수 비교 ····· 15
【 표 6 】지역소멸 지역과 관련된 개념 ····· 15
【 표 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목적 요약 ····· 20
【 표 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생활인구 개념 정의 ····· 20
【 표 9 】전라북도 시·군별 인구규모 및 변화추이 ····· 24
【 표 10 】전라북도 인구이동: 2022년 기준 ····· 25
【 표 11 】전라북도 인구구조: 2022년 기준 ····· 26
【 표 12 】전라북도 시·군별 외국인 등록인구 변화 추이 ····· 27
【 표 13 】광역도 방문자 숙박일수: 2022년 기준 ····· 27
【 표 14 】광역도 방문자 숙박일수: 2022년 기준 (표 계속) ····· 28
【 표 15 】연도별 전라북도 방문자 수 추이 ····· 28
【 표 16 】전라북도 시군별 방문자 숙박일수: 2022년 기준 ····· 29
【 표 17 】관광목적 외지인·외국인 방문자 수: 시·군 구분 ····· 30
【 표 18 】전라북도 지역민 시·군 방문자 거주지: 2022년 기준 ····· 31
【 표 19 】전라북도 지역민 시·군 방문자 거주지: 2022년 기준 ····· 32
【 표 20 】주민 1인당 지역 내 소비 대체 필요 관광객 수: 시·군 구분 ····· 34
【 표 21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편성 계획 ····· 37
【 표 22 】행정안전부 생활인구 시범 산정 대상지 생활인구 규모 추정: 2023년 6월 기준 ····· 38
【 표 23 】생활인구 산정 시범지역7개 체류인구 주요 등록지역 순위 및 비율 비교 (상위 5곳 기준) ····· 40
【 표 24 】문화체육관광부 인구감소지역 우대 공모사업 현황: 2023년 기준 ····· 41
【 표 25 】문화체육관광부 워케이션 시범사업 지역 및 프로그램 유형 요약: 2023년 기준 ····· 42
【 표 26 】문화체육관광부 살아보기 생활관광 프로그램 운영 현황 요약: 2023년 기준 ····· 43
【 표 27 】문화체육관광부 살아보기 생활관광 프로그램 운영 현황 요약: 2023년 기준 (표 계속) ····· 44
【 표 28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지역 및 혜택 현황 요약: 2023년 기준 ····· 44
【 표 29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요약 ····· 49
【 표 30 】전문가 그룹 현황 ····· 73
【 표 31 】본 연구의 목적과 방향 요약 ····· 110
【 표 32 】본 연구가 검토한 대표 사례 ····· 112
【 표 33 】전라북도 생활(관계)인구 유입 및 확대를 위한 제안사업 핵심 요약 ····· 113

FIGURE CONTENTS

【그림 1】 연구의 배경 ····· 3
【그림 2】 연구의 목적 ····· 5
【그림 3】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7
【그림 4】 연구의 절차 ····· 7
【그림 5】 지역소멸 또는 마을 한계화 과정 ····· 11
【그림 6】 시군구별 장래 소멸 위험지역 분석 ····· 12
【그림 7】 인구감소 문제로 관찰되는 전라북도의 악순환 현상 ····· 16
【그림 8】 2018년 - 2022년 전라북도 시외버스 연간/하루 평균 수송인원 ····· 17
【그림 9】 생활인구의 구성요소 ····· 20
【그림 10】 전라북도 인구감소 문제 심각성 ····· 24
【그림 11】 전라북도 인구감소 현황 추이 ····· 25
【그림 12】 전라북도 내 시·군 간 방문자 이동행태 요약 ····· 30
【그림 13】 문화·관광형 생활인구 확대 중요성 ····· 33
【그림 14】 생활인구 산정 시범지역(7개)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 비교: 전체 ····· 39
【그림 15】 생활인구 산정 시범지역(7개)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 비교: 성별 ····· 39
【그림 16】 생활인구 산정 시범지역(7개)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 비교: 연령 ····· 39
【그림 17】 생활인구 산정 시범지역(7개)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 비교: 등록지역 ····· 40
【그림 18】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 내용 ····· 45
【그림 19】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농촌유학센터 운영 현황 ····· 47
【그림 20】 중소벤처기업부 로컬크리에이터 유형 및 기대효과 분류 ····· 48
【그림 21】 전라북도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문화·관광 진흥전략 수립 방향 설정 ····· 77
【그림 22】 전라북도 문화·관광형 생활인구 확대 추진조직 구성(안) ····· 115

I

연구의 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그림 1】 연구의 배경

❝ 심화된 전라북도 지역소멸 위기에 따른 지역 차원의 적극적 해결책 필요

- 2023년 기준, 전라북도는 총 13개 시군이 (전주시 제외)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음 [1]
    - 최근 4년 간 (2019년 - 2022년) 전북 지역의 출생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2023년 5월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23.6%로 나타나는 등 (전국 평균 약 18.4%) 지역소멸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임 (통계청, 2023)
- 전국 각지에서 관찰된 지역소멸 위기감 심화로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인구감소지원법)」*을 제정하고 ('22.6.10.) 한계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원을 가속화하고 있음
    - 정부는 법령에 따라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거나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한계 지역의 소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임

[1] 한국고용정보원(2023). 「지방소멸위험지수 요약자료(원시자료 제공안내 포함)」. 지역산업과 고용 2023년 봄호

* 국가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이고 주도적 지역발전,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법령

- 따라서 전라북도 또한 소멸압박 이슈를 완화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전략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시급함

  - 전라북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022년 - 23년, 총 2,058억 원 확보) 생활인프라 개선,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 중이나 극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이 필요함

❝ 지역소멸 위기의 실제적 대응책으로써 '생활인구' 개념의 적용 방안 모색

- 현재 정부는 소멸압박 위기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연계형 생활인구* 개념을 정책 및 제도 전반에 도입하고자 함

  - 현대사회에서 정주인구의 중요성은 사회 구성원의 이동성 증가 등과 같은 시대·환경적 변화로 과거에 비해 많이 희석되어 지역 연계 기반의 체류인구를 의미하는 생활인구가 지역소멸 문제 해결에 중요한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함 (안소현 외, 2023) [2]

    * 국가 총인구 감소, 지역 간 인구유치 경쟁 상황 극복을 위한 새로운 인구개념으로 정주인구 외 지역 내 체류하며 (또는 지역과 교류) 지역의 실질적 활력을 도모하는 사람 (예: 통근, 통학 등)

- 실제 지역소멸은 정주인구 감소에 의한 지역의 사회적 기능 정지로부터 시작함에 따라 '이동'을 기반으로 지역과 상호작용하는 생활인구가 지역 활기 재생산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음

  - 인구감소는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구규모, 생활·경제시스템의 붕괴를 유발하지만, 지역과 교류하는 인구가 증가할수록 사회 기반은 재구조화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전라북도는 지역소멸 대응 정책의 관점을 정주인구 확대를 비롯해 지역과 적극적 교류 의도를 가진 생활인구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책과 제도의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한계 지역의 구조적 악순환 개선을 위해 문화관광형 생활인구 확대 도모

- 통근, 통학 등 다양한 생활인구 범주 중 관광객은 특히, 한계 지역과 높은 관계성을 갖고 있어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과 같은 지역소멸 위기 해결책과 상관성이 매우 큼 (안소현, 2023) [3]

- 실제로 정주인구 감소에 의한 인구 한계 지역에서 관광객은 정주인구 대비 약 6배의 지역경제 창출효과를 지니며, 사회 시스템 재구조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분석됨

  - 국내 대표 한계 지역인 강원도 양양은 서핑과 휴가의 콘텐츠가 결합된 '스포츠케이션'으로 2023년 관광객 190만 명을 유치하고 665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기도 함

- 정부도 인구감소 지역에서 지역 활력 제고 및 역동성 강화의 적극적 전략으로써 체류형 관광 활성화 등의 '방문자 경제*' 실현을 적극 권고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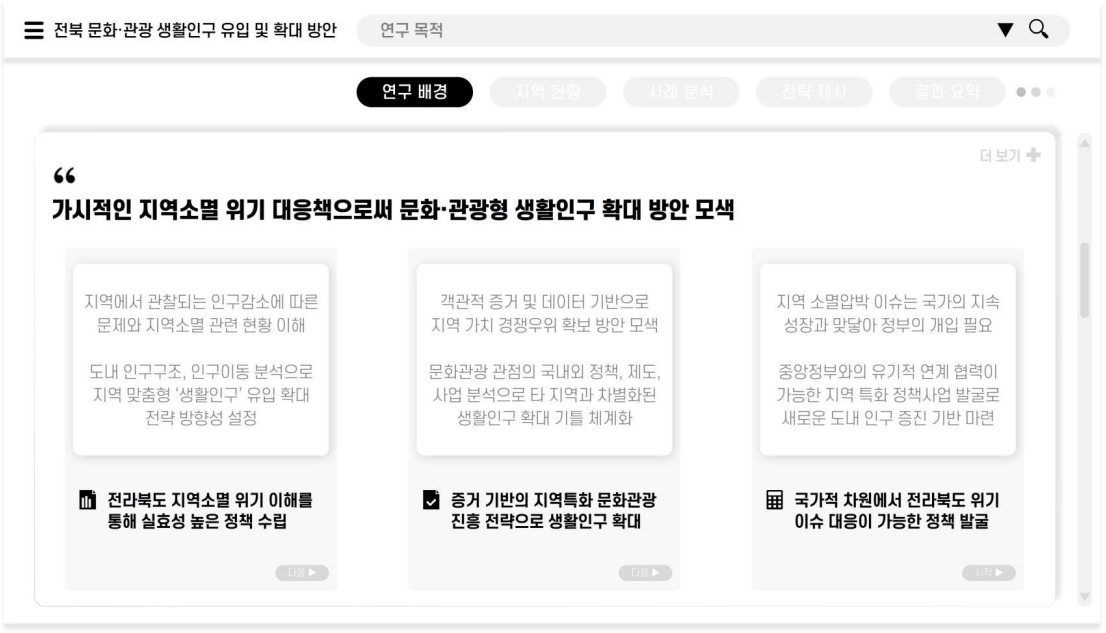
  * 방문객이 일상 환경을 벗어나 지역과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직·간접적 및 유도된 경제활동이며 대표적으로 관광활동을 의미 (한국관광학회, 2022 재인용) [4]

- 따라서 전라북도는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중요 방향으로써 지역 특화형 콘텐츠 중심의 방문자 경제 활성화 촉진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 안소현, 이순자, 민성희, 김민아, 전봉경, & 강민석(2023). 「인구감소시대의 체류인구 도입 필요성과 정책 방안」, 국토정책 Brief
[3] 안소현(2023). 「생활인구와 관광」. 한국관광정책 No. 92 Summer
[4] 한국관광학회(2022). 「2022 인구감소지역 빅데이터 분석 및 관광 중심 대응방안 연구」. 한국관광공사

1.2 연구의 목적



【그림 2】 연구의 목적

❝ 전라북도 지역소멸 위기 이해를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수립의 근거 마련

- 가시적이고 실제적 지역소멸 위기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관찰되는 인구감소 등에 의한 문제와 지역소멸 관련 기본적 현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따라서 전라북도 각 지역별 인구구조 변화, 인구이동 등에 대한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정의된 생활인구 관점에서 지역 현황을 이해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

❝ 증거 기반의 지역특화 문화관광 진흥 전략으로 생활인구 확대 기틀 구축

- 지역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생활인구 확대를 촉진하는 지역 특화 문화관광 전략을 발굴하고자 다양한 객관적 증거 (한국관광데이터랩, 지역관광 통계 등) 기반으로 지역의 경쟁적인 가치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함
- 특히,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문화관광 관점의 국내외 정책, 제도 및 사업을 분석하여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관점에서 전라북도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틀을 체계화 해야 할 것임

❝ 국가적 차원의 전라북도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정책 발굴

- 한계 지역의 소멸압박 이슈는 지역적 차원을 넘어 국가의 지속적 성장과 맞닿아 있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관계부처 차원의 능동적 개입과 지원이 요구됨
- 따라서 중앙정부와의 연계 협력이 가능한 특화형 정책사업 발굴을 도모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북 지역의 새로운 인구 증진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자생력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주요 연구내용

가 연구범위 설정

- 본 연구는 전라북도 지역소멸 위기 완화의 실효적 방안을 모색하고 한계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문화관광형 생활인구 확대 전략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둠
- 따라서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라북도 14개의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소멸위험 수준 평가에서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곳을 (전주시 제외 13개 시·군) 중점으로 살펴봄
- 생활인구 확대 목적의 특화된 문화관광 전략 설정이라는 지침서적 성격을 고려하여 기준년도 2023년을 중심으로 연차별 추진 정책사업을 제언하고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도모함
-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1) 지역소멸과 생활인구의 개념 이해와 (2) 정책, 법/제도 및 선진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전라북도 여건에 부합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문화관광 진흥 정책을 포함함

나 핵심 연구내용

❝ 전라북도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이해 및 문화관광 기반 생활인구 확대 필요성 검토

- 지역적 관점에서 전라북도의 지역소멸 위기 발생원인과 위협을 이해하고 당면 위기의 완화를 위해 지역 연계형 체류인구인 생활인구를 확대해야 하는 당위성을 살펴봄
- 국가적 차원에서 생활인구 확대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어 사회적 환경을 고려해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을 검토하고 전라북도 맞춤형 생활인구 확대 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이해함

❝ 실제적이고 차별화된 생활인구 확대 전략 수립을 위해 유사 정책 및 사업사례 분석

- 전라북도와 동질적 지역소멸 이슈에 직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특화된 문화관광 진흥 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검토해 전라북도 특화 전략의 방향을 구체화 함
- 이를 바탕으로 유의미한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구현 가능하고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정책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유효한 정책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맞춤형 문화관광 전략 발굴 및 추진계획 구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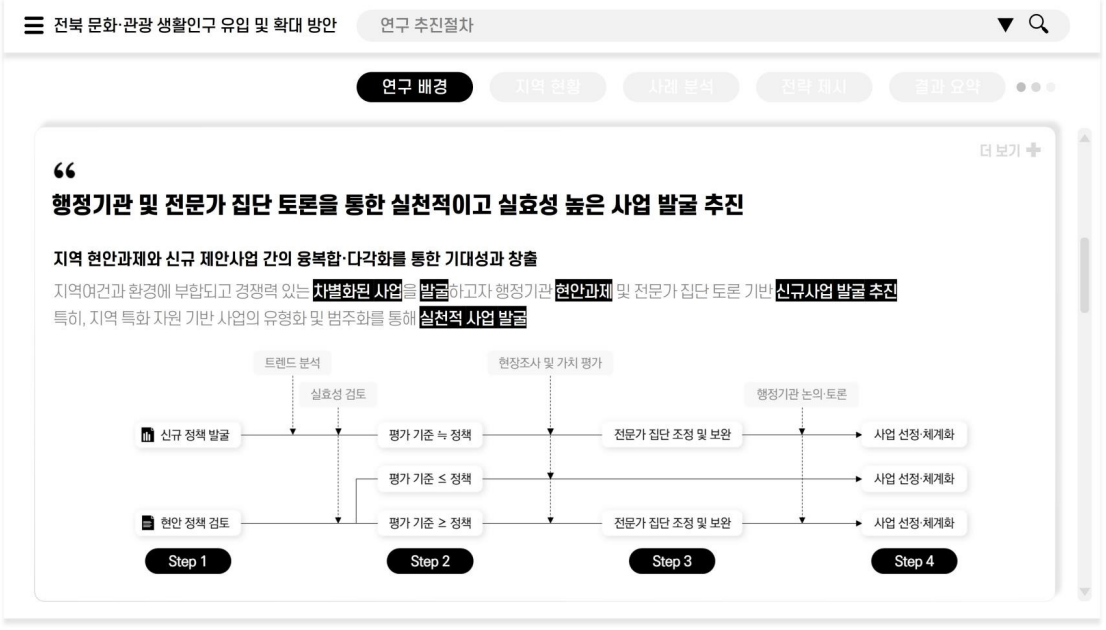
· 제시된 정책 목표와 방향에 근거한 실제적 정책사업을 발굴·제언하며, 특히 전북 지역 여건에 부합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능동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함



【그림 3】 연구의 범위 및 내용

2.2 연구 추진체계

· 본 연구의 중점 목적은 전라북도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실천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지역 현안 및 신규 제안정책이 융·복합적 관점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함



【그림 4】 연구의 절차

II

지역소멸과 생활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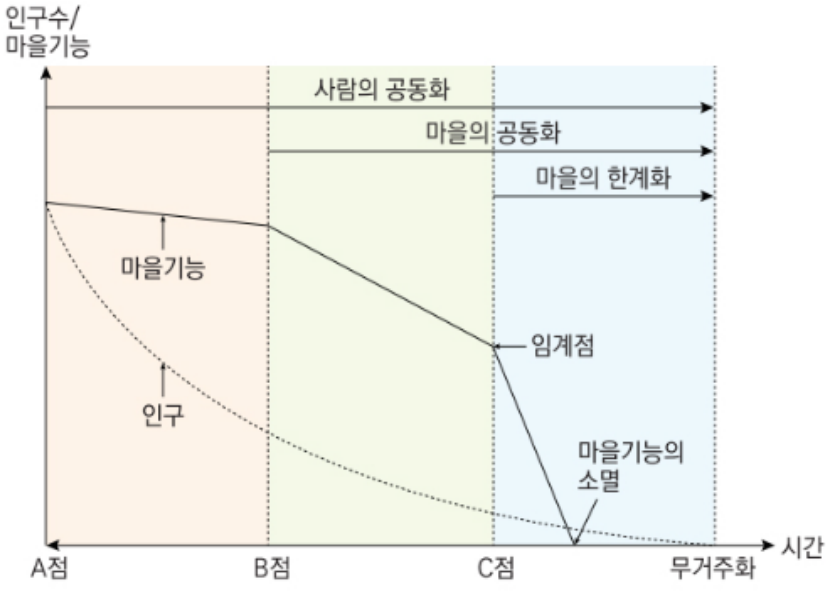
1. 사회적 문제: 지역소멸 위기
2. 정책적 대처: 생활인구 확대

1. 사회적 문제: 지역소멸 위기

1.1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이해

가 지역소멸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

- 지역소멸은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이며, 지역 내 인구유입 대비 유출이 많아 관찰되는 현상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특히 심각한 수준임
  - 2014년 마스다 히로야(增田寬也, 일본창성회의 전 의장)가 최초 제기한 '지역소멸'은 출생률 감소, 도심인구 집중화 현상 등 지역 인구구조 변화로 유발된 지방의 과소지역 및 무거주화 현상을 일컫는 용어임
  - 마스다 히로야(增田寬也)는 지역 소멸가능성을 인구 재생산력 관점에서 접근하여 20세 ~ 39세 여성인구가 50% 이하로 감소하는 곳을 소멸 지역으로 간주함
  -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는 고령인구와 대비하여 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20세 ~ 39세 여성인구의 비율로 규정한 바 있음(이상호, 2016)



자료: 김현호(2021) 재인용

【그림 5】 지역소멸 또는 마을 한계화 과정

· 즉, 지역소멸은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공동체 붕괴, 지역사회 기능 저하, 사회기반시설 능력 상실 및 무거주화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관측되는 결과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김현호, 2021; 차미숙 외, 2022)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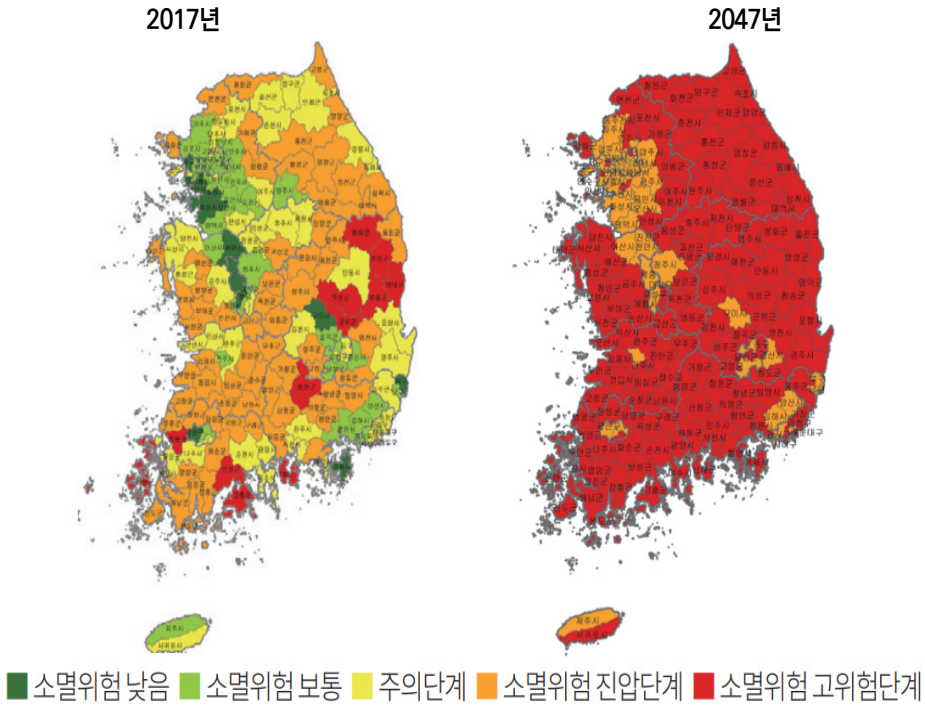
  - 지역소멸은 지역의 인구감소 → 공동체 기능 저하 → 지역의 완전한 인구소멸 또는 사람의 공동화 → 마을의 공동화 → 마을의 한계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짐

· 2020년,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감소 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실질적인 지역소멸의 시기로 진입함

  - 2020년 기준, 국내 전체 시·군·구의 66%가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한 바 있음

  - 특히,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였고 기초자치단체별 인구 정점 대비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시·군·구는 60여 곳으로 대부분 농산어촌이 해당됨

· 이와 함께 지속적인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문제로 소멸위기에 해당하는 지역이 빠르게 증가해 2017년 12곳에 불과하던 소멸 고위험지역이 2047년 157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 민보경(2023), 「지방소멸위기 대응 방향」, 국회미래연구원, Futures Brief, 제23-03호

【그림 6】 시군구별 장래 소멸 위험지역 분석

· 특히 이러한 문제는 중소도시에서 크게 관찰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2023년 89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함

  - 2023년 2월 기준 국내 소멸위험지역은 118곳으로 전체 228개 중 약 52%을 차지함

· 한편, 시도별로 소멸위험 시·군·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으로 전체 14개 시·군 중

[5] 김현호(2021). 「지방소멸,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꼭 알아야 할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No. 131
[6] 차미숙, 최예술, 조은주(2022). 「지방소멸 위기 대응 추진사례와 시사점」. 국토이슈리포트 제52호

13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남 지역의 위기가 크게 고조되는 상황임 [7]

【 표 1 】2023년 기준, 시도별 소멸위험지역 시·군·구 분포 현황

구분	전국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체 시군구 수	228	16	8	10	31	18	11	15	14	22	23	18
소멸위험진입	67	7	2	2	6	12	3	7	6	7	10	5
소멸고위험	51			1		4	5	5	7	11	10	8
소멸위험지역 소계	118	7	2	3	6	16	8	12	13	18	20	13
소멸위험지역 비중	51.8	43.8	25.0	30.0	19.4	88.9	72.7	80.0	92.9	81.8	87.0	72.2

자료: 이상호 · 이나경(2023). 지방소멸위험 지역의 최근 현황과 특징. 한국고용정보원

나 우리나라의 지역소멸 개념화 방식

- 지역소멸의 위기를 처음 강조한 마스다 히로야(增田寬也)는 소멸가능성을 인구의 재생산력적 관점에서 해석·접근하였기에 출생아의 비중과 높은 상관성을 갖는 20세 ~39세 여성인구의 감소 비율에 따라 지역소멸 위기 지역을 규정함

- 우리나라도 지역의 인구 재생산력을 중심으로 소멸지역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나, 고령인구와 대비하여 추정한다는 점에서 해석에 일부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는 지역소멸 가능성을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대비해 20세 ~ 39세 여성인구 비율을 산정해 소멸위기 지역을 구분하고 있음

- 이러한 논의를 통합하면, 지역소멸은 '지역사회 인구가 감소하여 인프라 및 생활서비스 공급 및 생활의 애로 등으로 인해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지칭할 수 있음 [8]

-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지역소멸의 위기를 강조하는 행정안전부 고시 '인구감소지수' 외에도 다양한 지표와 개념에 입각해 지역소멸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있음

1 지방소멸지수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일본의 접근방식을 적용하여 20대 ~ 30대 여성인구 비중을 중심으로 지역의 소멸위험지수*를 산출하고 수준에 따라 소멸위기 지역을 제시함

【 표 2 】지방소멸위험지수

명칭		소멸위험지수	
소멸 저위험		1.5 이상	
정상지역		1.0 ~ 1.5 미만	
소멸 주의		0.5 ~ 1.0 미만	
소멸위험지역	소멸위험 진입	0.2 ~ 0.5 미만	
	소멸 고위험	0.2 미만	

자료: 이상호 외(2022)

[7] 이상호 · 이나경(2023).「지방소멸위험 지역의 최근 현황과 특징」. 지역산업과 고용, 산업 · 일자리 전환 특집호
[8] 김현호(2021). 지방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No. 131. 지방자치행정연구원.

2 인구감소지수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함(『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

- 인구감소지역은 5년 단위로 지정·고시하며, 총 8개의 인구지표를 기준으로 고시함

【 표 3 】 인구감소지수 산정 지표

구분	세부내용
연평균 인구증감률	· 20년 간 인구증감률 변화를 기준으로 최근 인구감소 추세 및 인구감소 지속성을 판단하고 지역의 행정수요 예측과 지역활력 수준을 검토함(기준,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현황)
인구밀도	· 최근 5년 간 지역의 인구 밀집도 변화를 검토함(기준, 통계청 행정구역 현황)
청년순이동률	· 최근 5년 간 청년(19세 ~ 34세)* 연앙인구 대비 청년순이동자 수 변화를 분석하고 지역 청년의 사회적 이동 추이를 분석함(기준,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청년기본법』 제2조 제1항 근거
주간인구	· 지역의 주간인구 규모를 통해 소비 및 경제활동 등 지역활력 수준을 검토함(기준, 국가교통DB 통근·통합·업무 통행인구)
고령화비율	· 최근 5년 간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에 입각해 지역의 노인복지수요 수준을 추정함(기준, 통계청 쭈민등록인구 현황)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9호 근거
유소년비율	· 최근 5년 간 총인구 대비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비율로 향후의 지역인력 수준을 전망함(기준,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현황)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9호 근거
조출생률	· 최근 5년 간 연앙인구 대비 출생아 수 비율을 토대로 지역 인구의 자연증감 추이를 분석함(기준,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재정자립도	· 최근 5년 간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 변화로 지방재정 여건을 검토함(기준, 통계청 재정자립도)

자료: 행정안전부(2023)

3 K-지방소멸지수 (산업연구원)

· 산업연구원은 거시경제 측면에서 생산-분배-지출의 선순환 구조와 지역경제의 실물경제 순환 구조를 적용한 K-지방소멸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문제를 강조함

【 표 4 】 K-지방소멸지수 산정 지표

구분	측정지표	출처	산출 방법
혁신 활동	1인당 경상연구개발비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MDIS)	경상연구개발비/총인구
산업구조 고도화	전 산업 다양성지수	산업연구원	세세분류 산업 가중치 합계
고부가가치 기업	지식산업 사업체 비율	산업연구원	지식산업사업체수/총사업체수
지역 성장	천명 당 종사자 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총종사자수×(1,000명)/총인구
	1인당 GRDP	통계청, 지역소득	GRDP/총인구
	인구증감률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증감인원수/총인구

자료: 허문구 외(2022), 「국가위기대응을 위한 지방소멸 방지전략의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K-지방소멸지수는 지역경제 선순환 매커니즘을 형성하는 4개 부문의 주요 지표를 활용하며, 특히 현실적 차원에서 인구 유출에 의한 지역소멸의 영향성을 강조하는 이점으로 지역소멸의 위기를 크게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일본의 지방소멸지수는 인구 재생산력 중심의 자연증감 비율에 의존하나 현실에서는 인구유출에 의한 지역소멸 위기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K-지방소멸지수는 현재의 위기 실상을 잘 반영하는 지표임

· 특히, 인구유출에 의한 지역소멸은 지역 외부의 인구를 유인하거나 지역 내부의 인구를 밀어내는 요인을 지역경제 매커니즘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K-지방소멸지수는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소멸의 위기*를 강조하는 중요 지표임

  * 지역 내 산업 고도화에 따른 미래산업 창출 효과를 추정하고(혁신 활동) 지역 총생산 증가분과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산업의 고도화) 지역성장을 위기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이점으로 중요 지표로 간주

【 표 5 】 지방소멸지수, 인구감소지수 및 K-지방소멸지수 비교

구분	산정 지표	주요 특징
지방소멸지수	20~39세 여성/65세 이상 인구	인구 재생산력
인구감소지수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인구구조/인구증감
K-지방소멸지수	1인당 경상연구개발비, 전 산업 다양성지수, 지식산업 비율, 천 명당 종사사 줏, 1인당 GRDP, 인구증감률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자료: 허문구 외(2022),「국가위기대응을 위한 지방소멸 방지전략의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처럼 사용 용어 또는 지표에 따라 다소 상이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종합적인 차원에서 지역소멸 또는 인구감소 지역에 관한 정의는 지역 내 인구의 감소로 지역 공동체가 기능을 크게 상실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표 6 】 지역소멸 지역과 관련된 개념

구분		내용
지방소멸지역	마스다 히로야 (2014)	· 20세~39세 여성인구가 50% 이하로 감소하는 지역으로 인구가 지속 감소하여 더 이상 사람이 살기 어렵고, 공동체의 기능 유지가 어려운 상태의 지역
	이상호 (2016)	·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20세~39세 여성인구 비가 0.5 이하 지역으로 가임여성 대비 고령자 비율이 낮아 지속성이 떨어지는 지역
	정성호·홍창수 (2018)	·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사람이 살지 않게 되고, 개별적인 생활 관련 서비스가 유지될 수 없는 인구 규모의 지역
	유선종·노민지 (2018)	· 인구구조뿐만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단위인 가구구조의 변화와 생활의 터전을 이루는 공간인 주택의 노후도 등이 높아 생활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지역
인구감소지역	기정훈 외 (2011)	· 우리나라의 시·군·자치구 별로 15년 간의 평균 인구의 증감률 대비 상대적으로 인구 증가율이 낮은 지역
	김현호 외 (2019)	· 인구감소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높아 주민의 삶의 질 유지뿐 아니라 지역공동체 유지 자체도 우려돼 지역의 인구·경제·공간적 역량강화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
	박진경 외 (2019)	· 지역의 인구감소가 공동체 존립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현저해 지역의 인구활력, 경제회복, 공간혁신 등을 위해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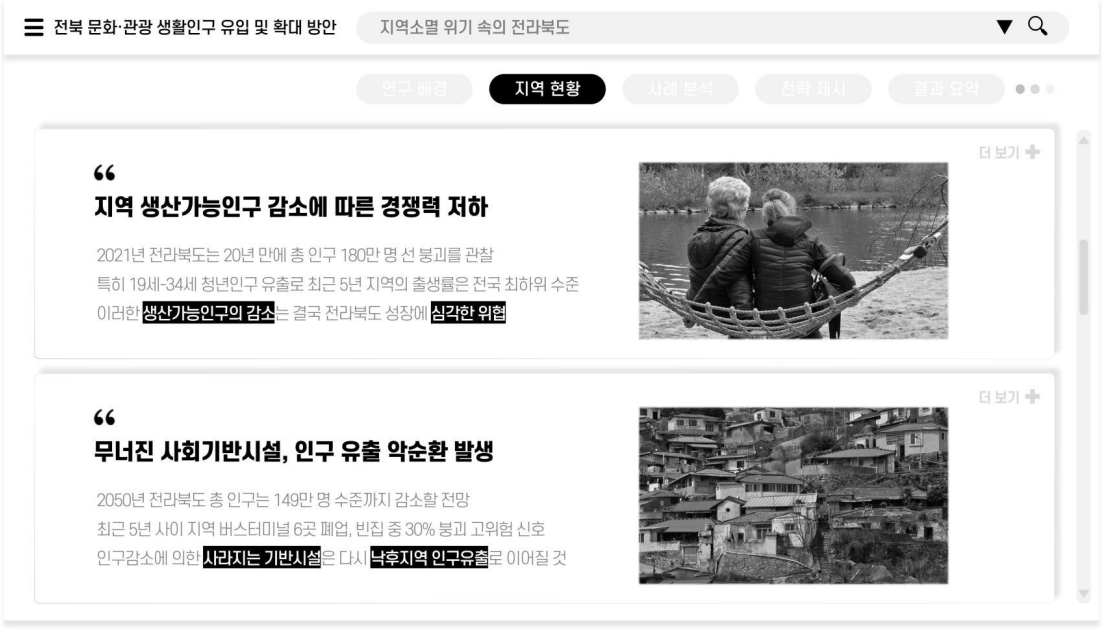
자료: 김현호 외(2021).「국가위기대응을 위한 지방소멸 방지전략의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편, 우리나라는 지역소멸 및 총인구감소 문제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 측면에서 20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함 2023년 1월 1일 시행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은 지역소멸의 대상으로 지목된 지역과 유사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고시일로부터 5년 주기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함

  - 해당 법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지칭하며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특별시 제외)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및 14세 이하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의미함

1.2 인구감소 문제로 관찰되는 전라북도 지역소멸 이슈



【그림 7】 인구감소 문제로 관찰되는 전라북도의 악순환 현상

가 지역 내 빈집 증가

·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주택소유자 사망 및 신규 주민의 유입 감소, 지역 쇠퇴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 및 취소 등의 사유로 구도심 및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빈집 증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오병록, 2017)

  - 2022년 전라북도 빈집 비율은 약 11.9%(빈집 약 9만 호)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의 자연증감과 사회증감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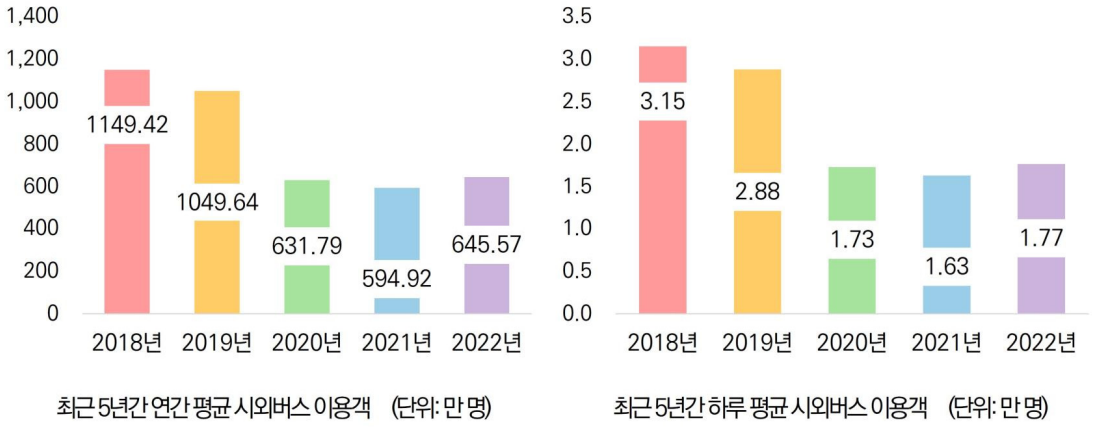
  - 특히, 2022년 기준 건축년도 30년 이상 노후 빈집의 비율은 약 6.1%로(약 4.6만 호)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기반시설 이전·정비

사업이 빈번한 농촌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음

- 이러한 빈집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지역 주민의 지역 외 유출에 영향을 미쳐, 주변 지역 내 더 많은 빈집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동시에 사회기반시설 붕괴와 침체된 지역 분위기 조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국토연구원, 2018)
  - 특히, 빈집은 범죄 장소 악용화를 비롯해 인근 지역의 슬럼화, 건물 붕괴 위험 증가 등의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 투기·적재 등의 문제로 지역 미관 손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한국지방세연구원, 2023)
- 따라서 지역의 특성 및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한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양한 콘텐츠 기반 방문객 유입 독려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지역의 활력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나 줄어드는 인구, 사라지는 기반시설 그리고 다시 낙후된 곳을 떠나는 악순환

- 전라북도 내 버스터미널 30곳 중 6곳이 최근 5년 (2018년~2022년) 사이 지속되는 경영난에 잇달아 폐업하거나 운영방식이 공공위탁으로 변경되었으며, 앞으로 사라지거나 통폐합되는 고속버스 터미널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자료: 전북대신문(2023.09.20.) 지속된 버스 산업 축소, 전라북도는?

【그림 8】 2018년 - 2022년 전라북도 시외버스 연간/하루 평균 수송인원

- 전라북도 30곳 버스터미널 이용객은 2019년 약 1,013만 명, 2020년 약 602만 명, 2021년 572만 명으로 지속 감소세임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 2022)
- 그 결과, 2018년 남원 반선 폐업, 2020년 임실 오수 폐업(임실군 위탁운영), 2021년 김제 원평 폐업, 정읍 신태인 폐업 후 정읍시 직영, 2022년 남원 고속 폐업 후 통합, 익산 고속 폐업 후 통합 등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경로인 버스터미널 6곳이 폐업하거나 운영방식을 변경함

- 지역 거점 터미널의 폐업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지역주민 이동권을 위협하고 지역을 방문하는 관계 인구 감소를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며, 지역소멸의 위협을 가중시킬 수 있어 관리 및 통제적 측면에서 정책과 제도에 기반 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다 경기 악화에 따른 전통시장의 폐쇄 및 기능 상실

- 2023년 현재, 전라북도 내의 전통시장은 총 59곳으로 2013년에 비해 6곳이 사라졌거나 시장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남
    - 전주시 동부시장, 익산시 신동·창인시장, 남원시 운봉시장, 완주군 운주시장, 임실군 신평시장 등이 전통시장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폐쇄된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 및 기초자치단체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래시장 현대화'를 도모하며 세제 투입을 지속 중이지만, 이미 지속적 인구감소의 문제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내 전통시장은 과거의 위상 또는 활력을 쉽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2023년 10월 기준 전라북도 전통시장의 경기 전망은 76.7로 전월대비 -31.6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전라북도 전통시장 경기 하락폭은 전국 내에서도 심각한 위험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전통시장은 단순히 지역사회 및 지역민의 삶의 질과 높은 상관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지역 특화된 다양한 상품요소를 활용하는 관광자원 기능도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사회기반시설의 측면에서 지속적 관리 모니터링으로 전통시장의 명맥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정책적 대처: 생활인구 확대

2.1 생활인구 개념

가 생활인구 도입 배경 및 개념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적극적 지원체계 마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우리나라의 인구수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연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과 맞물려 지역의 인구감소는 더욱 심각한 수준임
  -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수는 2020년 5,183만 명, 2021년 5,164만 명, 2022년 5,144만 명에 이어 2023년 5,133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행정안전부 인구통계, 2023)
-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바탕으로 지역의 인구규모를 추산하고 관련 공공서비스 제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행정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변화된 환경에서 지역사회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 이동성을 반영한 인구관리 정책 필요성이 제기됨
  - 교통·통신 등의 발달로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생활 지역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공공서비스 공급의 비용·편익 간 괴리가 지속 심화되는 추세임
  - 특히, 주택가격 및 임대료의 상승 등 거주문제와 관련해 도시 외곽지역 또는 인접한 소도시로 주거지를 변경하였으나, 생활권역은 대도시권인 사례가 급증하면서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개인의 활동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보편화됨

-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 지역의 정주인구 확대를 위한 노력 중 하나였던 주민등록인구 유치 경쟁 실효성이 감소하고 정주인구 확대가 궁극적인 지역 간 제로섬 게임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인구 이동성 개념이 포함된 생활인구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함

- 특히, 정부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인구감소 문제와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인구 개념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새롭게 제정·시행함
  - 이 특별법은 지역이 주도하는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제정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며,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에 맞춤화된 다양한 정책·행정적 지원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로 심각성이 고조되는 우리나라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 표 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목적 요약

항목	내용
제1조(목적)	·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자료: 행정안전부(2022.06.10.), 『인구감소지원특별법』 일부 발췌

우리나라 여건에 부합된 새로운 관계인구 개념, 생활인구

- 생활인구는 인구 이동성의 특성이 반영된 인구의 새로운 개념적 정의로써 특정 지역을 생활권으로 형성한 인구에 대해 기능적·영역적 접근으로 관계인구, 교류인구, 정주인구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김용진, 2023)

- 즉,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 및 체류하며 생활하는 모든 인구를 포함하는 개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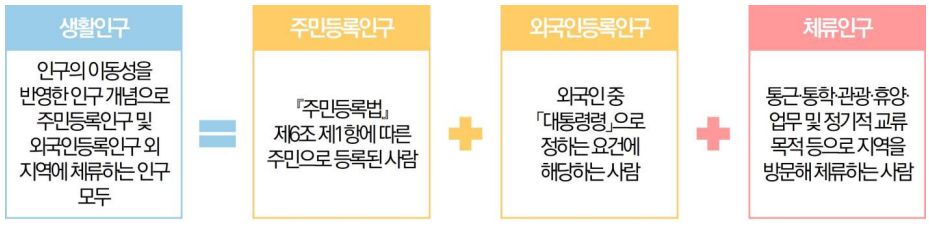
【 표 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생활인구 개념 정의

항목	내용
제2조(정의)	·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다.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자료: 행정안전부(2022.06.10.), 『인구감소지원특별법』 일부 발췌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생활인구에 포함되는 '체류하는 자' 및 '외국인'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체류하는 자'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 교육 등의 목적으로 통학하는 자, 관광·휴양을 목적으로 지역 내에 체류하는 자를 모두 총칭함

- 또한, '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부여받은 자로 동법 제10조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을 받은 자를 의미함



주석: 외국인등록인구에서 「대통령령」이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자료: 행정안전부(2022.06.10.) 『인구감소지원특별법』 일부 발췌

【그림 9】 생활인구의 구성요소

- 따라서 지금까지 정주인구, 즉 주민등록인구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의 방향을 인구 이동성 개념이 반영된 '생활인구' 개념에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즉, 지역주도형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으로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고 자발적인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등록인구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과 상호 협력적 관계를 지향하는 생활인구를 확대하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

  - 특히,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적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 내 외국인등록 인구의 안정적 거주와 외국인 인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요구됨

  - 나아가 체류인구 맞춤형 행정 서비스나 사회복지 제공 등 제도를 통해 체류인구 생활 편의성을 향상함으로써 지역과 상호 협력적 관계를 갖는 생활인구를 확대해야 함

· 생활인구 중심으로의 인구정책은 정주인구 중심의 단조로운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과 관계를 맺는 인구까지 대상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정책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구감소로 인한 지자체 간 소모적 경쟁(정주인구 빼앗기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음

· 특히, 비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인구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역소멸의 위기가 고조되는 일부 지역에서는 생활인구의 새로운 인구개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더욱이 국가 차원에서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위해 제정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에 관련 필요 지원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제15조 제1항)

  - 비록 생활인구의 구성요소인 '체류인구'에 대해선ㄴ 아직까지 합의된 구체적 정의가 다소 부족하나, 현재 정부(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안』의 제정 이후 '체류하는 자'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세부요건을 정할 계획임*

    * 현재까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생활인구 정의는 주민등록법상 주민과 외국인등록자, 국내거소신고자 등으로 분류되며, 통학이나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인 사람'을 포함 중

나 문화관광형 생활인구 확대 필요성

지역소멸 대응책 중 하나로 관광의 역할론 대두

· 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인구감소지역의 관광형 생활인구를 확대해 지역에 활력을 부여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함

  - 당 협의체는 인구감소 시대 지역과의 상호 협력적 관계를 갖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역 탐색과 경험을 유도하는 관광의 긍정적 역할에 주목함

    *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및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관계 기관과 인구감소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광재단, 지역관광추진조직(DMO, Destination Management Organization) 등이 참여하는 조직

· 실제 관광객은 정주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의 경제적 기반 붕괴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제고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2021년 「인구감소소비 관광대체효과분석(한국관광공사)」에서 국민 1인당 소비지출액(1,638.3만 원)을 기준으로 지역 내에서는 국민 1인당 평균 744.5만 원을 소비하지만 지역 밖에서는 평균 893.9만 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추정됨

- 즉, 지역 소비에 필수적인 정주인구는 관광객의 소비액으로 일부 보존될 수 있으며, 그 결과로써 지역 경제의 침체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 따라서 지역 고유의 가치와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한 지역관광 기반 조성은 궁극적인 관점에서 생활인구 확대의 마중물로 작용하며, 지역활력 제고 및 경제 활성화의 토대가 될 수 있음

· 특히, 지역의 정주인구 감소는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고, 교육·의료 등 필수 사회기반시설과 인프라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정주 중심이 아닌 관계 중심의 문화·관광형 생활인구 확대가 인구감소 지역의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음

- 국가 연구기관 발표 자료(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 분석(2022)」)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관광객 41.7명은 정주인구 1인의 지역 내 소비 효과를 대체할 수 있음

· 따라서 적은 정주인구에 따른 높은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 지역에서 관광 활성화 정책은 지역사회의 체계를 유지하는 효과적 수단과 도구가 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소멸의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전라북도는 문화·관광형 생활인구 확대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특히, 관광산업은 일상관광, 체류형 관광 등 생활인구 중심의 풍부한 경험 보유

· 실제 인구감소에 따른 높은 지역소멸 위기 지역에서 생활인구 맥락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인구를 증가시킨 사례가 있음

- 강원도 양양의 경우, 서핑과 휴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른바 '스포츠케이션' 기반 조성*을 통해 젊은층의 방문 소구력을 크게 증가시켰으며, 그 결과 관계 전·후방 산업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높은 지역소멸 위기의 상황을 개척한 바 있음

  * 국내 최초 서핑 전용 해변인 양양 '서피비치'는 2015년 동해안에 동남아와 같은 이국적인 해변을 조성을 추구한 '로컬 크리에이터(지역의 문화적 특성이나 자원 등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의 계획에서 시작

- 해당 지역은 최초 조성된 2015년 관광객이 1만 명에 불과했지만, 다양한 체험콘텐츠 구축(서핑, 비치요가 강습, 선셋페스티벌 등)을 통해 2017년 약19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으며, 약 665억 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알려짐(중앙일보, 2023.06.01.)

· 특히, 2020년부터 시작된 지역관광 현안문제 및 지역관광 대응력 강화 목적의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사업'은 다양한 지역에서 관광 콘텐츠 기반의 인구유입 마중물 체계를 조성하고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경향신문, 2024.03.11.)

- 대표적으로 홍성군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은 '어서 와 홍성은 처음이지' 사업을 통해 '지역 매니저' 34명을 선발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 친구 및 지인의 홍성여행을 독려해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한 바 있음

- 또한, 전주의 경우, 전주를 대표하는 맛집과 문화공연 콘텐츠를 연계한 '전주맛집투어패스'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외식업체와 예술·문화인의 상생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도 하였음(2024년 기준, 약 2만 4천 장 판매)

· 또한, 정부(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이 지역소멸 위기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강조할 목적에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을 실시해 지역활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노력을 추진 중임

-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은 소지자에게 다양한 여행 및 관광 혜택을 제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현재 15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음

  * 강원 평창, 충북 옥천, 부산 영도구, 인천 강화, 강원 정선, 충북 단양, 충남 태안, 전북고창, 전남 신안, 경북 고령, 경남 거창, 경기 연천, 충북 제천, 전북 남원, 경남 하동

- 특히, 강원도 평창군과 충청북도 옥천군의 경우, 디지털 관광주민증 소지자가 약 14만 명으로 해당 지역 정주인구의 1.5배 수준에 달하기도 함

따라서 산업적 기반 취약 지역은 문화·관광산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 절실

- 문화·관광산업의 긍정적 효과에 주목한 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 전략」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의 균형관광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 문화·관광형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주요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 중임

  - 예를 들어 독창적인 소재를 활용하는 지역관광의 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하며, 한 달 살기와 같은 '살아보기', 또는 '워케이션*' 사업과 같이 방문객 장기 체류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워케이션 이란, 일+휴가(work+vacatio)의 합성어로, 원격근무와 여행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

- 이러한 측면에서 산업적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축제·이벤트 등 생활인구의 지역 방문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문화·관광형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대형 건물 및 인프라 투자보다 모방이 어려운 해당 지역(마을)의 특화된 가치를 활용하는 문화활동(축제,이벤트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실천한 사례가 있음

  - 대표적으로 시가현 나가하마 지역에서 실시된 '다시 찾는 머물다 가는 관광지' 사업은 방문객의 45%가 접경 지역인 고베, 교토 등의 거주하는 2회 이상 반복 방문한 관광객으로, 실제적 생활인구(관계인구)를 확대한 사례*로 알려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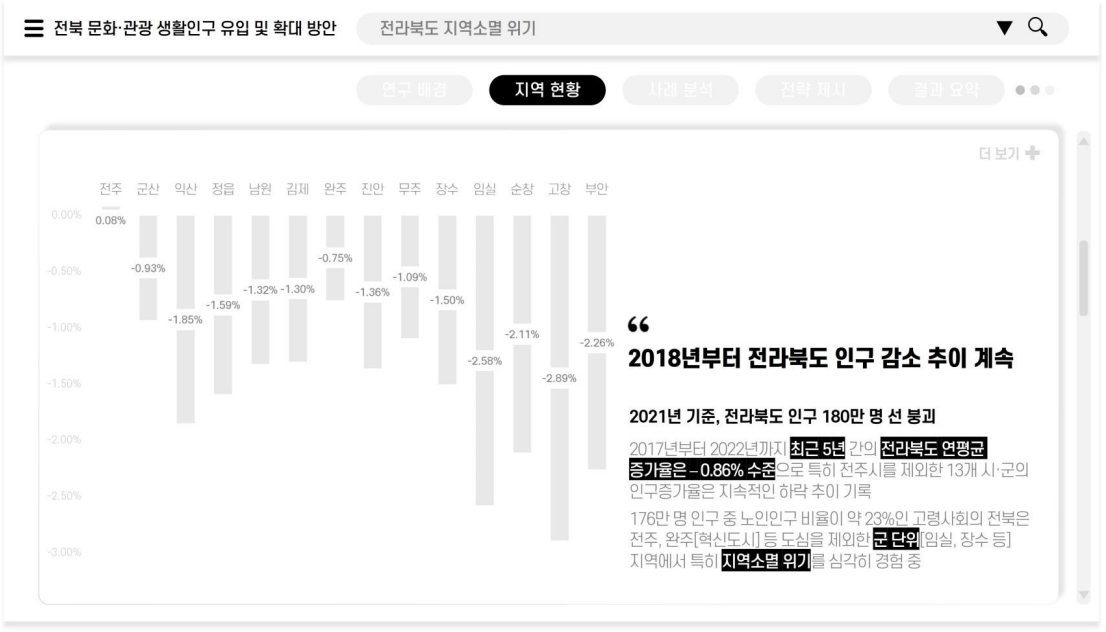
    * 생활인구는 궁극적으로 지역과의 지속적 교류와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반복 방문이 중요

- 더욱이 축제·이벤트 기반 문화·관광형 콘텐츠는 2022년 기준 약 1,800억 원 수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2022년 정부 지원 문화관광축제 21개 기준), 취업유발효과 약 258명, 고용유발효과 약 157명 등 1개 축제로 인한 평균 지역 내 경제적 효과는 약 85억 원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뉴스저널리즘, 2023.03.07.)

- 궁극적인 관점에서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는 차별화된 관광자원 확충에 따른 지역의 새로운 가치 발견(예, 지역의 성장·발전 기반 마련) 뿐만 아니라 관광소비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개발·발전에 있음

- 따라서 인구감소에 의한 지역소멸 위기 지역에서의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 마련은 지역 자생력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주인구 확대와 같은 지자체 간 소모적 경쟁에서 벗어나 실제적 인구 창출의 효과를 얻을 것이란 기대가 있음

다 전라북도의 생활인구 현황



【그림 10】 전라북도 인구감소 문제 심각성

1 주민등록인구

· 2022년 기준, 전라북도 총 인구(1,769,607명)는 전국(51,439,038명) 대비 약 3.44%에 해당되며, 전국 17개 시·도 중 10위에 해당하는 인구감소의 대표적 위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 표 9 】 전라북도 시·군별 인구규모 및 변화추이 (단위 : 명, %)

구분	1997	2002	2007	2012	2017	2022	인구증감률
전국	46,684,069	48,229,948	49,268,928	50,948,272	51,778,544	51,439,038	0.10
전라북도	2,001,606	1,953,846	1,862,277	1,873,341	1,854,607	1,769,607	-0.12
전주시	588,885	624,485	623,926	648,863	648,964	651,495	0.11
군산시	280,648	272,007	260,562	278,341	274,997	262,467	-0.06
익산시	330,310	330,101	313,590	306,469	300,187	273,697	-0.17
정읍시	150,343	139,133	124,239	119,392	113,776	105,081	-0.30
남원시	107,180	100,392	89,247	87,000	83,281	77,948	-0.27
김제시	122,761	110,989	97,615	92,317	86,926	81,455	-0.34
완주군	86,055	84,626	82,972	86,164	95,975	92,422	0.07
진안군	35,973	30,439	30,250	26,963	26,271	24,550	-0.32
무주군	30,835	27,894	26,361	25,321	24,809	23,489	-0.24
장수군	29,770	26,349	26,687	23,191	23,003	21,336	-0.28
임실군	41,326	35,071	31,952	29,956	30,162	26,508	-0.36
순창군	37,553	32,329	32,035	30,055	29,698	26,727	-0.29
고창군	79,723	69,657	60,962	60,440	60,472	52,338	-0.34
부안군	80,244	70,374	61,879	58,869	56,086	50,094	-0.38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2022). 주민등록인구현황

- 실제 전라북도의 인구 감소 추이는 지속적이며, 도내에서도 인구구조가 불균형적 형태를 보여 2022년 기준 지역 총 인구의 약 36.8%가 전주시에 거주한 반면, 군 단위 지자체의 인구는 전주 대비 약 -4.57배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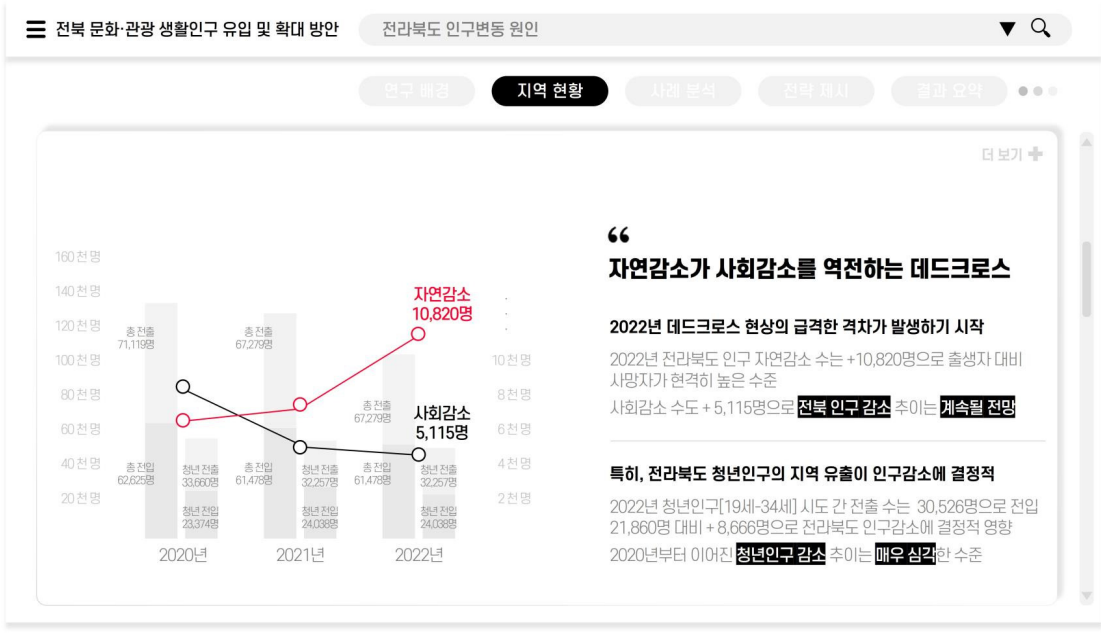
    - 1997년부터 2022년에 이르기까지 전라북도의 연평균 인구증감률은 전체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인 지역 소멸 위기의 중요한 신호로 보임

- 2022년 기준, 전라북도 인구의 총 전입 이동률은 2020년 대비 약 19.93%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199,432명), 반면 총 전출 이동률도 20.59%p(204,547명) 감소해 최근 3년 간 인구유출은 다소 완화세를 보임

【 표 10 】 전라북도 인구이동: 2022년 기준 (단위 : 명, %)

구분	총 이동		시·도내 이동		시·도간 이동		순이동	이동률
	전입 인구	전출 인구	시군구 전입	시군구 전출	시도 전입	시도 전출		
2020년	249,083	257,577	53,507	53,507	62,625	71,119	-8,494	-0.5
2021년	223,710	229,511	47,692	47,692	61,478	67,279	-5,801	-0.3
2022년	199,432	204,547	44,369	44,369	55,511	60,626	-5,115	-0.3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2023). 전라북도 기본통계 - 인구 - 인구이동



【그림 11】 전라북도 인구감소 현황 추이

- 다만, 이는 지역소멸 위기를 충분히 벗어나는 신호로 간주하기 어려우며, 실제 지난 3년 간의 전입 대비 전출 인구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완화된 순이동률에도 지역 외로 인구유출은 지속적이라고 간주할 필요가 있음

- 더욱이 최근 6년 간 전라북도 총 인구는 연평균 약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60세 이상 인구의 증가세 (연평균 3.81%)는 뚜렷해 심화된 인구 고령화 수준으로 지역의 소멸 위기는 지속적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8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세가 연평균 약 8% 수준을 상회한 반면 4세 이하 유아인구 감소세가 약 -8.7%로 극명한 인구계층의 양극화가 관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문제인 저출산과 초고령 사회 이슈와 맞물리고 있는 현상에서 지역의 인구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는 현실임

【 표 11 】 전라북도 인구구조: 2022년 기준 (단위 : 명, %)

구분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0~4세	51,498	26,306	25,192	46,252	23,638	22,614	42,208	21,387	20,821	-8.7
5~9세	77,194	39,696	37,498	73,421	37,834	35,587	68,192	35,098	33,094	-7.1
10~14세	83,137	42,897	40,240	83,690	43,057	40,633	82,457	42,455	40,002	-1.5
15~19세	91,826	47,706	44,120	86,438	45,004	41,434	85,084	44,094	40,990	-1.6
20~24세	112,279	60,484	51,795	107,426	57,847	49,579	100,726	54,613	46,113	-6.2
25~29세	99,185	53,725	45,460	99,153	53,924	45,229	97,558	53,032	44,526	-1.6
30~34세	83,029	43,329	39,700	83,512	43,809	39,703	85,453	45,038	40,415	2.3
35~39세	105,983	54,136	51,847	98,669	50,351	48,318	91,052	46,480	44,572	-7.7
40~44세	121,619	62,300	59,319	120,748	61,705	59,043	119,284	61,028	58,256	-1.2
45~49세	146,658	76,030	70,628	138,927	71,760	67,167	134,291	68,861	65,430	-3.3
50~54세	151,542	78,938	72,604	154,042	80,079	73,963	154,420	80,705	73,715	0.2
55~59세	147,980	75,950	72,030	144,612	75,030	69,582	143,503	74,252	69,251	-0.8
60~64세	145,971	72,891	73,080	152,346	76,128	76,218	154,760	77,504	77,256	1.6
65~69세	109,858	53,421	56,437	116,047	56,721	59,326	122,379	60,367	62,012	5.5
70~74세	94,488	44,102	50,386	95,579	44,810	50,769	95,368	44,742	50,626	-0.2
75~79세	75,852	31,053	44,799	74,758	31,334	43,424	73,260	31,942	41,318	-2.0
80~84세	58,370	20,914	37,456	60,589	21,995	38,594	66,627	24,372	42,255	10.0
85세 이상	47,635	12,996	34,639	50,646	13,968	36,678	52,985	14,622	38,363	8.0
전체	1,804,104	896,874	907,230	1,786,855	888,994	897,861	1,769,607	880,592	889,015	-1.0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2023). 전라북도 기본통계 - 인구 - 연령 (5세 계급) 및 성별인구

❷ 외국인등록인구

· 한편, 2022년 12월 기준, 전라북도 외국인등록인구 현황은 34,941명으로 2017년 대비 약 4.44%(6,353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당해 기간(2017년 - 2022년) 도내의 외국인등록인구는 대체적으로 전주시(2,611명)에 밀집한 것으로 보이며, 군산시(1,537명), 완주군(1,082명) 및 정읍시(470명) 등 일부 지역에 분포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최근 5년 간 외국인등록인구 증감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안군(9.06%)로 나타났으며, 완주군(8.63%), 전주시(7.30%), 군산시(5.84%) 등의 지역도 외국인등록인구의 거주가 많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임실군(-72명), 익산시(-49명), 남원시(-14명)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도내 시·군에서는 주민등록인구의 감소세와 맞물려 외국인등록인구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임실군의 외국인등록인구 증감률(-3.49%)의 폭이 가장 큰 것으로 관측됨

· 주민등록인구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등록인구의 감소는 결국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에 심각한 위협이며, 결과적으로 지역소멸의 위기감을 크게 고조하고 있는 부정적 현상임

【 표 12 】 전라북도 시·군별 외국인 등록인구 변화 추이 (단위 : 명,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인구증감률
전라북도	28,588	31,347	33,074	31,288	30,331	34,941	4.44
전주시	7,153	7,961	8,704	8,745	8,901	9,764	7.30
군산시	5,266	5,700	6,101	5,792	5,822	6,803	5.84
익산시	5,167	5,279	5,145	4,714	4,459	5,118	-0.19
정읍시	2,230	2,614	2,874	2,731	2,480	2,700	4.22
남원시	976	1,012	1,022	953	888	962	-0.29
김제시	1,952	1,998	2,029	1,876	1,742	2,173	2.26
완주군	2,507	3,419	3,661	3,226	3,009	3,589	8.63
진안군	340	349	373	336	322	408	4.00
무주군	250	238	233	216	192	292	3.36
장수군	381	381	377	351	324	373	-0.42
임실군	413	370	342	290	273	341	-3.49
순창군	361	353	395	354	313	360	-0.06
고창군	934	976	963	895	814	1,102	3.60
부안군	658	697	855	809	792	956	9.06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2022). 시·군·구별, 국적별 외국인 현황

3 체류인구

- 한편, 체류인구(통근, 통학, 관광 등 생활인구) 측면에서 전라북도의 현 주소는 여전히 높은 인구감소의 신호를 보이고 있으며, 무박 방문자 비율(75.49%)이 광역도 전체의 평균(76.95%) 대비 약 -1.49%p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광역자치단체(광역시 제외)를 기준으로 경기도(82.00%), 충청북도(80.86%), 충청남도(80.51%), 경상북도(79.92%) 등 모든 지역에서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을 보인 반면, 전라북도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적극적인 체류인구 확대 전략이 시급한 실정임

【 표 13 】 광역도 방문자 숙박일수: 2022년 기준 (단위 : 명, 일, %)

구분	무박	1박	2박	3박 이상	평균 숙박일수	숙박자 비율
전라북도	71,320,385 (75.49)	16,243,442 (17.19)	3,843,305 (4.07)	3,068,882 (3.25)	1.67	24.51
경기도	490,120,604 (81.24)	78,533,034 (13.02)	18,398,021 (3.05)	16,213,377 (2.69)	1.82	18.76
강원도	109,862,069 (71.59)	30,675,231 (19.99)	8,765,497 (5.71)	4,148,626 (2.70)	1.65	28.41
충청북도	86,453,755 (80.24)	14,997,269 (13.92)	3,382,649 (3.14)	2,905,868 (2.70)	1.63	19.76
충청남도	126,183,275 (79.95)	22,851,311 (14.48)	4,944,421 (3.13)	3,846,778 (2.44)	1.62	20.05
전라남도	98,626,153 (77.74)	19,771,271 (15.58)	4,882,293 (3.85)	3,591,945 (2.83)	1.67	22.26

주석: 이동통신 데이터 (KT) 기반 해당지역 외지인 방문자 및 외국인 방문자 숙박일수임
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2023). 지역별 분석 - 지역별 관광 현황 - 숙박/체류시간

- 그럼에도 전라북도 숙박 방문자는 평균(1박 15.96%, 2박 4.05% 등) 대비 근소한 수준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과의 높은 상호적 관계성을 갖는 생활인구(즉, 체류인구) 확대 전략을 적극적으로 탐색·추진할 필요가 있음

【 표 14 】광역도 방문자 숙박일수: 2022년 기준 (표 계속) (단위 : 명, 일, %)

구분	무박	1박	2박	3박 이상	평균 숙박일수	숙박자 비율
경상북도	140,583,730 (81.82)	26,002,315 (15.13)	612,543 (0.36)	4,619,834 (2.69)	1.66	18.18
경상남도	115,226,376 (76.76)	24,574,335 (16.37)	5,710,091 (3.80)	4,596,087 (3.06)	1.64	23.24
제주도	46,184,999 (67.71)	11,718,017 (17.18)	6,389,486 (9.37)	3,915,434 (5.74)	1.90	32.29

주석: 이동통신 데이터 (KT) 기반 해당지역 외지인 방문자 및 외국인 방문자 숙박일수임
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2023). 지역별 분석 - 지역별 관광 현황 - 숙박/체류시간

- 특히, 2022년 기준 전라북도 전체 시·군의 방문자 수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다양한 생활인구 확대 정책 및 제도(교육·생활 인프라 확대, 체류 콘텐츠 구축 등) 마련은 인구감소 문제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의 유효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표 15 】연도별 전라북도 방문자 수 추이 (단위 : 명,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방문자 수	89,750,835	93,018,877	83,816,826	83,176,444	94,470,258	96,406,014
증감률	-	3.6	-9.9	-0.8	13.6	2.0

자료: 한국관광데이터랩 - 지역별분석 - 지역별 현황 - 지역별 관광현황

- 그럼에도 여전히 도내 14개 시·군의 생활인구 체류 기반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관측되며(무박 방문자 평균 89.55%),1박 이상 숙박자 비율은 평균 10.45%로 분석됨에 따라 지역 내의 체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 인프라 마련이 시급해 보임

- 이러한 문제는 일부 시·군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며, 도내의 전 지역에서 무박 방문자 비율이 평균 80% 이상 상회하고 있어 실제로 다양한 관점의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건에 부합된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임

  - 전라북도 방문자 중 1박 이상 지역 내 체류하는 숙박 방문자는 부안(12.88%) 및 무주(11.15%)에서만 10% 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더욱이 2박 이상 방문자은 도내 전체 시·군에서 3% 이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 방문자 수 대비 지역 내 체류 비율이 매우 낮아 지역의 거주 또는 체류기반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며, 정주인구가 아닌 생활인구의 지역 외 유출도 심각해 보임

【 표 16 】 전라북도 시군별 방문자 숙박일수: 2022년 기준 (단위 : 명, 일, %)

구분	무박	1박	2박	3박 이상	평균 숙박일수	숙박자 비율
전주시 (완산구)	34,668,102 (89.92)	2,748,627 (7.13)	596,038 (1.55)	541,721 (1.41)	1.79	10.08
전주시 (덕진구)	33,004,939 (91.26)	2,124,710 (5.88)	533,715 (1.48)	501,037 (1.39)	1.86	8.74
군산시	21,492,242 (86.72)	2,332,710 (9.41)	505,131 (2.04)	452,744 (1.83)	1.72	13.28
익산시	20,018,934 (88.69)	1,656,074 (7.34)	458,444 (2.03)	438,734 (1.94)	1.77	11.31
정읍시	10,200,766 (89.34)	833,991 (7.30)	220,363 (1.93)	162,840 (1.43)	1.66	10.66
남원시	8,678,490 (86.87)	935,738 (9.37)	235,200 (2.35)	141,194 (1.41)	1.63	13.13
김제시	11,003,132 (92.63)	593,372 (5.00)	155,527 (1.31)	126,995 (1.07)	1.67	7.37
완주군	19,219,367 (93.12)	1,021,096 (4.95)	213,596 (1.03)	184,376 (0.89)	1.56	6.88
진안군	4,246,663 (90.07)	337,836 (7.17)	84,026 (1.78)	46,061 (0.98)	1.53	9.93
무주군	6,746,792 (85.51)	879,343 (11.15)	201,771 (2.56)	62,100 (0.79)	1.48	14.49
장수군	2,563,251 (88.37)	227,626 (7.58)	69,173 (2.38)	40,621 (1.40)	1.65	11.63
임실군	7,726,495 (95.47)	262,331 (3.24)	63,375 (0.78)	41,259 (0.51)	1.56	4.53
순창군	4,589,048 (92.01)	275,342 (5.52)	76,510 (1.53)	46,902 (0.94)	1.60	7.99
고창군	9,184,951 (90.31)	699,328 (6.88)	175,292 (1.72)	111,270 (1.09)	1.62	9.69
부안군	8,471,509 (82.94)	1,316,140 (12.88)	307,831 (3.01)	119,040 (1.17)	1.62	17.06

주석: 이동통신 데이터 (KT) 기반 해당지역 외지인 방문자 및 외국인 방문자 숙박일수임
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2023). 지역별 분석 - 지역별 관광 현황 - 숙박/체류시간

- 한편, 2022년 기준 전라북도 방문 외지인·외국인 관광객은 2020년 평균(20.01%) 대비 도내 전 지역에서 소폭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으며, 특히 임실군(26.61%), 무주군(26.37%), 전주시 덕진구(24.48%), 순창군(24.10%) 등지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임

-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간 인구 교류 및 관광활동이 침체기였던 2019년 대비 2022년 전라북도 외지인 관광객은 일부 지역(전주시 완산구, -3.14%, 정읍시, -1.59%)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곡선을 보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에 적합한 여건이라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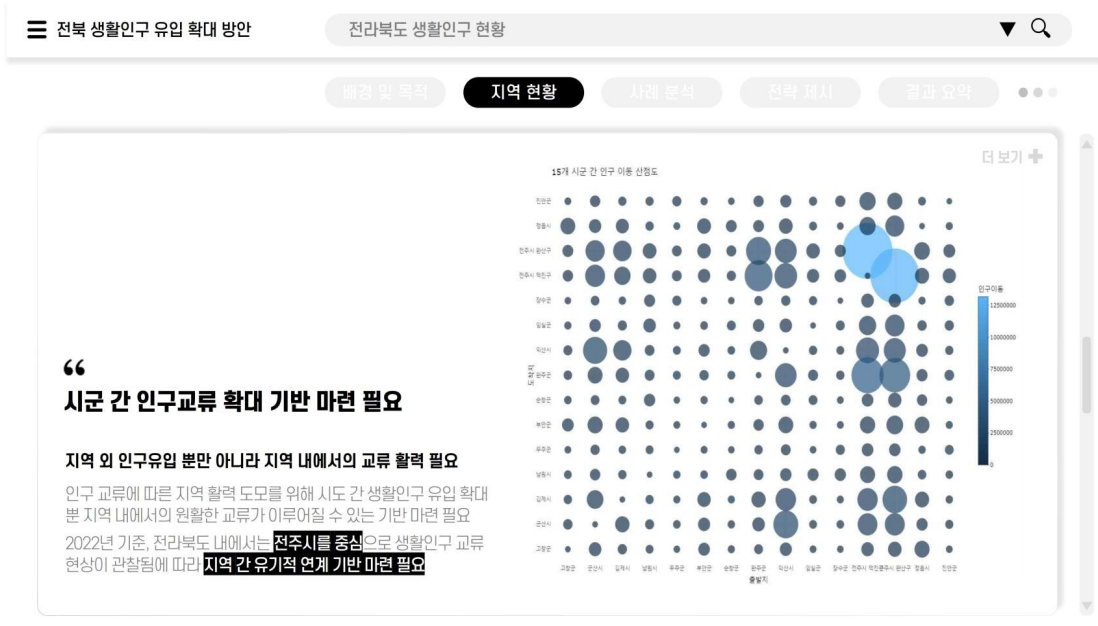
- 다만, 여전히 외국인 관광객은 도내 14개 모든 시·군에서 평균 -91.44% 수준에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 외부적 위협이 해소된 현재, 다양한 매력적인 콘텐츠 구축으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표 17 】 관광목적 외지인·외국인 방문자 수: 시·군 구분 (단위 : 명)

구분	2020		2021		2022	
	외지인 방문자	외국인 방문자	외지인 방문자	외국인 방문자	외지인 방문자	외국인 방문자
전주시 완산구	33,373772	3,935	35,449,068	4,165	38,539,382	14,843
전주시 덕진구	29,571,156	2,961	32,384,394	3,496	36,155,424	8,554
군산시	21,534,697	11,268	22,403,854	17,616	24,751,338	27,637
익산시	20,682,953	2,317	21,168,035	2,095	22,566,236	5,644
정읍시	10,135,432	698	10,483,697	1,288	11,415,145	2,717
남원시	8,528,045	614	9,066,844	425	9,988,842	1,716
김제시	10,590,049	685	11,594,272	751	11,879,816	2,144
완주군	16,291,496	1,670	18,135,372	1,704	20,633,988	4,396
진안군	4,201,730	155	4,480,966	132	4,713,912	634
무주군	6,353,797	334	6,618,734	300	7,888,664	1,344
장수군	2,646,563	107	2,749,824	185	2,899,578	1,048
임실군	6,412,108	214	7,329,430	269	8,092,476	986
순창군	4,040,564	144	4,421,498	253	4,987,230	571
고창군	8,748,848	456	9,529,978	473	10,168,834	2,005
부안군	8,830,538	987	9,431,628	1,901	10,210,242	3,809

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2023). 빅데이터 - 이동통신 - 지역별 방문자 수

· 2022년 기준 전라북도 시·군 간 방문자 이동행태에 대한 분석결과, 전주시 완산구와 덕진구 간 상호 교류의 빈도가 가장 높은 반면 그 외 대부분의 시·군의 경우 인접 지역에서 유입된 방문자 수가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표 18】** 참조)



【그림 12】 전라북도 내 시·군 간 방문자 이동행태 요약

- 즉, 전라북도 내 대표 도시인 전주시에 거주(또는 체류)하는 인구의 교류가 활발하며, 그 외 지역은 인접 지역의 인구가 개인의 필요(통근, 통학, 기타 사유 등) 등에 의한 교류만 활성화되고 있어 도외 지역에서의 생활인구 유입뿐 아니라 도내의 인구교류에 대한 적극적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표 18 】 전라북도 지역민 시·군 방문자 거주지: 2022년 기준 (단위 : 명)

구분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 (덕진구)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주시 (완산구)	·	12,508,188	1,375,819	1,793,092	1,191,710	640,686	2,428,419	4,233,055	605,308	226,840	282,139	1,295,654	385,701	417,530	822,574
전주시 (덕진구)	13,179,060	·	1,345,813	2,034,079	750,449	589,061	1,454,815	4,732,532	759,948	236,399	320,726	911,234	237,161	315,100	617,971
군산시	1,240,796	1,363,261	·	2,300,012	294,214	146,771	814,184	572,108	142,192	86,863	63,304	220,431	69,742	315,428	601,844
익산시	1,746,456	1,957,303	2,487,224	·	443,054	218,898	1,470,135	1,702,342	206,105	113,828	88,726	304,232	105,380	269,224	572,071
정읍시	680,011	481,456	203,866	237,471	·	59,712	480,633	193,354	31,728	19,426	15,195	95,363	144,577	595,265	570,662
남원시	439,126	420,743	79,190	108,207	49,227	·	42,997	116,708	42,138	33,495	190,501	314,525	209,438	33,160	38,919
김제시	1,102,427	774,701	505,736	1,067,864	363,406	48,277	·	401,738	44,126	22,292	20,915	81,514	33,022	91,290	414,422
완주군	2,526,802	3,330,353	318,348	877,266	176,226	110,743	495,465	·	138,608	51,120	53,302	217,136	57,803	71,666	146,439
진안군	259,544	377,833	41,485	44,095	14,290	24,210	20,572	105,451	·	67,164	93,921	87,826	7,540	7,586	13,685
무주군	109,156	113,030	27,038	33,354	10,105	19,826	13,816	36,469	85,628	·	77,841	12,749	4,382	5,823	10,428
장수군	189,436	239,280	26,052	31,369	8,028	211,481	12,829	48,249	134,908	82,146	·	72,571	9,095	5,492	10,241
임실군	414,248	284,916	32,701	48,090	35,941	196,606	30,640	123,570	42,889	7,016	42,987	·	68,085	8,936	18,177
순창군	118,272	83,290	21,715	26,727	178,029	154,422	14,337	33,300	6,360	5,233	5,596	70,741	·	16,069	17,034
고창군	179,916	147,210	94,424	77,223	565,055	29,971	50,278	55,000	8,877	7,487	5,274	16,241	24,228	·	242,101
부안군	410,141	295,822	272,231	206,872	446,795	25,790	395,537	90,507	16,727	11,571	6,413	28,304	18,973	234,552	·

주석: 전라북도 내 시·군의 현지인(거주자, 근무자, 통학자 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해당 시·군의 비거주 행정동을 방문한 방문자 수치임
(이동통신 (KT) 가입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방문자 수를 추정함)
이동통신 데이터 기반 해당지역 방문자의 거주지가 명확히 파악되는 방문자 수만 집계되었으므로 총 방문자 수는 상이할 수 있음
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2023). 빅데이터 - 이동통신 - 지역별 방문자수

【 표 19 】 전라북도 지역민 시·군 방문자 거주지: 2022년 기준 (단위 : 명)

구분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 (덕진구)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주시 (완산구)	·	12,508,188	1,375,819	1,793,092	1,191,710	640,686	2,428,419	4,233,055	605,308	226,840	282,139	1,295,654	385,701	417,530	822,574
전주시 (덕진구)	13,179,060	·	1,345,813	2,034,079	750,449	589,061	1,454,815	4,732,532	759,948	236,399	320,726	911,234	237,161	315,100	617,971
군산시	1,240,796	1,363,261	·	2,300,012	294,214	146,771	814,184	572,108	142,192	86,863	63,304	220,431	69,742	315,428	601,844
익산시	1,746,456	1,957,303	2,487,224	·	443,054	218,898	1,470,135	1,702,342	206,105	113,828	88,726	304,232	105,380	269,224	572,071
정읍시	680,011	481,456	203,866	237,471	·	59,712	480,633	193,354	31,728	19,426	15,195	95,363	144,577	595,265	570,662
남원시	439,126	420,743	79,190	108,207	49,227	·	42,997	116,708	42,138	33,495	190,501	314,525	209,438	33,160	38,919
김제시	1,102,427	774,701	505,736	1,067,864	363,406	48,277	·	401,738	44,126	22,292	20,915	81,514	33,022	91,290	414,422
완주군	2,526,802	3,330,353	318,348	877,266	176,226	110,743	495,465	·	138,608	51,120	53,302	217,136	57,803	71,666	146,439
진안군	259,544	377,833	41,485	44,095	14,290	24,210	20,572	105,451	·	67,164	93,921	87,826	7,540	7,586	13,685
무주군	109,156	113,030	27,038	33,354	10,105	19,826	13,816	36,469	85,628	·	77,841	12,749	4,382	5,823	10,428
장수군	189,436	239,280	26,052	31,369	8,028	211,481	12,829	48,249	134,908	82,146	·	72,571	9,095	5,492	10,241
임실군	414,248	284,916	32,701	48,090	35,941	196,606	30,640	123,570	42,889	7,016	42,987	·	68,085	8,936	18,177
순창군	118,272	83,290	21,715	26,727	178,029	154,422	14,337	33,300	6,360	5,233	5,596	70,741	·	16,069	17,034
고창군	179,916	147,210	94,424	77,223	565,055	29,971	50,278	55,000	8,877	7,487	5,274	16,241	24,228	·	242,101
부안군	410,141	295,822	272,231	206,872	446,795	25,790	395,537	90,507	16,727	11,571	6,413	28,304	18,973	234,55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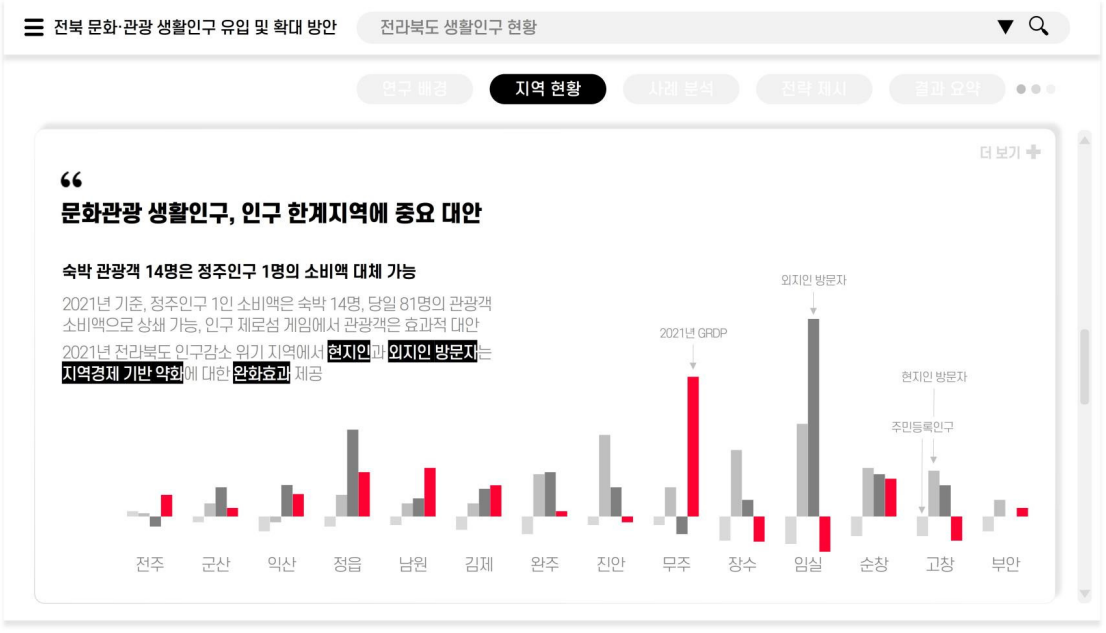
주석: 전라북도 내 시·군의 현지인(거주자, 근무자, 통학자 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해당 시·군의 비거주 행정동을 방문한 방문자 수치임
(이동통신 (KT) 가입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방문자 수를 추정함)
이동통신 데이터 기반 해당지역 방문자의 거주지가 명확히 파악되는 방문자 수만 집계되었으므로 총 방문자 수는 상이할 수 있음
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2023). 빅데이터 - 이동통신 - 지역별 방문자수

· 더불어 동년 기준, 전라북도를 방문한 외지인 수는 총 87,249,678명으로 2021년 대비 약 9.49% 증가한 것(7,559,587명)으로 나타남(**【표 19】** 참조)

  - 외지인 방문자 거주지 분석 결과, 경기(21.42%), 서울(15.13%), 광주(11.94%), 충남(10.20%) 및 대전(7.44%)순으로 전라북도를 많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이 거주하는 수도권 지역에서의 방문 빈도가 가장 높고 광주와 충남 등 접경 지역의 인구교류가 활발한 것으로 분석됨

  - 다만, 경남(4.58%) 등 인접 지역이나 접근성이 다소 불편한 곳과 강원, 제주와 같은 원거리 지역에서의 방문 빈도는 다소 낮아 전라북도를 접하고 있는 지역의 인구유입 독려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체류 기반 활성화를 통해 원거리 지역에서의 유입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13】 문화·관광형 생활인구 확대 중요성

· 한편,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역소멸 위기 지역에서의 문화·관광형 생활인구 확대는 실제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재구성하고 활력을 제고하는데 효과적 도구가 될 수 있음

  - 실제로 정부(문화체육관광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정주인구 1인의 소비액은 평균 숙박 관광객 14명, 당일 관광객 81명 수준에서 충분히 대체 가능하며, 이는 정주인구 확대 전략이 궁극적인 지역 간 제로섬 게임이란 측면에서 문화·관광형 생활인구 확대를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이 관점에서 전라북도 내 정주인구 1명의 지역소비 감소를 대체하는데 필요한 관광객의 수는 2022년 기준, 군산시(숙박 31명, 당일 89명)가 가장 많았고, 전주시 완산구(숙박, 28명, 당일 79명), 덕진구(숙박 26명, 당일 75명), 익산시(숙박 23명, 당일 35명) 및 정읍시(숙박 21명, 당일 6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20】** 참조)

· 일부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소 간 상이한 수준 차이는 존재하나, 정주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내 경제 기반 약화의 문제는 관광객의 적극적 유치 및 체류시간 확대를 통해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전라북도는 지역에 특화된 콘텐츠의 확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표 20 】 주민 1인당 지역 내 소비 대체 필요 관광객 수: 시·군 구분 (단위 :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숙박+당일		숙박+당일		숙박+당일		숙박+당일		숙박+당일		숙박	당일
전주시 완산구	21	69	36	59	29	61	31	85	28	79	66	136
전주시 덕진구	18	60	22	50	25	53	28	77	26	75	63	129
군산시	25	80	28	61	29	62	29	80	31	89	75	154
익산시	20	65	25	56	26	54	24	65	23	65	54	111
정읍시	15	50	19	43	21	44	20	56	21	60	51	104
남원시	14	45	17	38	18	37	18	49	20	58	49	100
김제시	12	40	15	35	17	35	17	45	17	47	39	81
완주군	9	30	11	25	13	27	13	35	13	38	32	65
진안군	7	23	9	20	10	21	11	30	13	36	30	62
무주군	9	29	11	24	11	24	11	30	12	34	29	60
장수군	8	25	10	22	11	22	11	29	12	35	30	62
임실군	6	18	8	17	8	17	9	24	10	28	24	49
순창군	8	26	10	22	11	23	11	31	13	38	31	65
고창군	11	36	14	30	14	30	14	38	16	46	38	79
부안군	10	32	13	28	14	30	14	39	16	46	38	79

주석: 지역주민 1명 감소로 인한 지역 내 소비 감소를 대체하는 데 필요한 관광객 수를 나타냄
(숙박+당일 관광객 수는 합산 인원 수이며, 숙박, 당일 관광객 수는 각각의 인원 수임)
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2023). 지역별 분석 - 인구감소지역 현황 - 지역별 관광대체 효과

III

지역소멸 위기 대응
생활인구 확대 사례

1. 국가 및 지방정부 정책사례
2. 유형별 국내·외 사업사례

1. 국가 및 지방정부 정책사례

1.1 국가적 차원의 정책사례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으로 지역소멸 위기가 크게 고조되기 시작하자 2021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연평균 조출생률, 고령화 비율, 인구증감률 및 인구밀도 등의 8개 국가통계 지표 기준으로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바 있음

-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효과적 대책을 모색하도록 독려하며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이 용이하게 함으로써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함

  - 본 법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 지역의 주거, 의료, 교육, 보육 및 문화 등 다분야의 특례 지원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지역 정주여건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근거를 제시함

- 나아가 행정안전부는 2022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투자계획과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을 연계하도록 지원하며, 궁극적인 지역소멸 위기의 대응이 용이하도록 함

- 특히, 2022년 신규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의 주도로 인구 한계 상황에 따른 지역의 다양한 소멸위기 대응 사업이 용이하게 추진되도록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부터 제28조 항에 근거해 기금은 10년 간 연간 1조 원씩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를 추진하며, 지역소멸 위기 지역은 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을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표 21 】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편성 계획 (단위: 억 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도별 총액	7,5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97,5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2).

-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관련법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 25%, 기초지방자치단체 75% 수준으로 배분하며, 우선 2021년 지정된 89곳의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함

- 관련법에 따라 광역지원계정 재원 90%는 인구감소지역의 시·도가 우선 사용·집행하고 잔여 10% 수준의 기금은 지역의 재정 및 인구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됨

- 기초지원계정의 경우, 95%는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되며, 잔여 5% 수준의 기금은 인구감소의 위험도가 큰 18곳의 관심지역에 지원됨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현재 문화·관광 분야에서 2022년 226건, 2023년 232건이 집행되며, 대표적으로 캠핑장·산책로 개발, 여행·예술 공연 프로그램 사업, 워케이션 사업 추진이 계획되어 있어 인구감소 위기 지역은 관광의 확산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함

· 한편, 동 법은 그 동안 시행된 정주인구 개념의 정책에 내재된 실효적 문제로 인구 이동성 관점이 포함된 '생활인구' 개념을 인구감소 위기 국가적 대응책의 주요 개념으로 도입하고 2023년 시범 사업*을 통해 생활인구의 정의와 산정 지표를 규범화하고자 함

*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강원 철원군, 경북 영천시, 경남 거창군, 전북 고창군, 전남 영암군 등의 7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관광부문(2개 시·군), 통근(2개 시·군), 통학(1개 시·군) 및 기타(2개 시·군) 지역으로 구분해 생활인구를 추정

· 특히, 관광 부문에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곳에서는 생활인구의 연령·성별 분석을 통해 주말 당일 관광객의 체류시간 확대 방안을 모색하며, 이러한 생활인구 산정은 궁극적으로 인구감소 지역에 맞춤화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 충북 단양군은 정주인구 대비 연간 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매력적 목적지이며, 충남 보령시의 경우 대천해수욕장, 보령머드축제 등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인구 한계 지역에서 관광의 효과를 추정하는데 유효할 것으로 전망됨

· 궁극적으로 현재 정부(행정안전부) 수집의 생활인구 데이터는 관련법과 연계되어 지역소멸의 위기 고조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의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함

❶ 「생활인구」 시범 산정 [2024.01] [9]

·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에 의거해 고시된 우리나라 89곳의 인구감소지역 중 7개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생활인구'의 규범적 산정 지표를 추정함

· 7개 시범지역 중 생활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관광유형의 충남 보령시(약 52.8만 명)였으며, 반면 가장 적은 곳은 통학유형의 경남 거창군(약 18.4만 명)으로 나타남

【 표 22 】 행정안전부 생활인구 시범 산정 대상지 생활인구 규모 추정: 2023년 6월 기준 (단위: 천 명)

분류 유형	시범지역	생활인구(A+B)	등록인구(A)	체류인구(B)	비율(B/A)
관광	충북 단양군	269.7	28.0	241.7	8.6
	충남 보령시	527.8	99.6	428.2	4.3
기타(군인)	강원 철원군	219.5	42.7	176.8	4.1
기타(외국인)	전북 고창군	242.2	53.4	188.8	3.5
통근	전남 영암군	218.7	60.0	158.7	2.6
	경북 영천시	347.5	103.6	243.9	2.4
통학	경남 거창군	184.3	61.0	123.3	2.0

자료: 통계청·행정안전부(2024). 「민관 데이터 가명결합 기반 시범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

[9] 통계청·행정안전부(2024). 「생활인구 산정 결과」. 통계청 빅데이터통계과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 관광유형 지역이 타 지역 대비 생활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단양군, 약 8.6배, 보령시 약 4.3배), 통근 및 통학유형은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중이 작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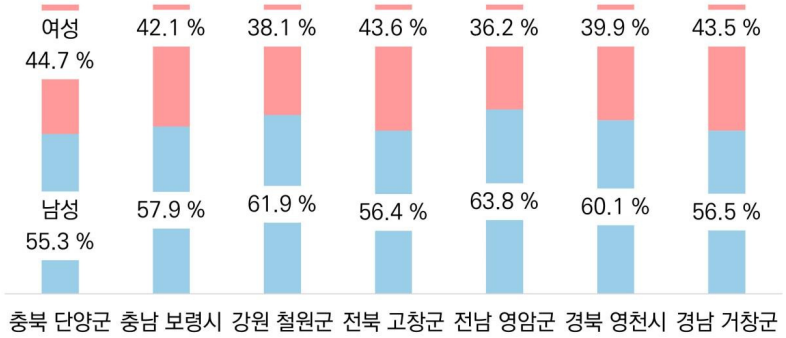
* 등록인구는 주민등록인구 및 외국인등록인구(재외동포거소신고자 포함)를 의미하며, 체류인구란 특정 지역에 1일 이상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월 1회 이상인 방문자



자료: 통계청·행정안전부(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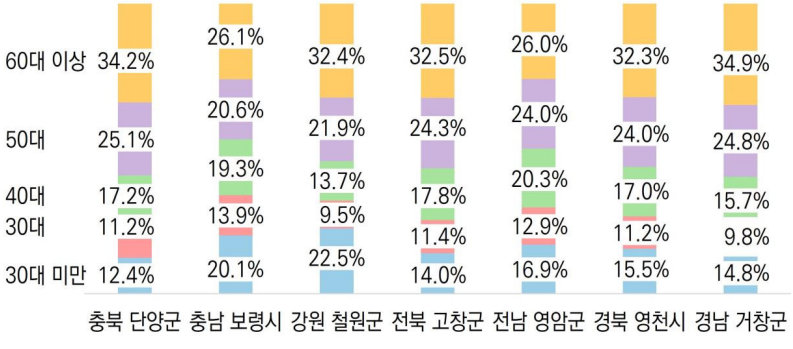
【그림 14】 생활인구 산정 시범지역(7개)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 비교: 전체

· 또한, 모든 지역에서 여성 대비 남성의 생활인구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근(영암군, 약 63.8%) 및 군인유형(철원군, 약 61.9%) 대상지에서 그 비중이 특히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자료: 통계청·행정안전부(2024)

【그림 15】 생활인구 산정 시범지역(7개)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 비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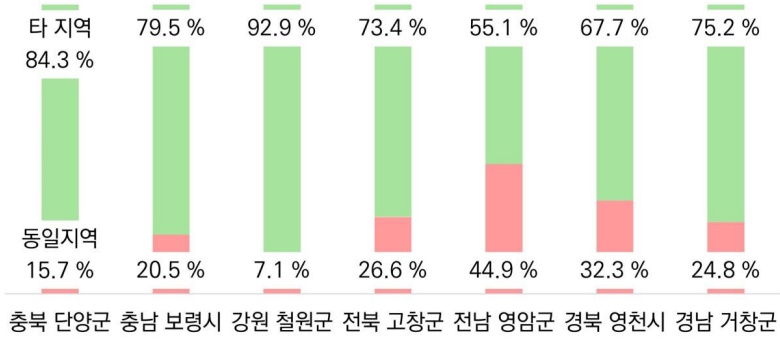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행정안전부(2024)

【그림 16】 생활인구 산정 시범지역(7개)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 비교: 연령

- 연령별 생활인구는 군인(철원군, 약 22.5%) 및 관광유형(보령시, 약 20.1%) 지역에서 30대 미만 비중이 다른 유형의 대상지보다 높은 수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체류인구 중 타 지역 등록인구가 방문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군인유형의 강원 철원군(약 92.9%)이며, 이는 지역적인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흥미롭게도 통근유형 지역에서(영암군, 약 44.9%, 영천시 32.3%) 동일 지역 등록인구 방문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근을 위한 지역 간 인구교류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자료: 통계청·행정안전부(2024)

【그림 17】 생활인구 산정 시범지역(7개)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 비교: 등록지역

- 한편, 전라북도 고창군의 경우, 도내 등록인구의 체류 비중이 가장 높아 인접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이 다소 미비하나 도내 시·군 간 인구교류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표 23 】 생활인구 산정 시범지역7개 체류인구 주요 등록지역 순위 및 비율 비교 (상위 5곳 기준)

시범지역	체류인구 등록지역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곳 누계
충북 단양군	경기	28.0%	충북	15.7%	서울	13.9%	경북	9.2%	강원	5.8%	72.5%
충남 보령시	경기	24.4%	충남	20.5%	서울	11.4%	대전	10.7%	전북	8.2%	75.2%
강원 철원군	경기	44.5%	서울	25.0%	강원	7.1%	인천	6.7%	경북	2.3%	85.7%
전북 고창군	전북	26.6%	광주	20.5%	경기	14.0%	전남	11.2%	서울	9.2%	81.4%
전남 영암군	전남	44.9%	광주	22.5%	경기	8.8%	서울	6.1%	경남	3.4%	85.6%
경북 영천시	대구	40.2%	경북	32.3%	울산	5.3%	경기	4.9%	부산	4.8%	87.5%
경남 거창군	대구	25.7%	경남	24.8%	부산	10.4%	경북	9.3%	경기	7.8%	78.1%

자료: 통계청·행정안전부2024.

- 특히, 관광유형 체류자는(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체류인구), 주말 체류비중(단양군, 52.2%, 보령시 52.6%) 및 숙박형 체류인구 비중(단양군, 38.4%, 보령시, 46.9%)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타 유형 지역 대비 관광유형의 경우 짧은 평균 체류일수(단양군, 2.4일, 보령시, 2.5일) 및 숙박일수(단양군, 2.1일, 보령시, 2.3일)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2023.03.)」을 토대로 지역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맞춤형 정책으로써 관광·문화·예술 분야 공모 우대 정책을 시행함

  - 2023년 기 추진 우대 공모사업 분야에서 관광부문은 현재 '지역균형관광 활성화 사업' 및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4년 이후 신규 관련 사업 한정 인센티브 지급 제도를 지속 운영할 예정임

【 표 24 】 문화체육관광부 인구감소지역 우대 공모사업 현황: 2023년 기준

사업명	사업내용	우대사항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	지자체의 문화 활력 제고를 위해 문화 시설, 프로그램, 인력조성 지원('23년 4,600백만원)	인구감소지역 한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및 생활 공동체 활성화, 생활문화센터 운영 등 지원('23년 5,960백만원)	선정 시 우대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	공공투자로 지방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특색있는 체류 관광에 적합한 숙박시설 조성('23년 6,100백만원)	1차 평가 시 가점 2차 평가 시 우대
지역균형관광 활성화	지역 방문객에 대해 관광주민증 발급을 통한 여행상품, 특산품 등 할인·체험 혜택 제공('23년 5개소)	인구감소지역 한정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3).

- 이와 더불어 인구감소 지역 내 미술관·박물관 운영을 지원하고자 2개의 미술관·박물관이 공동 학예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해당 지역으로 관광·문화·체육시설 설치와 이전을 지원하는 정책 특례를 지원하고자 함

- 특히, 문화·관광형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독창적인 소재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지원하며, '살아보기'와 '워케이션' 등 장기체류 방문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의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예를 들어,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해 워케이션('23년 13억), 살아보기형 생활관광 사업('23년 15억), 야간관광('23년 37억, 연 5개소)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인구감소 지역의 균형적인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상품화, 관광주민증 발급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음

  - 중소기업 등 워케이션 제도 운영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체험사업을 지원('23년 13억 원)하거나 워케이션 시설 도입 희망 컨설팅, 워케이션 시설·프로그램 홍보, 기업 및 지자체 업무협약 체결 매칭 등 지방자치단체 대상의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임

  - 또한, 생활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을 관광 프로그램화하여 2박 이상 장기 체류를 통한 소비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도모함

  - 즉, 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체험과 지역 정착지원 사업을 연계·추진해 관광객을 궁극적인 생활인구와 정주인구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❶ 워케이션 시범 사업

- '워케이션 시범 사업'은 지역에 특화된 가치를 적극 활용한 새로운 워케이션 콘텐츠 발굴을 독려하며, 기 추진 지역의 자체 워케이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산업의 확장을 도모함

  - 2023년 시행된 시범사업은 전국 16개 지역을 대상으로 20개 시범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2024년 추진 예정인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의 규모 확대를 도모하기 위함임

【 표 25 】 문화체육관광부 워케이션 시범사업 지역 및 프로그램 유형 요약: 2023년 기준

지역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소개
부산	영도 워케이션 프로그램	· (특징) 부산항구가 한눈에 보이는 뷰를 가진 센터 · (체험) 자전거 가이드 투어, 태종대 은하수 유람선, 스토리투어 버스
	송도 워케이션 프로그램	· (특징) 공유오피스와 숙소가 함께 위치하여 편리 · (자원) 송도해수욕장, 구름다리, 송도케이블카 등
인천	중구 무의도/포내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 프로그램	· (특징) 서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오션뷰 오피스, 쾌적한 근무환경 제공 · (체험) 갯벌체험, 조개공예체험, 트랙터 타기 등
강원	양양 웨이브 웍스 워케이션 & 양양 데스커 워케이션 프로그램	· (특징) 양양 해변가 도보 5분 거리 · (체험) 서핑, 요가, 공예 클래스, 카페 제휴 할인, 맥주시음회 · (자원) 낙산사, 인구해변, 죽도해변
	정선 파크로쉬 워케이션 프로그램	· (특징) 웰니스·힐링 프로그램 제공 · (자원) 정선 5일장, 정선레일바이크, 소금강계곡
	동해 망상오토캠핑장 워케이션 프로그램	· (특징) 망상해수욕장 바로 앞 오토캠핑리조트에서 즐기는 휴양형 워케이션 오토캠핑장 내 오션뷰 오피스 위치하여 출퇴근 용이
경남	남해 상주 팜프라촌 워케이션 프로그램	· (특징) 남해 바다 뷰가 아름다운 두모마을에 위치 · (체험) 작은 집 한 채 제공을 통한 전원생활 체험 가능
	남해 창선 워케이션 프로그램	· (특징) 적량해비치마을에 위치 · (체험) 펜션 내 수영장, 요트체험 등 다양한 지역 체험프로그램 운영
	남해 지족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 프로그램	· (특징) 선상낚시도, 죽방렴 체험 등 남해만의 특별한 프로그램 제공 · (자원) 독일마을, 다랭이마을, 보리암
경북	포항 창바우 어촌 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	· (특징) 통발 당기기, 어묵 만들기, 맨손 물고기 잡기 등 체험 프로그램 제공 · (자원) 호미곶, 구룡포 해수욕장
	경주 춘추관 워케이션 프로그램	· (특징) 특색 있는 경주 한옥에서 한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워케이션 · (자원) 무열왕릉, 경주역사지구, 첨성대
전남	곡성 워크빌리지 러스틱 타운 워케이션	· (특징) 섬진강 근처 한적한 자연속 곡성심청마을 내 위치 한옥에서 진정한 힐링을 느끼는 워케이션 · (자원) 섬진강변 유원지, 곡성섬진강천문대
	완도 북고 어촌체험 휴양마을 워케이션	· (특징) 땅끝마을의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공유오피스 · (자원) 애송갯돌해변, 보길도 한옥역사유적지, 아차산 가리비전망대
전북	군산 라마다 호텔 워케이션 프로그램	· (특징) 산책로를 즐길 수 있는 은파 호수공원 앞에 위치 · (자원) 선유도 해수욕장, 월명동거리, 근대역사박물관, 일본가옥
	부안 소노벨 변산 워케이션 프로그램	· (특징) 격포해수욕장 바로 앞에 위치 · (자원) 소노벨 내 워터파크 등 많은 레저시설
충남	예산 리솜 워케이션 프로그램	· (특징) 온천 이용이 가능한 스플라스 리솜 리조트 이용 · (자원) 가야산, 윤봉길생가, 내포 보부상촌
	태안 베이브리즈 워케이션 프로그램	· (특징) 만리포 해수욕장 앞 오션뷰 카페 오피스 · (자원) 천리포수목원, 만리포전망타워

주석: 시범사업 대상지 및 프로그램 전체가 아니며, 일부 협의 중인 사업은 제외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3).

❷ 살아보기 생활관광 13선 사업

· '살아보기 생활관광 13선'은 최소 3일 이상 지역에 체류하며 현지인처럼 지역 고유의 역사와

먹거리, 문화 등 생활양식을 체험하는 '체류형 여행상품'으로 체류형 관광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 표 26 】 문화체육관광부 살아보기 생활관광 프로그램 운영 현황 요약: 2023년 기준

지역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소개
속초	속초오실 (2박 3일 체유형)	· (주제) 설악산 아래 상도문 돌담마을에서 숨 쉬고, 회복하는 여행 · (체험) 천연염색체험, 막걸리만들기 맥주주조, 짚풀 공예, 돌담떡 만들기 체험 등 매곡형(패키지) 및 돌담형(자유일정 포함) 구분 운영 터미널-돌담마을(숙소)-설악산을 잇는 이음택시 운영 · (주변 관광자원) 설악산, 상도문돌담마을
통영	슬기로운 전복따기 (2박3일, 3박4일)	· (주제) 만지도 섬에서 머물며, 양식 전복을 채집하고, 전복 요리도 맛보는 여행 · (체험) 전복 채집체험(채집한 전복 화로구이 및 전복한상) 조식(어촌밥상) 제공 · (주변 관광자원) 연대도, 통영 만지도
	슬기로운 우도 어부생활 (2박3일, 3박4일)	· (주제) 섬마을 우도에서 즐기는 힐링 체류여행 · (체험) 선상 낚시 체험, 불멍타임(낚시 한 생선 활용 식사) 조식(어촌밥상) 제공 · (주변 관광자원) 통영 욕지도
	슬기로운 욕지도 어부생활 (2박3일, 3박4일)	· (주제) 욕지도에서 즐기는 힐링 체류여행 · (체험) 욕지일주 관광, 선상 낚시 체험, 욕지주민밴드공연 조식(어촌밥상) 제공 · (주변 관광자원) 연대도, 통영 만지도
	슬기로운 욕지도 채집생활 (2박3일, 3박4일)	· (주제) 욕지도에서 즐기는 힐링 체류여행 · (체험) 욕지일주 관광, 해산물 채집생활 체험, 채집 해물 활용 식사체험 등 조식(어촌밥상) 제공 · (주변 관광자원) 통영 욕지도
함양	여행을 일상처럼, 함양 온데이 (3박 4일)	· (주제) 풍류와 선비문화가 보존된 함양 개평한옥마을에서 살아보기 · (체험) 개평 노참판댁 고추장 만들기, 산삼테마프로그램,솔송주 칵테일 체험 및 다식 체험, 개평자갈한과와 강정 만들기 등 해설사와 함께하는 개평 및 남계 스토리투어 등 · (주변 관광자원) 개평한옥마을, 남계서원, 선비문화탐방로
사천	별주부전의 고향 비토썸 (2박 3일)	· (주제) 별주부전의 고향 "비토썸(섬)" 지역을 체험·생활하는 프로그램 · (체험) 바다낚시, 토끼와 거북이 여행(월등도) 체험, 담금주 키트 만들기 및 굴껍데기 그림그리기, 계절별 농촌 체험 등 · (주변 관광자원) 월등도, 비토해양낚시공원
남해	속속들이 남해여행 (2박 3일)	· (주제) 남행마을 살아보기, 오시다 남해군 · (체험) 남해 로컬 원데이클래스 체험, 웰컴키트 및 소비쿠폰 제공 등 · (주변 관광자원) 남해읍 일원, 바래길, 미국마을 등
충주	충주로 oh개! (2박 3일)	· (주제) 반려동물과 함께 충주 살아보기 (비반려인도 가능) · (체험) 보자기 공예, 사진관/의상실/자전거 체험, 에코백만들기 등 · (주변 관광자원) 충주 구도심, 주덕읍, 중앙탑사적공원
청주	청주 문의와유 (2박 3일)	· (주제) 청주 문의마을에서 살아보기 · (체험) 부들공예, 구절초 염색, 테라리움 만들기 등), 문의마을 이야기 투어 등 · (주변 관광자원) 문의문화재단지, 수변둘레길, 양성산, 청남대
영동	영동군 풍류스테이 (2박 3일)	· (주제) 영동 국악과 와인이 함께하는 풍류스테이 · (체험) 와이너리체험, 청년박연 월류봉 또는 강선대(공연), 국악기 제작체험 등 · (주변 관광자원) 와이너리, 영동 일라이트 휴양빌리지, 국악기제작촌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3).

【 표 27 】 문화체육관광부 살아보기 생활관광 프로그램 운영 현황 요약: 2023년 기준 (표 계속)

지역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소개
예산	대흥 천년 마을에서의 더 느린여행 (2박 3일)	· (주제) 대흥 슬로시티 천년마을에서 '더 느린여행' · (체험) 짚공예, 전통주 만들기 체험 필수 및 선택 체험프로그램 구분·운영 · (주변 관광자원) 대흥 교촌리(의좋은형제마을) 일원, 전통시장 등
해남	땅끝마실 (최대 6박 7일)	· (주제) 해남人처럼 살아보고 체험하기 · (체험) 텃밭 체험, 트레킹, 다도체험 연잎밥 만들기, 과일청 만들기, 바나나농장체험, 서예·서각체험 등 · (주변 땅끝관광지, 공룡박물관, 우수영관광지, 포레스트수목원, 두륜산권역
나주	나주읍성 살아보기 (3박 4일)	· (주제) 나주읍성 살아보기 · (체험) 나주밥상체험, 황포돛배체험, 골목길 인력거투어, 나주배 양갱만들기 등 · (주변 관광자원) 나주읍성 일원
전주	자유여행 반 패키지 반 '반반 전주' (2박 3일)	· (주제) 전주한옥마을 살아보기 · (체험) 모주만들기, 관찰사 밥상과 전통주 시음, 가야금 프로그램 등 지정형(패키지) 및 자유형(자유일정 포함) 구분·운영 · (주변 관광자원) 전주한옥마을 및 구도심 일원
군산	백투더모던 (2박 3일,3박 4일)	· (주제) 시간 속에서 근대를 여행하기 〈백투더모던〉 · (체험) 해설사 투어(영화촬영지 또는 시간여행마을 문화·역사투어) 군산 푸드트럭 야시장 체험 · (주변 관광자원) 영화의 거리, 말랭이 마을, 신흥동 일본식 가옥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3).

3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

·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관심 형성과 방문을 유도하는 관광사업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은 2022년 시범사업* 후 2023년 11개 지역에서 확대 추진 중임

【 표 28 】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지역 및 혜택 현황 요약: 2023년 기준

지역	프로그램 소개
강원 평창군	· 발왕산 관광케이블카 이용료 30% 할인 등
충북 옥천군	· 전통문화체험관 숙박비 30% 할인 등
부산 영도구	· 영도구 소재 4개 호텔비 최대 20% 할인 등
인천 강화군	· 엘리야 리조트 주중 숙박비 10% 할인 등
강원 정선군	· 하이원 리조트 워터파크·스키렌탈·곤돌라 이용료 30~50% 할인 등
충북 단양군	· 다누리 아쿠아리움 이용료 주중 50% 할인 등
충남 태안군	· 청산수목원 이용료 10% 할인 등
전북 고창군	· 석정온천휴스파 이용료 25% 할인 등
전남 신안군	· 엘도라도 리조트 이용료 20~60% 할인 등
경북 고령군	· 대가야 생활촌 입장료 50% 할인 등
경남 거창군	· 관광택시 연간 1회 무료 혜택 등

자료: 한국관광공사(2023).

-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명예주민증의 개념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지역 내 관광지 체험, 숙박, 식음 등 체험과 여행 편의시설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임

- 2023년 신규 지정된 총 11곳(부산 영도구, 인천 강화군, 충북 단양군, 충남 태안군, 강원 정선군, 경북 고령군, 경남 거창군, 전북 고창군, 전남 신안군)에서 사업이 추진됨

  * 2022년 시범사업 결과, 충북 옥천군과 강원 평창군의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 수는 58,000여 명으로(두 지역 정주 인구의 65%에 해당) 발급자의 약 22%가 실제적 지역 방문 혜택 경험

4 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

· '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은 관광객 체류시간 증대·확대를 통해서 지역관광의 실제적 효과를 지역 내로 선순환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됨

  - 본 사업은 야간시간(오후 6시 - 오전 6시) 체험 가능한 관광콘텐츠 및 명소 개발로 지역 관광 소비를 적극 창출하고 식음료·교통·쇼핑·숙박 및 안내 등의 여건을 갖춘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임

  - 야간관광 특화도시는 콘텐츠, 경관 명소, 관광 여건 등을 포함해야 하며, 1 콘텐츠는 비상설(또는 상설)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평균 관광객 수 이상의 관광객 유인이 가능한 축제·행사 및 이벤트 등을 의미함

  - 2 경관 명소는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이 가능한 야간경관 조망 시설물, 조형물 및 기타 조성지역을 의미하고 3 여건은 야간경관 명소 및 콘텐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숙박, 교통, 식음료 등의 관광기반환경 및 시설을 의미함



자료: 한국관광공사(2023).

【그림 18】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 내용

·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표적 영향을 미치는 체류형 관광을 확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시범사업* 이후 2023년 국제명소형과 성장지원형으로 구분해 총 5곳을 지원함

  - 국제명소형(7억 원)은 세계적인 야간관광 매력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특별·광역·자치 및 특례시(제주도 제외) 또는 기타 조건에 부합되는 기초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함

- 성장지원형(3억 원)은 차별화된 야간관광 콘텐츠로 국내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모든 기초 시·군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됨

· 전라북도는 2023년 전주시가 성장지원형에 공모·선정*되어 야간관광 여건 개선을 위한 맞춤형 야간 쇼핑환경 조성, 이동편의 개선 및 야간관광 마케팅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 예정임

* 전주시는 2023년 공모 선정으로 총 4년 간 12억 원의 국비 지원 예정

5 지역관광추진조직(DMO, Destination Management Organization) 선정 사업

· 정부(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는 각 지역에 특화된 자원 기반 차별적 관광 아이템 발굴 기반 K-관광의 매력도 제고를 목적으로 2023년 지역관광추진조직 21개소를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산업계 간 협의체가 지역관광을 주도적으로 선도하도록 지원함

- 정부는 2023년 공모를 통해 신규 지역관광추진조직 15개소를 선정하였고 전라북도는 (재)완주문화재단(완주군), 협동조합이레(장수군) 등 2개 조직이 신규 지정됨*

* 조직은 연차별 차등된 국비를 지원 받고(1, 2년차 국비 1억 5천만 원, 3년 차 1억 원, 4년 차 7천만 원 수준) 권역별 공동·홍보마케팅, 협의체 운영 벤치마킹, 스토리텔링 활용 콘텐츠 기획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해 자립도 및 지역 기여도 제고

· 해당 조직은 궁극적으로 지역관광의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고 차별화된 콘텐츠 등을 발굴해 관광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실제 생활인구 유입의 마중물로써 관광자원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유효한 조직이 될 수 있음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심화된 고령화 문제, 어가인구 감소 등 어촌소멸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인구 유입을 독려하는 다각적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해양관광·레저 등 혁신산업의 육성을 통해 활력 넘치는 어촌 육성에 역량을 집중 중임

· 특히, 해양 레저·관광거점 구축 및 콘텐츠 투자를 바탕으로 어촌이 직면한 소멸의 위기를 적극 극복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2023년 약 500억 원 이상의 국고를 활용*하고자 함

* 해양레저거점(7개소, 273억 원), 해양치유센터 구축(131억 원), 부산·통영 마리나비즈센터(68억 원), 낚시산업 지원(34억 원) 등 해양관광·문화거점 인프라 구축 추진 중

· 구체적으로 정부(도시 기반시설 구축)와 민간(숙박·관광·쇼핑 등 인프라 조성) 간 협력을 바탕으로 볼거리(예술관광), 쉴거리(리조트), 놀거리(레저) 및 먹거리 등 융복합 해양 콘텐츠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주요 연안 대상으로 해양레저를 지원하는 대규모 마리나를 확충하고 도서 지역 바다역 구축(K-마리나루트)을 검토하며, 휴게소 기능의 계류시설 및 샤워장·수리소 등 편의·관광시설 체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나아가 정부(해양수산부)는 2024년 특색 있는 지역 해양자원의 관광 자원·산업화 사업으로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조성 및 민간협력형 어촌관광 콘텐츠 개발을 추진을 예고하고 어촌인구 감소에 적극적 대책으로 관광의 긍정적 면을 강조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을 관광·주거·재생에너지 및 융복합 산업지구로 재설계해 지역의 특화 발전을 유도하고자 하며, 특히 지역 내 문화 및 자원의 활용을 통해 농촌 재생을 도모할 목적에서 지역관광 콘텐츠 관련 상품개발 및 규제 개선을 예고함(2023년 12월)

  - 특히, 관계부처 협의(문화체육관광부 협조)에 기반 한 규제 개선사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해 소규모 그룹의 캠핑 체류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조성할 계획임

❶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

· 특히 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지역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귀촌·귀농 희망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촌생활과 일자리 체험 및 지역사회 경험을 제공해 정주인구로의 편입을 유도하는 이른바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최장 6개월 간 체류가 가능한 본 사업은 2021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전국 88개(104개 마을) 시·군에서 649가구 도시민이 지역생활을 경험하였고, 총 11%(73가구) 경험자의 실제 농촌 이주를 유도한 성과를 창출함

  - 2022년 전국 95개 시·군(119개 마을)에서 도시민 882가구가 체험한 때에는 경험자 약 14.2%(125가구)가 농촌 이주를 결정하며 유의미한 정주인구 창출의 성과를 보임

❷ 농촌유학 사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2).

【그림 19】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농촌유학센터 운영 현황

· 또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2010년부터 농촌유학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 전국 28개 농촌유학센터를 지원하는 성과를 보임

- 본 사업은 도시에 거주하는 초·중학교 학생들이 6개월 이상 농촌지역에 체류하며 학업 및 농촌생활을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농촌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실제로 정주 인구로의 편입을 유도하는 지역소멸 위기의 적극적 해결법이기도 함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자원 소재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새로운 지역 및 산업 가치 창출의 '지역 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구분	내용	기대 효과
지역가치	지역의 문화나 고유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융합	**지역을 콘텐츠화**하여 다양한 비대면 비즈니스모델창출 가능
로컬푸드	지역의 특산물, 미활용 작물 등 농수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 및 유통	스마트팜, 농수산 산지와 연결된 구독경제, 종자개발부터 유통·제조·판매 등의 결합으로 **6차산업 발전**
지역기반제조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재를 활용하거나 지역특색을 반영한 제조업	**수공업과 DIY 활동 증가**가 예상되며, 이를 **로컬제조업으로 육성**
지역특화관광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으로 관광객 유입 확대, 지역 방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및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성	VR 등을 활용한 **가상 관광, 체험 등의 관광 수요 증가** 예상
거점브랜드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 등 지역 거점 역할, 지역성과 희소성을 기반으로 지역의 가치를 재창출	오프라인 소비는 단순 소비보다는 가치소비가 중요해져 지역별 거점브랜드 육성이 필요
디지털문화 체험	지역별로 역사화 문화가 담긴 유적지와 문화재 등을 과학기술 및 ICT를 활용하여 재해석 또는 체험	AR, VR 등과 결합한 **디지털 문화체험 콘텐츠 시장 확대** 예상
자연친화활동	지역별로 상이한 자연환경(바다, 산, 강 등)에서 진행되는 서핑, 캠핑 등 아웃도어 활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 모델	**가족 또는 나홀로 단위의 레저활동(캠핑, 글램핑 등)의 수요 증가** 예상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3); 브런치(2023.08.21.) https://brunch.co.kr/@jejucenter/433

【그림 20】 중소벤처기업부 로컬크리에이터 유형 및 기대효과 분류

· 해당 사업은 지역의 문화·자연 특성과 새로운 아이디어 결합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인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지원하는 사업으로 7대 분야의 비즈니스모델*을 기반으로 적극적 지원을 추진 중임

* 지역특화관광, 자연친화활동, 디지털문화체험,지역가치,지역기반제조, 로컬푸드, 거점브랜드 등의 7개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각 부문에 특화된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지원 프로그램

· 특히, 지역특화관광 분야는 여행지, 자연화경 등 관광자원을 활용해 지역으로 관광객 유입을 확대시키며, 숙박·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을 통해 체류관광 수요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맥락에서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유·무형자원(생활문화, 역사·전통, 문화·예술, 지역특산품, 자연생태 등) 기반의 혁신적 비즈니스모델로 창업하는 자로서 사업의 성과를 지역에 환원시킴으로써 궁극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음

1.2 지역적 차원의 정책사례

대전광역시

· 우리나라 6대 광역시 중 하나인 대전광역시는 과학기술도시란 특화된 지역 브랜드 가치 및 관계 산업의 거점지역이나 지속적 인구감소 문제로 2021년 149만 명 수준*으로 크게 낮아짐

* 2019년 약 147만 명의 지역 인구는 매해 1만 명 수준의 인구가 감소세를 이어가는 추세

· 특히, 대전시는 인구감소의 다양한 요인(자연증감 및 사회증감 등) 가운데 출산율 감소에 주목하고 정주인구 확대를 도모할 목적에서 출산율 증대 관련 제도를 크게 확대하고자 함

- 대전의 제도 장치는 궁극적으로 생활인구 확대는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유효한 대책일 수 있지만, 국가 전체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출산율 확대에 기반 한 정주인구 증대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지를 관철하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배경에서 대전시는 『대전시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발표하고 돌봄비용 확대 지원, 이동 편의성 확대 등으로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 개정을 통해 지원 범위를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

【 표 29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요약

항목	내용
제1조 (목적)	·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3조 (출산장려와 양육 지원)	· 시장은 출산장려와 양육 지원을 위하여 출산장려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음
제9조 (꿈나무사랑카드)	· 시장은 13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에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 1.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업체 이용 시 할인 2. 개별 조례가 정하는 각종 시설에 대한 이용 시 전액면제 또는 할인 3. 그 밖에 시장이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료: 국가법령센터(2023), law.go.kr/대전광역시출산장려및양육지원에관한조례

· 특히 조례에 따라 시행된 「다자녀 꿈나무사랑카드」 사업은 다자녀(2명 이상) 시민에게 지하철 무료 이용혜택*을 제공하고 공영주차장 50% 할인 등의 복지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내 거주 및 정주여건을 크게 확대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꿈나무사랑카드 요약

· 추진개요: 관·산업 간 협약에 따라 다자녀가구(2명 이상)에 물품의 구매 및 시설이용에 있어 다양한 할인 혜택 제공

· 지원혜택

- 지하철(도시철도) 무료* 이용 및 공영주차장 50% 할인 등 제공
  * 다자녀가구 대상 도시철도 무료이용 혜택은 전국 최초
- 다자녀가정 우대업체 802곳 물품 할인 혜택 제공
- 지역 CGV영화관 할인 등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



자료: 대전광역시 홈페이지(2023)

· 이러한 정책·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실제 대전시는 2022년 전국 17개 시·도 중 출산율이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35세 - 39세 등의 청년인구의 지역 순유입도 소폭 증가함 [10]

- 2022년 기준, 대전시의 조출생률은 5.3명이었으며(전년 대비 0.2명 증가),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 0.84명(전년 대비 0.03명 증가), 청년인구(35세 - 39세 기준) 186명 인구 순 유입 증가 등 전반적으로 정주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임*

  *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출산율 감소

· 대전시의 정책적 지원제도는 지역소멸의 위기 해결을 위한 생활인구 확대 전략뿐만 아니라 생활밀착형 사업과 같이 실제 지역민을 대상으로 생활 여건 편의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음

경상남도 [11]

· 우리나라에서 8번째로 큰 규모를 가진 경상남도는 2021년 정부(행정안전부) 지정·고시 인구감소지역(89곳) 중 도내 11곳의 시·군(18개 시·군)이 지정되는 등 초고령사회의 진입과 낮은 출생률, 급격한 인구의 지역 외 유출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감이 크게 증가함

- 2022년 기준, 국내에서 2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지만(약 3,280천 명), 현대중공업 등 국가산업단지 기반의 지역 산업구조로 인구감소에 크게 영향을 받는 특성 상 정주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활력 제고를 적극 검토 중임

· 이에 따라 지역 인구를 330만 명 수준까지 회복시키기 위해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안」 수립으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구축하고자 함

- 기본계획안은 '지역 생활인구 15.0% 확대', '청년인구 감소율 2.0% 미만' 등을 목표로 체류관광 활성화, 거점형 생활환경 조성 및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실질적 계획 수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체류관광, 지역인재 유치 등의 전략에 기반해 정책 다양성을 추구하며, 궁극적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해 실질적 정주인구 증대에 정책 역량 집중 추진을 예고함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요약

구분	내용
비전	· 경남 미래를 위한 균형과 상생의 재도약
목표	· 생활인구 15% 확보 - 2022년 10% · 청년인구 감소 2% 미만 - 2017 - 21년 약 -3.4% · 정주인구 330만 명 회복 - 2022년 328만 명
추진 전략	·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인구활력 증진 · 지역자원 기반의 특화형 지역 일자리 창출 · 지역가치 재창조를 위한 지역인재 안착 ·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거점형 생활환경 조성
주요 추진 사업	· (인구활력 증진) 지역특화형 외국인 근로자 유입 촉진 등 · (특화향 일자리) 여성, 노인 등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 (지역인재 안착) 아이 키우기 좋은 돌봄환경 조성 등 · (거점 생활환경) 건강·의료시설 확보를 통한 웰니스 기반 구축 등

자료: 경상남도(2023).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2022 - 2026)」

[10] 동아일보(2023.04.28.). '출산율 1위' 대전시, 생활밀착형 인구 증가 정책 속도, 이기진 기자
[11] 경남신문(2023.06.14.). 경남 정주인구 330만 명 목표, 생활·청년인구 확보 나선다, 조고운 기자

· 다양한 추진사업(안) 중 6개의 대표 시범사업 추진으로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관찰하며, 이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실제 대응하는 유의미한 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생활인구의 확대와 지역사회의 정주여건을 지속 개선하고자 함

경상남도「인구감소지역대응 특화형 시범사업 구상」시범사업(안) 요약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경남 숙박시설을 누구나 할인가에 누리는 '경남회원권'	· 내·외국인 대상 숙박, 음식 및 재래시장 할인혜택 '경남회원권' 민간플롯폼(야놀자, 여기어때 등) 연계 기반 확대 · 시기별 차등 할인혜택 제공(성수기 10%, 비수기 20% 등)
외국인 유학생 교육-고용-정주 원스톱 지원	· 지역 내 대학-지자체-산업체 간 유학생 공동유치(일자리 연계형 유학 등) · 일자리 연계 외국인 유학생 교육 및 전담학과 신설 지원 · 지자체 주도 비자 발급 체계 구축 및 포용적 다문화사회 조성 추진
(공모형) 경남형 워킹홀리데이	· 도시 거주 청년 대상 경남 일자리 체험 기회 제공 및 사회공헌 활동 지원을 위한 시·군 추진사업 지원 - 주거지원 리모델리 비용, 운영관리비 및 참여자 사회공헌활동비 등 지원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한 정주인구 증가	· 도내 특성화고(30개) 및 마이스터고(4개) 대상 지역산업 연계 교육 등 지원 · 도내 대학·대학원 대상 교육부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공모 지원
경남형 아동돌봄 24시 체계 구축	· 경남형 아동돌봄통합 TF 신설 및 광역지원단 지정·운영 - 관 중심 경남 아동돌봄 컨트롤타워 구축 및 지원정책 개발, 예산확보 지원
고등학교 등 설치·전환 권한 이양	· 도내 기초지자체 대상 특수목적고, 마이스터고 및 외국인학교 시·군립 설치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2조(교육기반확충)에 광역·기초지자체장의 권한 명시 및 권한 이용

자료: 경상남도(2023).「인구감소대응 계획 수립 및 특화형 시범사업 구상」

· 이와 함께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내 다양한 신규사업 추진으로 지역이 직면한 소멸위기에 대한 실제적이고 실효성 높은 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하고자 하며, 지역 간 인구뺏기 싸움이 아닌 도내·외 간 유기적 인구교류 체계 확립으로 소멸위기에 대응하고자 함

충청남도 공주시 [12] [13] [14]

· 충남 공주시는 인구감소에 의한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기반 약화에 적극적 대응책으로써 '온누리공주 시민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 공주시는 2000년대 이후 국가 전반에서 관찰된 인구감소 문제와 맞물리고 인근 세종특별자치시 조성으로 지역민의 지역 외 유출이 심각해지자, 정주인구 확대의 실효성을 찾지 못해 대안으로써 지역과 높은 상호작용을 하는 생활인구 확대에 주목하기 시작함

· 2008년 최초 시행되어 2023년 현재 약 11만 2천 명 정도 시민 등록을 완료하였고, 다양한 지역 방문의 혜택 제공으로 2022년 약 32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보임

- 온누리공주 시민제도는 국내·외 거주 누구나 인터넷으로 시민 등록을 하고 주민등록의 이전 없이 공주시 시민으로서 지역 가맹점의 다양한 할인, 백제문화제·석장리구석기축제 등 문화행사 참여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 제도임

[12] 온누리공주 홈페이지(2023). https://cyber.gongju.go.kr/onnuri/html/citizen/0101.html
[13] 충청뉴스(2023.05.09.). 공주시, '온누리공주시민' 가입은 간편하게, 혜택은 풍성, 조홍기 기자
[14] 매일경제(2023.08.21.). 공주, 온누리시민으로 '생활인구'를 늘리다, 이은파 기자

- 단순한 상거래 할인 외에 다양한 이벤트 참여, 공주 방문 후기 작성 등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고, 적립된 마일리지는 현금성 재화로 가맹점 방문 시 상품 결제가 가능함

공주시 온누리공주 시민제도 요약

· 추진개요: 공주 연고자 외에 국내·외 누구나 공주에 대한 높은 관심 및 선호, 방문의도를 자극함으로써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 해법 모색
· 지원혜택
- 지역 온누리공주 가맹점 상품 거래 할인
- 지역 역사·문화·관광자원 및 숙박시설 할인
- 다양한 활동(사진찍기, 후기 등록 등)으로 적립된 현금성 마일리지 사용으로 추가 할인 등



자료: 온누리공주 홈페이지(2023)

· 모바일 시민증 형태의 온누리공주 시민제도 시행 후, 공산성, 무령왕릉 등 유명 관광지 관광객 유치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유입 생활인구 증대와 맞물려 시는 원도심 성장을 위한 다각적 정책사업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가고 있음

- 제민천(원도심) 생태하천화 사업, 원도심 청년창업가 활동 기반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유입 생활인구의 만족도를 크게 제고함

- 그 결과, 2022년 기준 온누리공주 시민은 약 11만 2천 명으로 등록인구(약 10만 2천 명) 대비 1만 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농특산물 쇼핑몰(고맛나루 장터) 매출액(2022년 기준, 매출액 약 6억 원 수준)이 매해 약 10% 이상 증가하는 추세임

- 더불어, 지역의 대표 축제인 '대백제전' 무료 관람 혜택, 공산성, 무령왕릉·왕릉원 및 석장리 박물관 등의 관광명소 무료화 추진 등으로 온누리공주 시민 유입 확대를 적극 도모하고 있음

전라남도 화순군 [15] 및 나주시

· 전남 화순군은 전국적인 인구의 자연감소 문제로부터 유발된 지역소멸의 효과적 대응은 청년인구 증대라는 점에 주목함

· 실제 화순군은 대도시의 배후지역으로 광주광역시와 인접해 있어 도시인구의 지역 내 유입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 전체 인구 대비 약 31.8%가 청년인구이기 때문에 청년 대상의 인구정책으로 지역소멸 위기의 해법을 모색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보유함

- 2022년 기준, 화순군 청년인구는 약 1만 9천 명 수준이며, 군 전체 가구의 약 24.5%가 청년가구로 지역 내 청년층 유입이 타 시·군 대비 활발한 지역임(화순군, 2023) [16]

· 이러한 배경에서 화순군은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추진, 전국 청년의 관심과 주목을 이끌어 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지역으로의 유입을 적극 독려함

- 낮은 주거비용, 다양한 편의시설과 상권 내 위치한 시설 등으로 실제 지역 외 인구의 적극적 유입을 독려함으로써 생활인구 및 정주인구 확대에 큰 효과를 얻음*

* 50가구 중 약 38%(19명) 청년은 광주·서울 등 타 지역 거주자, 62%(31명) 화순군 청년인구

[15] 머니투데이(2023.12.19.). 화순군, '2023년 화순군 청년통계' 신규 작성 공표, 나요안 기자
[16] 화순군(2023). 『2023년 화순군 청년통계』, 국가통계 승인자료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 요약

· 추진개요: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 향상 도모, 청년 정착 환경 조성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방안으로써 지역 청년인구 확대

· 사업개요

- 대상: 18세 이상 - 49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
-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전액 및 임대보증금(48백만 원 이내) 지원, 총 2년 거주 가능(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거주)
- 주거시설: 부영아파트 20평형(전용면적 49.920㎡) 50호



자료: 화순군청 홈페이지(2023)

- 화순군은 궁극적으로 지역 내에서 청년인구 증대 외에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교육·문화 복지 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이를 토대로 지역소멸의 위기를 촉발하는 인구감소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자 함

  - 해당 사업은 관 주도의 지역 생활 및 정주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민간 임대아파트 1,500가구 중 공실을 전세 임차)으로 원활한 사업을 위해 정부(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관련 조례 제·개정을 완료한 후 추진됨

- 특히, 입주자 중 35세 이하 청년인구가 약 84% 수준*으로 나타나 청년층 인구 유입 및 주거 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다양한 지역(전남 나주, 경남 거창, 전북 남원 등)에서의 벤치마킹 사업 확대를 독려하고 있음

  * 당해 사업 입주자는 25세 이하(12명), 26세 - 30세(16명), 31세 - 35세(14명) 등으로 청년인구 지역 유입에 유의미한 효과 창출

- 화순군의 정책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의 우수사례*로 생활인구의 실질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 2023년 기준, 전라남도 인구정책 평가 '최우수상' 시상

- 청년인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임대주택 사업의 실제 성과에 따라 유사 사업이 확대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나주시는 일명 '0원 주택'의 취업 청년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함 [17]

나주시 취업 청년 임대주택 시범사업 요약

· 추진개요: 산업단지 근로자 등 취업 청년의 안정적 주거환경 구축 및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통한 지역소멸 위기 대응

· 사업개요

- 대상: 18세 이상 -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 지원내용: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총 2년 거주 가능(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거주)
- 주거시설: 부영아파트 20평형(전용면적 49.920㎡) 30호



자료: 나주시청 홈페이지(2023)

- 나주시의 경우, 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 조성을 통해서 2014년부터 지역 내 인구 순유입의 효과가 지속 창출되었으나, 2022년부터 유입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 당해기간 지역 외 유출 인구(1만 4천 명) 중 28.3%는 지역 거주환경의 이유로 지역을 떠나는 것으로 응답함

- 이러한 배경에서 나주시는 취업 청년 임대주택 사업으로 지역 내 청년인구 유입 독려 및 지역 산업의 실질적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자 함

[17] 투데이광주전남(2023.07.20.). '청년이 돌아오는 나주시' 취업 청년 임대주택 공급 본격화

2. 유형별 국내·외 사업사례

2.1 생활관광 유형

우프(WWOOF, World-Wide Opportunities on Organic Farms)

· 우프(WWOOF)는 유기농 및 친환경 삶을 추구하는 농가체험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하루 5시간 정도의 노동을 대가로 무료 식사와 숙박을 경험할 수 있고, 특히 농촌지역의 일상을 체험한다는 이점과 지역 활력 제공의 긍정적 효과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운영 중임 [18]

- 1971년 영국에서 시작해 2023년 핸재 세계 153개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1년 총 15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임*

  * 2023년 현재, 각국에 소재한 호스트는 약 12,000개소

- 해당 국가의 농촌생활 경험을 통해 농업기술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지역문화 체험을 통해 농촌지역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짐

- 현재 전체 참여국가 중 55개 국가는 자발적 대표부를 운영 중이며, 호스트의 숫자가 비교적 적은 일부 국가는 영구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 3년 주기로 국제대표부 회의를 개최하며, 2011년 한국에서 회의 개최

우프(WWOOF) 관련 용어 정리

용어	내용
우퍼	· 호스트 농가에서 하루 4-6시간 노동의 대가로 식사와 숙박을 무료로 제공받는 체험자
호스트	· 유기농·친환경 농업인으로 우퍼에게 식사, 숙박 및 농촌 삶의 경험을 제공하는 초청자
우핑	· 우퍼와 호스트가 상호 존중·배려하는 마음으로 해당지에서 각자의 소임을 다하는 활동

·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처음 시작해 2011년부터 본격적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우퍼는 대체적으로 호주, 영국, 일본, 미국 및 캐나다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 중임

- 우리나라 우퍼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커뮤니티 및 신뢰 구축'을 목표로 금전적 교환이 없는 교육 및 문화경험의 촉진'을 목표로 자원봉사와 유기농가를 연결하는 운동으로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우퍼는 총 4가지의 '우프 미션'을 기반으로 수행되며, 각 미션은 ① 봉사를 통한 노동 제공으로 일손 부족 농가에 도움을 제공하고 ② 도시민에게 농촌체험 및 생활의 경험 기회를

[18] 우프코리아 홈페이지(2023.09.11.) https://wwoofkorea.org/wwoof-is/)

부여하며, 3 친환경적 농법 경험과 인식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 공유와 확산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4 궁극적으로 다른 지역과 국가의 사람 간 문화교류를 촉진하는 것으로 구성됨

- 특히, 우프 프로그램은 보편적으로 '소그룹'의 형태로 진행되며, 당일 또는 1박 2일 동안 진행되고 일정한 노동 시간 외에는 해당 지역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우프 프로그램' 예시: 2023년 9월 기준

구분	세부내용
지역 및 활동	· 강원(5개소, 축산/낙·농·임업 등), 경남(4개소, 과수농업 및 가금업 등), 경북(2개소, 과수농업), 전남(5개소, 소급 생산, 과수농업 등), 충남(5개소, 화훼농가, 농업 등), 충북(4개소, 농업 및 복합영농 등), 제주(1개소, 감귤 농업), 경기(7개소, 농·임업 및 가금업 등)
체류 기간	· 호스트별 선호 기간 상이 · 단기, 장기 및 주기적 활동
대상자	· 귀농/귀촌 전 농촌 경험 희망자 · 지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자 · 도시에서 벗어나 사색의 시간을 갖고 싶은 자 · 글로벌 네트워크를 우리나라에서 경험하고 싶은 자 · 육체적 노동을 통해 힐링을 경험하고 싶은 자 · 친환경 농업에 관심이 있는 자 · 친환경적 삶 또는 대안적 삶에 관심이 있는 자
참여 나이	· 호스트별 선호 나이 상이 · 평균 만 16세 이상부터 선호
필요 비용	· 우프 활동 지역까지의 이동 경비 및 주변 관광 시 필요한 비용 일체

자료: 우프코리아 홈페이지(2023.09.11.)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우프 프로그램' 현황: 2023년 9월 기준

지역	개소	호스트 지역	프로그램
인천	1	강화	· 농업프로그램 등
경기	5	화성, 연천, 양평, 파주, 여주	· 농업, 임업, 가금업 프로그램 등
강원	5	평창, 영월(4)	· 축산/낙농업, 농업, 임업 프로그램 등
충북	4	음성(2), 단양(2)	· 농업, 복합영농 프로그램 등
충남	5	논산(2), 서천, 예산, 홍성	· 화훼농가, 농업프로그램 등
전남	5	곡성, 신안, 구례(2), 영암	· 소금 생산, 과수 농업프로그램 등
경북	2	청송, 구미	· 과수 농업프로그램 등
경남	4	거창, 남해, 창원, 산청	· 과수 농업, 가금업 프로그램 등
제주	1	제주	· 감귤 농업프로그램 등

자료: 우프코리아 홈페이지(2023.09.11.)

- 궁극적으로 '우프'는 외국인 체류자 대상 상호 문화교류의 창으로 활용되며 한국 및 한국의 농촌문화 홍보 효과를 창출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음

- 이와 더불어 내국인에게 농촌체험에 대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생활인구 증대 효과를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함



충북 음성 우프 프로그램 체험 활동



전남 구례 우프 프로그램 체험 활동

자료: 우프코리아 홈페이지(2023.09.11.)

아그리투리스모(agriturisomo) [19] [20]

- 이탈리아의 아그리투리스모(agriturismo)는 농업과 관광의 합성어로 이탈리아 농촌의 전통, 문화 및 농산물이 풍부한 농촌지역에 체류하며 농촌생활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임
  -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전통적 형태를 갖고 있던 이탈리아의 소규모 농업산업이 낮은 수익성의 문제에 직면하고 농촌인구가 급속히 줄어들어 빈집과 방치된 경작지가 늘어났고 그 결과, 지역경제 기반의 악화 및 경관 훼손 등 부정적 이슈가 증가함
  - 이탈리아 정부는 이러한 농촌지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촌의 토지와 건물을 복원하고 일부 주택을 농촌지역 숙박시설로 개조해 활용하기 시작함
- 아그리투리스모는 궁극적으로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의 위기 상황에 대한 정책적 대처로써 새로운 생활인구(즉, 관광객 등) 유입을 적극 독려함으로써 농촌의 재생 기회를 도모한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아그리투리스모를 통해 여행·관광자는 농촌의 생활을 경험하며, 로컬푸드 생산자와의 만남 및 교류를 통해 미식 여행 이상의 차별적 가치를 획득할 수 있고 동시에 농촌은 새로운 지역경제 활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풀서비스 체험이 가능한 아그리투리스모



자연 속 조식 체험이 가능한 아그리투리스모

자료: 이탈리아 농촌 민박 중개플랫폼(2023.09.15.)

[19] 이탈리아 여행사이트(2023.09.15.) https://www.tripsavvy.com/what-is-agriturismo-1547534
[20] 이탈리아 농촌 민박 중개플랫폼 홈페이지(2023.09.15.) https://www.agriturismo.it/

- 아그리투리스모에 참여하는 농가의 소유자는 반드시 농부이어야 하며, 주요 수입이 농업 활동으로부터 창출되고 숙박시설이 일정한 면적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전통적인 이탈리아의 농가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실제 농업인에게 혜택이 부여되도록 함

- 한편, 아그리투리스모는 관광객 취향과 선호에 부합된 시설을 스스로 탐색 및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체험지에 따른 차별적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경험 가치를 제공함

    - 아그리투리스모에 따라 독립·고요한 환경에서의 휴식, 신선한 로컬푸드 식사 및 전통 요리 수강 프로그램, 승마·트레킹 등 자연·농촌 체험 프로그램 등을 경험할 수 있음

- 특히, 2021년 내·외국인을 모두포함한 관광객의 아그리투리스모 평균 체류일 수는 4.2일로 실제 인구감소에 따른 위기 지역에 새로운 활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고향(후루사토)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21] [22] [23]

- 일본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의 새로운 활력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관계인구 창출에 적극적인 국가 중 하나임

-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은 지역 사회의 과제 해결에 이바지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책으로써 2016년부터 '고향 워킹홀리데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고향 워킹홀리데이사업은 지역으로의 사람 및 정보 흐름을 창출하는 프로젝트로 도시 거주 젊은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 체류하며, 일자리 경험(수익 창출) 및 생활·여가 체험을 통해 지역과의 높은 교류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독려하는 사업임

    - 특히, 본 사업은 관계인구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되며, 단기적인 측면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인턴십 등의 일자리 체험 기반 지역으로 이주가 발생하기를 기대하는 사업임

-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대학생, 30대 - 40대 등) 대부분 농업 분야(특산품), 숙박업(호텔, 료칸 등), 관광업(스키장, 전통공예 판매장) 등의 산업부문 외 전통주 제조업,기타 제조업(도자기 등) 분야에서 일자리를 체험하고 있음

    - 참가자는 일 경험을 통해 일정한 수익을 창출하며, 지역의 역사, 문화 및 산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관광활동을 통한 여가생활 향유 등의 기회를 제공받고 지역 축제 운영 경험 및 지역사회(지역민, 이주자 등) 간담회를 통해 지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음

- 일본 정부(총무성)은 고향 워킹홀리데이 플랫폼 운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외에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통해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지역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함

    * 일본 정부는 특별교부세를 통해 고향 워킹홀리데이 필요 경비 일부를 지원(각 단체 당 1천 5백만엔 등)을 통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활성화를 적극 독려 중

- 실제 이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일본 정부는 인구감소 위기 지역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경험자 대부분은 재방문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참여자의 약 81%) 관계인구 확대에 긍정적 효과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이점에 고향 워킹홀리데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6년

[21]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2023.09.12.) https://www.soumu.go.jp/
[22] 일본 워킹홀리데이 홈페이지(2023.09.12.) https://furusato-work.jp/
[23] 일본 미야기현 게센누마시 이주·정주지원센터 홈페이지(2023.09.12.) https://www.minato-kesennuma.com/

불과 8개의 지역에서 2021년 23개 단체로 확대된 바 있음

일본 고향(후루사토) 워킹홀리데이 참여 지방자치단체 수: 2021년 기준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지자체 수	8	16	20	36	17	23

자료: 일본 총무성(2022)

- 특히, 일본 미야기현 게센누마시의 프로그램은 현지의 우수 프로그램으로 1차 산업(낙농가), 서비스(외식업, 관광소매점 등) 부문 등 8개 곳에서 이루어졌으며, 2021년 57명의 참가자 중 3명이 실제 지역으로의 이주를 결정한 바 있음

  - 게센누마시의 경우, 이주 지원금 제도를 운용 중이며,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경우도 관계인구로 일주일 이상 현지 체류(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여) 시 보조금을 지원해 현지에 머무를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일본 미야기현 게센누마시 고향(후루사토) 워킹홀리데이 지원금 제도 운용 개요: 2023년 기준

구분	세부내용
사업목적	· 도시 거주 청년들이 일정 기간 현지에 체류하며 일 경험 통해 수입을 창출하고 지역 사회와의 교류·관계형성 및 관광활동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독려
체류기간	· (일반적으로) 2주 이상 1개월 이내
보조금액	· 숙박요금 1인 1박당 상한액 5천 엔까지 지원
대상자	· 미야기현 외 거주자(관계인구)

자료: 게센누마시 이주·정주지원센터 홈페이지(2023.09.12.)

- 또한, 이와테현의 경우 농업, 축산업, 주조업(와인, 전통주), 관광업(온천, 철도), 어업 등 지역 산업구조의 일반적 부붐 외에 프로 농구팀 스포츠 마을 만들기 지원 등과 같은 차별적 콘텐츠 활용으로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 2022년의 경우, '이와테 빅 불스' 홈 경기 시 서포터 업무를 체험하기 희망하는 참여자 모집으로 개막전 준비, 홍보 등의 구단 운영과 관련된 간접적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시즌 개막 후 경기 준비 및 운영 지원의 경험으로 '스포츠와 지역'을 동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



미야기현 게센누마시 고향 워킹홀리데이



이와테현 모리오카시 고향 워킹홀리데이

자료: 일본 워킹홀리데이 홈페이지(2023.09.12.)

2.2 스포츠활동 유형

세계유산과 함께하는 카누여행 [24]

- 충청남도 부여군은 열악한 지역산업 구조로 인해 인구감소에 의한 지역소멸 위기감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의 특화된 역사문화자원과 스포츠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자원을 기획·운영하고 있음

- 수상레저 문화관광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 확립을 위해 정부 공모*를 통해 스포츠(카누, 전국 용선 경기대회 등)와 백제 역사지구 관광지를 융합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적극 도모 중임

  *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사업」 공모 선정으로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특히 2024년 카누종합훈련센터 건립을 목표로 사업 진행 중

- 특히, 부여군의 다양한 문화축제와 연계해 '백마강배 전국 규모의 용선 경기, 카누대회' 등과 같은 수상 스포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함으로써 방문 관광객의 체류시간 확대까지 도모하고 있음

  - 낙화암 주변 수변 공간, 궁남지 연지를 여가·레저 및 스포츠 활동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수상레저 체험 이벤트를 개최하며, 일반인이 평소 경험하기 어려운 수상레저 스포츠 체험 기회 제공으로 지역관광 경쟁력 제고를 기대함

  - 더불어 대회 참가 선수단 및 가족, 축제 방문객 등에게 수상레저의 이색 볼거리 기회 제공으로 다양한 생활인구의 적극적 지역 유입을 촉진·독려함



궁남지 연지 카누체험

자료: 부여서동연꽃축제 홈페이지(2023.09.13.)



제1회 백마강배 전국 용선대회

자료: 부여군 홈페이지(2023.09.13.)

- 낙화암 답사 백마강 카누투어, 수륙양용버스 체험 등의 이벤트성 콘텐츠 외 전국 규모의 카누 동호인 대회 및 전국 경기 개최를 통해 수상레저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 동시에, 지역 축제 개최기간과 연계를 통해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의 체류시간 연장 독려와 지역활력 제고 기반 구축을 도모함

- 결과적으로 부여군은 2021년 '세계유산과 함께하는 카누여행'을 통해 35,057명의 생활인구 유입 성과를 창출했으며, 일자리 창출 1,811명, 경제적 유발효과 약 22억 6천 2백만 원 등의 유효한 성과를 얻음

[24] 김상훈(2022). 「스포츠 관광 사례 연구」. 융합관광콘텐츠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미국 시니어올림픽 대회(National Senior Games) [25]

· 미국의 시니어올림픽 대회는 스포츠관광의 대표적 사례로 50세 이상 성인 동호인을 대상으로 매년 각지에서 순회 개최되고 수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임

- 미국올림픽위원회의 공식 대회로 전미 시니어 게임협회(the National Senior Game Association, NSGA)에서 주관해 시니어의 스포츠활동 활성화를 독려하며, 대회 참가 선수들은 경기 뿐만 아니라 개최지의 여행·관광활동을 향유함

미국 시니어올림픽 대회(National Senior Games) 요약

· 1987년 세인트루이스 주에서 처음 시작된 대회
· 내용
- 전국대회와 미국의 주 단위 대회로 구분·개최
- 격년(홀수 해) 전국대회 개최(약 2주 간의 일정)
- 연령별 그룹 구분으로 경쟁
  * 50 - 54세, 55 - 59세, 60 - 64세 등 연령별 대회
- 육상, 수영, 골프, 사격, 테니스, 라켓볼, 펜싱 등의 일반 스포츠 및 댄스, 말발굽 던지기 등 생활스포츠 경쟁(개인종목), 남녀 농구(단체종목)



자료: National Senior Games Association 홈페이지(2023). https://nsga.com/

· 시니어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는 지역관광공사, 행정부(생활체육부문, 공원관리부문 등) 등과 연계를 통해 대회 기간동안 참가자 및 관람객의 지역관광 체험을 적극 독려함

- 2023년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대회는 총 21개 종목에서 약 12천 명의 선수가 참가하였으며, 매년 대체로 10천 명 이상이 꾸준하게 대회 참여해 개인의 활력 넘치는 삶을 제고하고 지역 및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교류를 이어감

미국 시니어올림픽 대회(National Senior Games) 대표 성과 요약

구분	내용
뉴멕시코주 앨버커키 대회	· 약 14천 명이 참가한 대회로 대회 개최기간 스포츠 관광으로 약 3천 5백만 달러의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유타주 세이트조지 대회	· 유타주 남부의 세인트조지(St. George) 도시에서 고정적으로 개최하며, 매 10월 2주간의 대회 개최로 약 2천만 달러의 경제효과 창출

자료: National Senior Games Association 홈페이지(2023). https://nsga.com/

2.3 생활SOC 유형

다케오시 도서관(TAKEO CITY LIBRARY) 리뉴얼 사업

· 일본 규슈 사가현 서부에 위치한 다케오시는 약 48,151명*이 거주하는 소규모 도시로 고령화 및 도심으로의 인구 유출 등 인구감소 문제로 공공시설 기반 약화, 중심지 낙후화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 지역소멸 위기 지역임

* 1,300년 역사의 온천, 400년 역사의 도예마을 등 매력적 자원을 보유하고 후쿠오카, 나가사키

[25] 김상훈(2022).「스포츠 관광 사례 연구」. 융합관광콘텐츠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등 대도시 접근성이 1시간 이내인 도시지만, 2022년 기준 거주인구가 약 48천 명인 소도시

· 다케오시는 지역이 직면한 사회기반시설 낙후 등의 부정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립도서관의 리뉴얼 사업을 실시해 인프라의 현대화를 넘어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제고하는 성과를 창출함

일본 다케오시 시립도서관 리뉴얼 사업 요약

· 위치: 일본 사가현 다케오시
· 내용: 민간기관 위탁관리·운영으로 역사 자료관을 다양한 체험콘텐츠 기획·운영이 가능하도록 리뉴얼
- 도서관 강좌, 도서 관련 정기적 강의 이벤트, 지역사회 대상 각종 세미나, 전시회 및 수공예 강연 등을 통해서 지역 커뮤니티와 도서관 공간 가치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고 지역의 새로운 활력 강화 기반 마련



자료: 다케오시 홈페이지(2023). http://www.city.takeo.lg.jp/

- 2000년 개관한 도서관은 2006년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방시간 연장 등에도 지역사회 인구감소 등의 문제로 인해 방문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조례 개정을 통해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해 장소적 가치를 재창출하고자 함

- 그 결과, 단순 역사 자료관의 역할에서 열람·학습공간, 지역사회·지역민 대상 다양한 체험강좌 운영, 편의시설 구축 등으로 거주자 및 인근 도시민의 방문을 적극 독려하는 계기 전환을 마련함

다케오시 시립도서관 시설개요 요약

구분	내용
시설명	· 다케오시도서관·역사자료관 (武雄市図書館 · 歴史資料館)
소재지	· 5304-1 Takeochō, Ōaza, Takeo, Saga
공사비 (최초 건축비)	· 4억 8,000만 엔 (약 20억 엔)
관리운영 위탁주체	· Culture Convenience Club 주식회사
공간 시설	· 도서관, 열람·학습공간, 다목적 쉐어룸, 역사 자료관 및 다양한 부대·편의시설 (식음료 공간, 점자·낭독 서비스실 등) 조성 · 어린이도서관 신규 개관
수상 내역	· 2013년 Good Design상 금상 수상 (新도서관 구상 -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시민생활 제안 부문)
방문객 수	· 824,368명 (2022년 기준)

자료: 다케오시 홈페이지(2023). http://www.city.takeo.lg.jp/

· 실제로 다케오시 시립도서관은 문화공간 자원을 활용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 기회를 창출하고 생활인구 등의 지역 내·외의 인구 흐름에 유효한 성과를 보임으로써 2013년 '도서관 중심의 시민생활' 부문에서 수상*하기도 함

* 2013년 일본 Good Design 금상 수상

· 특히, 민간 위탁운영의 효과로 다양한 부속 사업과 프로그램이 시행·운영됨으로써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지역 외 방문객까지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지역을 찾아오는 사례가 크게 증가함

- 다양하 부속사업(식음료, 서점 운영 등)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까지 발생한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의 대표 사례임

다케오시 시립도서관 프로그램 요약

구분	내용
도서관 강좌 (정례)	사서 강좌 (연대별), 어린이 독서회, 고전 강좌, 어학 강좌
강좌 및 이벤트 (정기)	요가 강좌, 키즈 팬케이크 교실, 시니어 스마트폰 교실 등
(스페셜) 이야기회 및 그림책 라이브	어린이도서관에서 개최하는 책 읽어주기 강좌
	황금연휴, 크리스마스 등에 개최, 그림책 작가에 의한 그림책 라이브
기타 이벤트·워크숍	도예, 그린, 액세서리 만들기 등 각종 강연회, 전시회
북스타트 교실	5개월 아동·보호자를 대상으로 월 2회 실시
출장강좌, 연수회 개최	평생학습 출장강좌, 학교 도서실 연수회 등

자료: 다케오시 홈페이지(2023). http://www.city.takeo.lg.jp/

- 특히, 단순한 방문객 증대를 위한 리뉴얼 사업은 2018년 총 방문객 수가 약 1,073천 명에 이르는 성과*를 넘어 각종 행정기관 대상 다양한 체험·연수 프로그램 개최 효과**까지 얻음

  * 2022년 코로나 펜대믹의 상황에서도 총 방문객 824,368명(지역민 48,151명) 방문 성과 창출

  ** 의회, 지자체, 대학교 등의 벤치마킹 101건 개최(815명 방문), 학교·유치원 등 단체견학 30건(795명 방문), 직장체험·연수 등 11건(37명) 등 지역 인구유입 확대 기반 구축

- 다케오시 시립도서관은 지역소멸의 위기가 매우 심각한 수준의 일본 내에서 생활SOC 기반의 복합문화 커뉴니티 공간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의 대표적 성공사례이며, 단순 방문객과 관계(생활) 인구 유입의 효과뿐 아니라 지역관광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에 유의한 시사점이 있음

  * 특히, 벤치마킹, 연수 등을 위해 도서관을 방문한 사람 및 관련 프로그램은 지역 내 숙박업소와 연계해 지역 체류시간 확대에 긍정적 효과 창출 중



다케오시 시립도서관 요가 프로그램



다케오시 시립도서관 체류 편의시설(카페 등)

자료: 다케오시 홈페이지(2023). http://www.city.takeo.lg.jp/

증평군립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사업

-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활력 제고와 지역민 간 유기적 연계, 인근 배후지역 간 인구교류 확대를 위해 생활SOC 기반 지역 거점 공간화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충청북도 증평군은 지역 내 거점화 공간 조성을 위해 설계 단계부터 증평군립도서관을 생활SOC형 복합문화공간을 계획하였고 2020년 지역참여 선도 사례*로 주목받음

  - 증평군은 전체 인구(2023년 기준, 약 3.7만 명)의 약 90% 이상이 증평읍에 거주하는 전형적인 컴팩트한 소도시 형태와 특성을 갖고 있음

    * 국무조정실 산하 생활SOC 추진단 발간, 지역참여 선도사례집에서 지역 활성화 우수사례로 소개

충청북도 증평군립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사업 요약

· 위치: 충청북도 증평군 송산리 816번지
· 시설: 평생학습실, 다목적홀 등 공간 조성(A= 3,020㎡)
- 도서관, 전시관, 영화관, 천문대, 북카페, 돌봄교실 등의 공간 운영
- 독서문화행사, 평생학습교육프로그램, 영화 상영, 소규모 이벤트 개최



자료: 증평군립도서관 홈페이지(2023). https://lib.jp.go.kr/

· 특히, 단순한 독서 열람 및 도서 대여의 공간 활용을 넘어 돌봄교실 운영, 영·유아 창의 학습, 어르신 문해교육 등 지역사회의 삶의 질 제고에 필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문화체험학습 운영이 용이한 시설 조성으로 지역민 간 유기적 교류 기반을 마련함

충청북도 증평군립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시설개요

구분	내용
소재지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37
건립비	· 10,300백만 원 (국비 1,800/도비 3,545/군비 4,955 백만 원)
구조 및 규모	·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연면적 3,020㎡, 건물면적 3,472㎡)
시설현황	· 지하 1층: 자원봉사자실, 보존서고 · 지상 1층: 유·아동/다문화 자료실(돌봄교실 기능), 북카페(전시 기능) · 지상 2층: 종합/디지털자료실 (도서관 기능), 사무실, 회의실 · 지상 3층: 다목적홀(영화관, 157석), 일반열람실(도서관, 69석) 등 · 옥상: 하늘정원(야외공연 등 문화기능)
이용객 수	· 누적 150만 명 (2019년 기준)

자료: 증평군립도서관 홈페이지(2023). https://lib.jp.go.kr/

·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및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지역사회(증평군민) 뿐만 아니라 인근 배후지역과의 유기적인 생활인구 교류* 기반을 확대한 중요 사례임

- 2019년 기준 누적 이용객은 약 150만 명에 이르며, 학습형 일자리(평생학습 및 문해학습 강사, 경력단절 여성, 청년 일자리 등) 창출로 45명의 신규채용 효과를 가짐

* 충북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등 증평군 인근 배후지역 간 활발한 인구교류 거점

2.4 문화·예술이벤트 유형

경기도 의정부음악극축제(UMTF)

· 의정부 음악극축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연예술축제로써 관람형 콘텐츠와 참여형 콘텐츠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 특히, 단순 관람형 콘텐츠·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음악축제의 틀에서 벗어나 실내 공연과 실외 공연, 찾아가는 공연, 시민참여 프로그램 및 예술교류·전시 프로그램 등이 어우러진 차별화된 음악극 축제임

- 2023년, 22회 축제가 개최되었으며, 당시 다양한 국내·외 초청작,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관람객 및 지역사회·지역민의 문화향유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축제·이벤트 개최로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한 성과를 보임

제22회 의정부 음악극축제 요약

·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일대
· 주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음악극 정체성 강화 및 환경·자연, 에너지 절약을 중심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축제의 장
- 실내·외 공연, 야외거리 공연(거리퍼레이드 포함), 시민동아리·동호회 등의 시민참여형 콘텐츠, K-POP 댄스, 국내·외 우수 초청작 공연 등



자료: 의정부음악극축제 홈페이지(2023). https://www.uac.or.kr/umtf/

· 의정부 음악극축제의 대표 콘텐츠는 군악대, 마칭밴드, 인형극 및 지역사회 시민(의정부 각 동의 깃발행렬)등이 어우러진 거리퍼레이드로 다양한 공연예술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실제 음악극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평가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경기도 지역의 대표 공연예술제로 축제 기간동안 약 5만 명 이상의 생활인구가 지역으로 유입되는 영향력 강한 콘텐츠라고 할 수 있음

- 2022년 의정부 음악극축제는 총 61,039명(유료 346명, 무료 60,693명)을 지역으로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약 41건의 유·무료 야외공연, 8건의 공연, 13건의 전시 기획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

- 2023년 개최된 제22회 음악극축제는 전년 대비 관람객이 일부 감소해 흥행 실패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대체로 축제 기간 대규모 생활인구가 지역으로 유입되며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함

  * 당해 기간, 여러 이유로 실내공연 및 해외 초청작 공연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인구감소 문제로 여러 지역이 활력을 잃어가는 때에 국내 유일무이한 음악극축제의 성격 상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였다는데 높은 의의 존재

제22회 의정부 음악극축제 개요 요약

구분	내용
행사명	· 제22회 의정부음악극축제(Uijeongbu Music Theatre Festival)
주제	· 함께 존재하기(Co-Exist)
브랜드 아이덴티티	· 환경과 자연, 에너지 지킴 등 예술가와 미래세대들의 협력으로 환경 보전
기간	· 2023. 6. 10.(금) ~ 2023.6.17.(토), 8일간
장소	· 의정부시청 앞 광장 및 의정부시 전역 · 의정부음악도서관 뮤직홀, 상설야외무대, 호원동 중랑천, 역전 근린공원 등
주요 행사	· 기획프로그램 : 영상 콘텐츠, 전시·공연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 실내·외 공연 : 대·소극장 초청공연 찾아가는 공연 등
소요 예산	· 총 6억 2천만 원(시비) - 의정부문화재단 2023년 주요업무계획 기준
주최/주관 및 후원	· (재)의정부문화재단(주최/주관), 경기도, 의정부시(후원)
최근 수상실적	· 2021년 및 2022년 경기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선정

자료: 의정부음악극축제 홈페이지(2023). https://www.uac.or.kr/umtf/



해외 초청공연



소극장 로비음악회



시민참여 프로그램



야외 공연

자료: 의정부음악극축제 홈페이지(2023). https://www.uac.or.kr/umtf/

경상남도 거창국제연극제(KIFT)

- 거창국제연극제(Geochang International Festival of Theater, KIFT)는 하계기간(7 - 8월) 경남 거창에서 개최되는 세계적 수준의 야외 연극축제임
  - 세계의 대표적인 야외축제인 프랑스 아비뇽페스티벌, 영국 에딘버러페스티벌과 함께 세계 3대 공연축제로의 성장을 목표로 1989년부터 시작해 최근까지 총 33회의 축제 및 이벤트를 개최 누적 방문객 약 200만 명을 기록함
  - 거창군은 축제를 통해 문화산업의 거점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며, 매해 약 50여 개의 극장에서 200여 편의 국내·외 공연을 개최해 지역사회·지역민 및 세계 각국의 관광객의 지역 유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음

제33회 거창국제연극제 요약

· 위치: 경상남도 거창군 일원
- 야외극장, 수변무대 등 실외형 공연·축제이벤트
· 주제: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상상'의 슬로건으로 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
- 국내·외 공식 초청작 공연, 프린지 공연 등의 예술행사 및 프리마켓, 체험존 등의 부대행사 운영

KIFT 제33회 거창국제연극제
2023.7.28.(금) ~ 8.11.(금) / 15일간

자료: 거창국제연극제 홈페이지(2023). https://www.kift.or.kr/bbs/page.php?hid=info_02

- 2023년 개최된 축제는 약 2.2천 명 방문객이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최기간 동안 계획한 유료 티켓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 53% 증가하는 등 이벤트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얻음
  - 우리나라는 여건 상 축제의 실질적 성공을 위해 무료 티켓을 대량 배포하는 경우가

많으나, 거창국제연극제의 경우 계획한 9천 여장의 유료 티켓이 매진되는 성과는 지역 축제의 경제적 성과가 지역 내로 재흡수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

- 특히, 거창국제연극제는 생애주기·계층에 관계 없이 누구나 보편적 문화향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아동 동반 가족 관광객을 비롯한 전 연령층 대상의 공연을 포함하고 우리나라 전통 창작공연 외에 세계 각국의 공연을 초청·개최해 다양한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제33회 거창국제연극제 개요 요약

구분	내용
행사명	· 제33회 거창국제연극제(Geochang International Festival of Theatre)
주제	· 자연·인간·연극이 하나되는 세계적인 야외축제
기간	· 2023.07.28.(금) ~ 2023.08.11.(금), 15일간 진행
장소	· 수승대 및 경남 거창군 일원
주요 행사	· 국내·외 공식 초청작 공연, 프린지 공연, 학술 행사, 식전행사, 개·폐막행사 등 · 푸드트럭, 세계풍물존, 세계음식코너, 플리마켓, 야간경관(LED) 등 부대행사
소요 예산	· 총 14억 원(도비 5억, 군비 9억 원) - 거창군 예산공개시스템 기준
주최/주관 및 후원	· (재)거창문화재단, KBS창원방송총국(주최/주관), 경상남도, 거창군(후원)
관람객 수	· 15일간 약 2만 2천여 명 (202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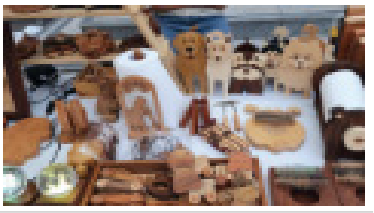
자료: 거창군 홈페이지(2023). https://www.geochang.go.kr/portal/Index.do

- 2023년 축제는 프랑스, 벨기에, 베트남 등의 해외 공식 초청공연 및 슬로바키아, 몽골 등의 프린지 공연을 포함해 국제 9개국 10개의 공연 등 총 51개의 공연*이 개최됨

  * 당초 계획 상 54개의 공연이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기상(태풍) 등의 이유로 일부 공연 취소

- 야간 LED 경관조명, 부대행사(푸드트럭, 세계음식코너, 플리마켓) 등을 기획·운영하여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축제 방문객의 경험 가치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지역에 대한 호의적 이미지를 정립하는데 기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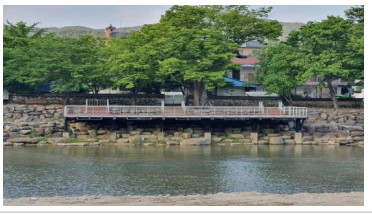
제33회 거창국제연극제 주요 부대 프로그램 요약

구분	내용	
푸드트럭 운영 및 세계음식 소개 축제	· 푸드트럭 운영 - 브라질(닭강정), 스테이크(미국), 에그와풀(홍콩), 찹쌀순대·떡볶이(한국) · 세계 식문화 체험콘텐츠 운영 - 수제 소시지(독일), 케밥(터키), 타코야끼(일본), 샤슬릭(러시아) 등 체험	
프리마켓 및 세계 풍물관	· 프리마켓 운영 · 풍물관 운영 - 태국(장식품 등), 인도(전통의상 등), 네팔(장식품), 에콰도르(전통악기) 등	
지역 특산품 판매장	· 거창군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 깨, 보리, 찹쌀, 사과 등 지역 특산품 판매를 통해서 지역사회 경제적 환원 효과 극대화	

자료: 거창국제연극제 홈페이지(2023). https://www.kift.or.kr/bbs/page.php?hid=info_02

· 한편, 축제는 야외공연의 테마와 브랜드에 부합되도록 실외 지역에서 대체로 개최되며, 방문 관람객 등은 단순 관렴형 콘텐츠 소비의 경험을 넘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경험을 함께 소비해 지역 방문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체험할 수 있음

제33회 거창국제연극제 주요 시설 요약

구분	설명	
공식초청작	· 장소: 축제극장 · 무대양식: 야외 중극장 - 총 666석 수준의 객석 운영 - 메인극장 및 축제사무국 등으로 운영	
	· 장소: 구연서원 · 무대양식: 야외 중극장 가변무대 - 총 400석 수준의 객석 운영 - 전통서원을 활용해 다양한 경험 제공	
	· 장소: 돌담극장 · 무대양식: 야외 중극장 프로시니엄 - 총 400석 수준의 객석 운영 - 거북바위, 돌담 등 거창군 특화 자연 자원 및 생활양식 체험	
프린지참가작	· 장소: 수변무대 · 무대양식: 야외 가변형 수변무대 - 150석 수준의 가변형 객석 운영 - 물놀이 등의 체험요소 구축	
	· 장소: 거창군청 문화광장 · 무대양식: 길거리 무대 - 개방형 공간으로 공연팀과 관람객 간 물리적 경계 해소	

자료: 거창국제연극제 홈페이지(2023). https://www.kift.or.kr/bbs/page.php?hid=info_02

2.5 정주기반 유형

경상남도 남해독일마을

· 남해독일마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새로운 정주인구 확대와 관련한 사례로 과거 독일과의 교류를 통해 파견된 광부, 간호사의 한국 재이주 과정에서 형성된 정주형 마을임

- 1997년 남해군과 독일 북부도시 노드프리슬란트(Nordfriesland) 간 국제교류의 추진 과정에서 조국근대화 시기 파견된 광부 등 이주 국민이 한국으로의 재이주와 정착을 희망하면서 관 주도로 교포의 삶 터전을 제공하고자 거점 정주기반 마을을 조성함

경남 남해독일마을 요약

·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일대(A= 9만 80㎡ 상당)
- 2001년부터 조성을 시작해 조성 초기 파견 1세대 교포 40가구(45명)이 입주해 2020년 기준으로 44가구(77명) 거주 중
- 독일전통 양식의 가옥을 조성해 거주민에게 익숙한 삶을 제공하고 방문객에게 이국적 경험을 제공
- 거주민의 일상 외 입주민 주도로 독일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다양한 축제·이벤트 개최 중



자료: 독일마을·남해파독전시관 홈페이지(2023). https://www.namhae.go.kr/tour/

- 독일마을은 파독 교포의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을 주었으며, 동시에 한국과 독일 간 문화적인 교류의 기반 역할을 하는 새로운 관광자원을 구축한 지역 주도형 관광지 형성의 대표 사례임*

  - 조성 당시 약 170억 원의 재원이 투입되었으며(공공 76억 원, 민간투자 94억 원 등), 용지, 상·하수도 시설, 사회기반시설(도로 등)은 행정에서 추진하고 거주 공간 조성에 필요한 자재는 입주민이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조성함

  - 특히, 입주자 개인의 선호와 취향을 반영하면서 지역의 통일된 특색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주택의 설계 및 시공지침」 제시를 기준으로 일정 규모(2층 이하 등) 및 형식(지붕 기와사용 색상 특정 등)에 입각한 마을을 조성하도록 함

    * 전남 고흥군은 남해독일마을의 약 2배 이상 크기의 독일마을을 조성 추진 중(2023.09. 계획)

- 특히, 독일마을 내에는 독일문화를 경험·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와 축제·이벤트가 지속 개최되면서 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 현지 거주하는 새로운 정주인구 외에도 독일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수제맥주 브루어리 투어(양조장), 슈바인 학센·슈니첼 등 독일의 전통적 음식을 제공하는 카페 등을 조성하여 매해 다수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음

  - 더불어 세계 3대 축제인 독일의 옥토페스터(Octoberfest)를 모티브로 한 맥주, 소시지 및 퍼레이드 등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가 주를 이루는 '독일마을 맥주축제' 개최를 통해 축제 기간 약 5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에 성공하고 있음**

    * 2023년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재개최된 축제는 약 5만 36백명 방문(외국인 관광객 14백 명)

    ** 독일마을 맥주축제는 우리나라 대표적 지역축제로 여러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받고 있고 특히, 2023년 기준 방문객의 약 88% 높은 만족도 보유, 총 36% 방문객은 재방문 생활인구



독일마을 파독전시관

자료: 독일마을·남해파독전시관 홈페이지(2023)



독일마을 맥주축제

자료: 한국관광공사(2023). 대한민국 구석구석 축제편

서울과 강원 삼척시 간 공동 조성 예정인 '귀촌 신도시' [26]

- 지속적인 인구감소 문제로 유발된 지역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수도권 인구 공동화 현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특별시와 강원도 삼척시는 2023년 귀촌 신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함

  - 발표 당시, 서울시(시장 오세훈)와 강원도(지사 김진태) 간의 '골드시티 조성 업무협약' 내용은 은퇴 서울시민의 삼척 이주 기반을 마련 및 정주여건 개선 외 종합병원, 도서관 등 사회편의기반시설 조성 추진(안)이 포함됨

  - 일명 '귀촌 신도시'는 SH서울주택공사와 강원개발공사 간 협업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2028년 - 30년 입주를 목표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강원대학교 캠퍼스 인근 부지에 약 2천 - 3천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이 예정됨

- 퇴직한 베이비붐 세대의 지역 이주를 적극 독려해 지역사회와 밀접한 교류 기반을 구축하고 도시에서 벗어난 일상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 제고뿐 아니라 실제적인 지역소멸 위기 대응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임

귀촌 신도시 조성 방안 요약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강원대학교 캠퍼스 인근
- 부지 면적 30만㎡ 이상

· 추진목적
- 초고령화 시대 대비 수도권(서울)과 지방도시 간의 상생

· 추진방향
- 동해안 유명 관광지 인근의 장소 이점을 활용해 휴양형 거점마을 조성
- 은퇴 서울시민이 소유한 자가 매매 또는 신탁(SH공사) 등으로 삼청 거주 기반 마련
- 특히 종합병원 등을 조성해 입주민의 거주 편의 확대
  * SH공사 신탁 서울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임대 추진
- 향후 해외 교포, 외국인 유학생 등의 입주 허용



자료: 중앙일보(2023.11.09.)

고창 웰파크시티 [27]

- 서울·삼척 간 공동 추진 예정인 '귀촌 신도시'와 유사하게 전라북도 고창군에는 은퇴 시니어 대상 주거 복합단지인 '웰파크시티(Wellpark City)'가 조성되어 있음

  - 약 150만㎡ 부지에 조성된 웰파크시티는 은퇴자 및 프리시니어 대상 메티컬 기반 은퇴 마을로 주거시설 외 다양한 정주 편의시설 등을 조성해 은퇴 이후의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이주민의 지역 유입을 적극 독려함

- 특히, 웰파크시티는 은퇴자 대상의 거주마을 특성 상 시니어의 정주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복합적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도심을 벗어난 곳에서의 편안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함

  - 단지 내 준종합병원(석정웰파크병원) 및 석정온천, 파크골프장, 요가명상센터 등 건강 증진시설 및 마트, 은행 등 주거 편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은퇴 시니어의 건강한 삶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26] 중앙일보(2023.11.09.). 서울시민들 은퇴하면 삼척에 살어리랏다. "귀촌 신도시 건설", 최종석 기자.
[27] 브라보마이라이프(2023.11.21.) 도심보다 낮은 생활비 장점, 고창 은퇴자 마을 '웰파크시티', 손효정 기자

고창 웰파크시티 개요 요약

· 위치: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
- 부지 면적 약 150만㎡ 이상
· 주도기관
- 서울시니어스타원(국내 실버타운 점유율 1위 기업)
· 정주여건
- 보조금: 공간 규모별 차등
1억 6천 만원 - 3억 원 수준(66.84㎡ - 109.07㎡)
- 월 지출액: 1인 기준 50 - 85만 원 수준 예상
일반관리비(공용시설 유지비, 소모품비 등) 및 세대관리 비용(난방비, 상하수도 요금 등) 포함



자료: 브라보마이라이프(2023.11.21.)

고창 웰파크시티 주요 시설 요약

구분	설명	
석정온천 휴스파	- 1987년 개발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정 받은 게르마늄 성분 함유 온천 * 세계 최초 인정: 프랑스 루르드 샘물 - 다양한 스타일 및 체험형 시설인 스파, 사우나, 노천탕, 바데풀, 키즈풀 및 수영장 등 조성	
홀론온천 및 홀론면역파동욕장	-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게르마늄 성분 함유 온천으로 야외노천탕 등의 시설 운영 - 고창황토, 편백나무, 게르마늄 온천수를 이용한 휴양·힐링 욕장 운영	
힐링 황톳길	- 미네랄이 풍부한 고창황토 체험 둘레길 - 스트레스 및 통증 완화, 자세 교정 등의 효과 체험이 가능하도록 동선 구축	
석정 웰파크병원	- 준종합병원 - 게르마늄 온천 및 방장산 편백림 등 주변자원 활용 운동치료 및 자연치료 병행 - 대장 항문클리닉, 암 면역클리닉, 척추·관절 및 내과, 재활치료, 신경정신, 건강증진센터 등의 운영	

자료: 고귀앤웰니스 홈페이지(2023). https://www.coguianne.com/all/?idx=22

· 이러한 은퇴자 중심의 시니어타운은 특히 민간 주도로 해외 각국에서 활발하게 공급·운영 중이며, 미국 애리조나주의 선시티(Sun City) 사례가 대표적으로 꼽힘 [28]

- 애리조나 피닉스 근교에 조성된 여의도 13배 면적인 약 38㎢ 규모의 시니어타운으로 골프장, 원형극장 등의 편의시설 및 주거단지 내 약 4만 명의 노인인구가 체류함

- 일본은 국가적 인구감소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던 1980년대부터 유료 노인홈* 산업이 크게 확장되기 시작했으며, 사회복지정책의 지위가 매우 강한 독일은 시니어의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유형, 가사 보조형 및 요양원 형태 등 다양한 시설이 활발히 운영 중임

* 우리나라의 시니어타운과 같은 시설적 구성 및 서비스 제공

[28] 조선일보(2023.09.12.). 민간 주도 美, 시니어타운에 70만 명 거주, 애리조나 '선시티 유명', 신수지 기자

IV

전북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문화관광 진흥 전략

1. 기본구상 수립
2. 정책사업 제언

1. 기본구상 수립

- 본 연구는 지속적인 인구감소 문제로부터 유발된 전라북도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하는데 우선적 목적과 가치를 두고 있음

- 특히, 지금까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채택하였던 정주인구 확대 전략이 궁극적인 지역 간 소모적 경쟁, 즉 제로섬 게임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임

- 실제 근래 우리나라는 정주인구 확대의 전략에서 벗어나 지역과 높은 관계성을 지닌 이른바 생활인구의 확대가 지역소멸의 위기를 타개하는 주요한 수단과 도구란 인식에서 인구 이동성 개념이 적용된 생활인구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필요 개념으로 접목하기 시작함

- 따라서 전라북도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적 가치를 재창출할 목적에서 지역 연계형 생활인구 유입 기반을 확대하는 전략을 탐색하고자 하며, 특히 지역과 상호작용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된 문화·관광형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함

-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전라북도 생활인구 확대에 유효한 전략과 방향을 확인하고 필요 계획을 제시할 목적에서 전문가 집단과의 토론에 기반 한 방향성 탐색의 과정을 거침

- 이를 통해 지역이 직면한 인구 한계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차별적 전라북도 문화·관광 활성화 기반을 제시하고자 함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아이디어 구체화 과정 수립

- 문화·관광형 전략 기반 가시적이고 실제적 지역소멸 위기 대책 마련을 위해 지역 특성과 현황 이해가 높은 전문가를 비롯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관광정책 및 계획 수립에 특화된 경험을 지닌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산·학·연 연계 기반의 그룹을 우선 구성함

【 표 30 】 전문가 그룹 현황

연번	성명	소속	전문 분야
1	김○○	국책 연구기관 연구위원	관광자원개발
2	김○○	지역 연구기관 연구위원	관광콘텐츠 개발
3	정○○	지역 연구기관 연구위원	관광진흥전략
4	김○○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 교수	축제 및 이벤트
5	이○○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 교수	관광객 의사결정
6	이○○	지방 소재 국립대학교 교수	관광마케팅
7	장○○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교수	관광객행동
8	김○○	서울 소재 지역문화관광재단 전문위원	국가 관광정책 분석

- 문화·관광 트렌드에 대한 다차원적이며 다각적 시각을 지닌 전문가를 비롯해 지역의 맞춤화된 콘텐츠 전략을 수립하고자 실제 현장에서 체류형 관광콘텐츠를 기획·운영하고 있는 실무자 및 전문가(대학교수 등) 등 총 8인의 의견을 청취함

- 이를 토대로 전라북도 적용의 가능성을 높이면서 실제적 생활인구 확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반영하고자 함

전문가 의견 수집

- 대면 전문가 집단 토론의 과정 전, 현재 급변하는 다양한 문화·관광 트렌드에 대한 문헌조사 기반 생활인구 확대에 유효한 전략이 무엇인지 의견을 탐색하는 반구조화 설문을 실시하였고 특히, 현재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안과제의 적절성 및 타당성을 함께 조사해 개선 또는 신규 제언 정책의 방향을 개괄적으로 탐색함

- 이를 바탕으로 현안과제 기반의 신규 발굴 정책의 당위성을 수립하고 실효적 기대성과 평가를 토대로 논의 프레임을 1 도내 지역 간 연계, 2 도외 지역 간 연계, 3 자원 개발 및 콘텐츠 기획으로 구성하고 집단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함

- 브레인스토밍은 물리적 시간 제한 없이 특정 공간에서 모든 전문가가 모여 의견 교환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전라북도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유효하고 유의한 문화·관광 진흥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1 생활SOC 기반을 활용한 도내 시·군 간 인구 교류 확대

- 전라북도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의 문제로 지역소멸의 위기가 심각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정주인구 감소 문제 뿐 아니라 도외 지역으로부터 새로운 인구 유입이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됨

- 다만, 전문가 집단은 도내 시·군 간 교류의 측면에서도 일부 지역(전주시) 편중 현상으로 도내에서도 지역소멸 위기 수준이 상이함에 따라 우선적 전략으로 시·군 간 유효한 인구교류 기반 전략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전망함

의견 1

한국관광데이터랩에서 알 수 있듯이, 전라북도는 현재 도내에서도 시·군 간 유기적 인구 교류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특정 지역에 인구 과밀화 현상에 의한 기타 시·군의 급속한 소멸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도외 지역에서의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우선 도민 간의 원활한 교류 체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해 보임

의견 2

근래 동호인 스포츠 활동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운동경기 등을 위해 시·군을 넘나드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도내 스포츠 경기대회를 개최하면, 적극적인 인구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음

의견 3

전라북도 현황을 살펴보면, 이미 각 시·군에 생활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 조성된 기반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예산 투입의 측면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의견 4

실제로 동호인 테니스, 축구 등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동거리에 크게 구애 받지 않으므로 시군별로 분산된 인프라를 활용하는 스포츠관광 콘텐츠 기획은 교류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임

· 실제 생활스포츠는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는 유효한 효과가 있고 동호인 등 스포츠활동에 깊은 관여도를 가진 사람들의 이동성은 보편적인 사람 대비 그 범위가 크게 확장될 수 있으므로 관련 콘텐츠를 기획하는 것을 우선 고려함

❷ 일과 여가의 양립을 추구하는 문화를 활용한 도외 인구 유입 기반 확장

· 한편, 현대사회는 일과 개인의 삶의 질 간 균형을 중시하며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이후 재택근무가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워케이션 등과 같은 체류형 관광 콘텐츠의 소구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실제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워케이션 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과 높은 상호작용을 추구하는 생활인구 유입을 적극 독려 중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전문가 집단은 기 추진 중인 전라북도 워케이션 사업의 확장 필요성을 강조함

의견 1

강원도 양양은 지역의 자생력이 크게 무너진 시점에서 일하면서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워케이션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방문 인구의 큰 증가세를 목격함. 이러한 성과를 볼 때 현재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워케이션 사업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의견 2

전라북도는 풍부한 자연생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매력적 장소이기 때문에 '휴양과 웰니스' 측면에서 워케이션 거점화에 관한 사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이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임

· 이와 더불어 전문가 집단은 인구감소의 위기로 초래된 지역 일손 부족 문제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워킹홀리데이와 같은 일 경험 기회 제공이 오히려 청년층을 지역으로 이끄는 매력적인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도 함

의견 1

워케이션이 일·여가의 양립이라는 측면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 경험과 놀이 경험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 것도 생활인구 확대 관점에서 긍정적일 것으로 보임

의견 2

청년들이 해외로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이유는 일 경험과 함께 여행·관광경험을 얻기 위함이므로 국내에서도 일과 여행을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콘텐츠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음

의견 3

울릉도에서 '워킹홀리데이'라는 사업을 통해 청년인구의 지역 방문을 적극 유도한 사례를 볼 때, 전라북도 역시 특화된 경험 가치에 기반 한 시·군 맞춤형 사업 추진이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것임

·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고 지역의 실제적 여건을 감안해 지역 일손 부족문제의 해결과 청년층의 일 경험 기회 확대 측면의 콘텐츠를 기획하는 것을 실제적인 인구 유입과 체류시간 연장에 유효할 것으로 보고 관련된 정책을 탐색하고자 함

❸ 다양한 여행·관광트렌드를 접목한 흥미로운 콘텐츠 기획으로 방문객 수 확대 추구

·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은 매력적 여행·관광 콘텐츠를 기획·운영하고 있는 지역 사례를 기반으로 변화된 현대 여행·관광트렌드를 접목하는 콘텐츠도 생활인구의 지역 방문을 독려하는 요소로 간주함

· 특히, 반려동물 산업의 확장으로 관계된 전·후방 연관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반려인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관련 생활인구를 유치하는 자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의견 1

요즘 어느 곳을 가더라도 강아지, 고양이와 함께 시간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이러한 이유에서 반려동물 놀이터와 같은 자원이 있는 곳에는 늘 사람이 북적거리고 있는데, 다른 곳에 없는 차별화된 놀이시설이 있다면 방문 인구가 크게 확장되지 않을까 기대됨

의견 2

개인적으로 강아지를 키우는데 여행을 갈 때 강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을 우선 찾게 되고 강아지와 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터는 먼 곳이라도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음

의견 3

얼마 전 신문에서 전라북도가 반려동물 산업의 메카와 거점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본 것 같은데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해 반려동물 기반 여행·관광 콘텐츠를 육성하면, 지역 방문 인구 확대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재설계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음

· 한편, 전문가 집단은 은퇴자 등과 같은 액티브 시니어 대상의 콘텐츠 기획으로 이동성이 큰 생활인구 외에도 다양한 범주의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전략 필요성을 강조함

의견 1

지역소멸의 위기가 정주인구의 감소로 유발되기 때문에 새로운 정주인구를 유치하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은퇴자, 혹은 해외 이민자 중 국내로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마을 조성 등 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음

의견 2

남해의 독일인 마을도 결국 새로운 정주인구 집단이 형성되었다는 관점에서 전라북도에 은퇴자 마을을 조성하면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키고 유치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실제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과 체류시설을 조성해 은퇴 이후 삶을 지역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유사한 측면에서 시니어 교육관광 콘텐츠 등도 지역 간 인구교류에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업을 고려함

4 대규모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축제·이벤트 활성화 전략 수립

· 한편, 축제 및 이벤트는 짧은 체류시간에도 대규모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 수단 조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이어짐

의견 1

축제, 이벤트는 개최 기간 다수의 인구 유입을 독려하고 특히, 그들이 지역에 머무르며 소비하는 지출액은 기타 관광객 대비 그 수준이 매우 크기 때문에 차별적인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도 필요함

의견 2

전라북도는 예로부터 역사·문화·예술의 거점이라는 지역 브랜드 이미지도 있기도 하고 농악과 같은 전통적 예술 콘텐츠의 거점이므로 관련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단순 관람형 축제·이벤트가 아닌 체험형 음악축제 등의 콘텐츠를 기획하면, 관람객 뿐 아니라 산업 관계자 등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궁극적으로 전문가 집단 간 브레인스토밍 결과, 전라북도 맞춤형 특화 문화·관광진흥 전략을 수립해 다양한 생활인구의 지역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1] 스포츠 기반 지역 연계 전략 수립, [2] 일 경험과 관광체험 기회 확대 콘텐츠 구축, [3] 다양한 소비계층(액티브 시니어 및 MZ세대 등) 대상 매력적 체류관광 콘텐츠 마련 등을 우선 추진 전략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전라북도 지역소멸 위기의 실제적인 대응책으로써 시·군 간 연계와 지역 간 연계 및 관광객 체류시간 확대를 도모하는 문화·관광형 정책을 발굴·제언하고자 함



【그림 21】 전라북도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문화·관광 진흥전략 수립 방향 설정

2. 정책사업 제언

2.1 기반시설

반려동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

1) 사업배경 및 목적

-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약 1,500만 명에 이르고 관련 시장의 규모가 2022년 기준 약 8조 원을 넘어서는 등 반려동물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므로 관련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전략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함

- 특히, 전라북도는 반려동물 헬스·라이크 케어 특화도시를 표방하며, 관계 산업의 확장 및 확대 목적의 다양한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임에 따라 관련 R&D 지원 및 시설 집적화를 통한 반려동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음

  - 임실군은 반려동물지원센터 및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 등을 포함한 '세계명견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전략적 시책으로 진행 중이며, 익산시 역시 국내 최초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정성 평가센터 건립을 추진 중임

- 따라서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갖춘 도내 지자체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동반형 체험 복합문화관광 앵커시설*을 조성하고 전라북도를 반려동물 동반여행 거점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쇼핑, 놀이, 숙박 등을 복합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특히 반려동물의 이용 편의성 확대를 도모하는 반려인·반려동물 동반 체험시설

- 관광 및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한 특화 반려동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지역적 특성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반려동물 친화적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광콘텐츠 발굴 및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구분	내용
대상지역	전라북도 일원
사업기간	2024년 - 2027년 (3개년)
총사업비	11,750백만 원 (도비 4,750, 시비 7,000) * 부지매입비 별도
사업주체	전라북도, 14개 시·군

3) 기본컨셉 및 사업방향

- 반려동물 친화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적합한 도내 시·군을 선정(공모 등)하고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소통하고 여가생활을 소비할 수 있는 힐링 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함

- 전북만의 차별화된 거점형 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통해 관계 생활인구 유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함

4) 세부 사업내용

1 거점형 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 건립

도입시설(안)		내용
실내시설	웰컴센터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여가활동을 수용하는 복합시설
실외시설	반려동물 놀이터	어질리티장과 야외공연장으로 활용 가능한 다목적 놀이터 조성
	반려동물 글램핑장	글램핑장과 연계,대·중·소형견 전용 수용장(도그풀) 특화 조성
	애견카페 & 레스토랑	반려동물과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 조성 및 산책코스 배치

- 도내·외 거주 반려인 및 반려동물을 위한 놀이체험, 휴양여가, 문화교육 기능 중심의 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함
  - 반려동물 뷰티샵/호텔 및 전용쇼핑몰 등이 복합화된 웰컴센터 기반 진입부 조성
  - 반려동물 놀이터(어질리티 공간) 및 도그런(Dog-run), 풀(Dog-pool) 등의 반려동물 중심 공간 및 야외공연장 등의 개방형 공용공간(오픈스페이스) 조성
  - 반려동물 동반 숙박 캠핑장(방갈로 등) 조성을 통한 힐링 및 놀이공간 표방

‘전라남도 순천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 위치: 전라남도 순천시 역전길 50
· 면적/규모: 부지 3,104㎡, 연면적 2,689㎡ (지상 4층 규모)
- 조성비: 103억 6,100만 원(국비 12억, 도비 28억, 시비 63억 6,100만 원)
- 운영비: 3억 6,300만 원(수의사 1명 포함 총 7명 운영인력 구성)
· 시설: 동물병원, 실내놀이터, 체험학습실, 교육실, 입양상담실 등 구성

자료: 글로벌경제신문(2023.09.12.). https://bit.ly/3SH08ET

‘울산광역시 애니언파크’



·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산 15-8
· 면적/규모: 부지 13,000㎡, 연면적 1,998㎡ (지상 2층/지하 1층 규모)
- 조성비: 111억 3,900만 원(국비 22억, 시비 89억 3,900만 원)
- 운영비: 민간위탁운영(지역민 6명 포함 총 9명 운영인력 구성)
· 시설: 반려견 동반 놀이터, 물놀이장, 목욕실, 입양 홍보관, 카페 등 구성

자료: 애니언파크(2023). https://bit.ly/4bAjowF

2 반려동물 산업엑스포 개최

-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적 이해 확산과 반려동물 산업(펫푸드, 펫웨어, 펫케어 등) 육성을 위해 특화 자원에 기반을 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포함된 반려동물 산업엑스포를 추진함

-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로 인해 관련 산업의 육성과 확대를 목적으로 국내외 여러 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박람회 또는 엑스포를 개최 중임*

* 해외의 경우, '애완용품 박람회(영국 런던, 중국 북경, 홍콩)', '애견박람회(미국)', '인터펫박람회(일본)', '펫페어 아시아(중국 상하이)' 등을 매해 개최 중

** 국내의 경우, '국제반려동물산업박람회(부산광역시)', '세계애견산업엑스포(대전광역시)', '케이펫 페스티벌(인천광역시)', '펫서울(서울특별시)' 등을 개최 중

<table>
<tr><th>프로그램(안)</th><th>내용</th></tr>
<tr><td>주요행사</td><td>전라북도 반려동물 산업엑스포 체험형 프로그램(안)
<table>
<tr><th>프로그램(안)</th><th>내용</th></tr>
<tr><td>반려인 인플루언서 강연</td><td>반려인 인플루언서 강연 및 현장 Q&A</td></tr>
<tr><td>강아지 묘기</td><td>신나는 음악과 함께하는 강아지 묘기 및 프리스비 시범 공연 등</td></tr>
<tr><td>도그댄스</td><td>다양한 견종이 함께 어우러지는 도그댄스</td></tr>
<tr><td>반려동물 그리기 사생대회</td><td>반려동물과 함께한 행복한 순간을 주제로 어린이 사생대회</td></tr>
<tr><td>행사 참가자 기념품 증정</td><td>-</td></tr>
<tr><td>'구조부터 입양까지' 도전</td><td>반려동물 인식개선(구조, 보호, 훈련, 입양) 캠페인 스탬프 투어</td></tr>
</table></td></tr>
<tr><td>도민참여 프로그램</td><td>전라북도 도민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안)
<table>
<tr><th>프로그램(안)</th><th>내용</th></tr>
<tr><td>반려동물 바로알기 OX 퀴즈</td><td>반려동물 행동 건강관리, 정책 등 상식 퀴즈대회</td></tr>
<tr><td>반려동물 장기자랑 대회</td><td>다양한 장기를 뽐내는 '내 아이가 최고야' 경연대회</td></tr>
<tr><td>입양동물과의 만남</td><td>입양 가능한 반려동물(장애동물, 대형/소형동물 등)과의 만남</td></tr>
<tr><td>반려동물 놀이터 운영</td><td>터널, 계단, 외나무 다리 등 어질리티 장애물 체험 프로그램</td></tr>
<tr><td>포토존 운영</td><td>전문 사진작가의 즉석 사진 촬영 및 인화사진 제공</td></tr>
</table></td></tr>
<tr><td>부대행사</td><td>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독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안)
<table>
<tr><th>프로그램(안)</th><th>내용</th></tr>
<tr><td>유기동물 입양상담·홍보</td><td>예방접종, 미용 등이 완료된 유기동물 입양상담 및 입양문화 홍보
- 입양 가능 유기동물 사진 전시회
- 시·군 유기동물 구조 보호서 홍보 및 입양상담 프로그램</td></tr>
<tr><td>길 고양이 인식 개선</td><td>길 고양이 인식 개선 캠페인 홍보부스 운영</td></tr>
<tr><td>반려동물 건강·훈련상담</td><td>반려동물 건강 관리 프로그램 교육 및 훈련법 등 상담</td></tr>
<tr><td>펫티켓 캠페인</td><td>산책 시 목줄 채우기, 배설물 처리 등 펫티켓 독려 캠페인</td></tr>
<tr><td>플리마켓</td><td>지역 특화먹거리, 볼걸리, 즐길거리 중심 플리마켓 운영</td></tr>
</table></td></tr>
</table>

'2023 케이펫 페어(K·PET FAIR)'

· 개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수원, 울산

· 개최횟수: 2023년 기준, 26회(2022년 31회)

· 참가자 규모: 총 입장객 약 5만 5,213명(2022년 '메가주(MEGAZOO)')
- 당 박람회의 경우 608개 업체 참여(1,337개 부스 운영)

· 전시품목(산업)
- 푸드/헬스케어: 사료, 간식, 헬스케어(약품, 영양제, 비타민 등), 수의 상담
- 용품: 외출·놀이(장난감, 유모차, 산책용품 등), 목욕·미용(샴푸, 스파 욕조 및 미용기기 등), 위생·배변용품, 리빙·패션(의류, 악세사리, 하우스 등)
- 서비스/언론: 서비스(호텔, 카페, 장례, 보험 등), 언론·서적(전문서 등)

· 부대행사: 도그쇼, 어질리티 대회, 반려동물 등록행사, 무료 건강검진 등



자료: 케이펫페어(2023). https://bit.ly/3wswETH

3 반려동물 국가 공모사업 대응

· 문화체육관광부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지역 특화 발전전략 수립함

- 전라북도는 당 사업 '기초형' 선정을 목표로 1 반려동물 친화여행 콘텐츠 우수성 및 경쟁력, 2 교통, 숙박 등 관광수용력 및 개선계획, 3 지역사회 협력체계 및 전담기구 운영, 4 사업 지속가능한 확보 방안의 측면에서 도내 특화 지역을 선정하고 사업의 고도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공모사업' (2023년 기준)

사업목적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통해 신규 관광수요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추진방식	지자체의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 계획(4개년 계획) 공모·선정 전문가 컨설팅 기반 조성계획 구체화 및 연차별 사업 추진
지원대상	광역 및 기초 단위 지자체(자치구 단위 제외)
지원분야/규모	광역형(1개), 기초형(1개) 개소 당 5억 원 규모(국비 2.5억 원, 지방비 2.5억 원 + α)
지원기간	1년(매년 평가 기반 추가 3년)
지원내용	핵심 콘텐츠 개발·운영, 기본 수용태세 구축, 협력 거버넌스 기반 저변 확대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Best-Practive Model

· 선정도시: 2023년 기준, '울산광역시(광역형)', '태안군(기초형)'

- 울산광역시: '댕댕이랑 고래랑' 컨셉으로 반려동물 동반 고래바다 여행선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반려동물 친화관광시설 확충, 동반여행 전용 시티투어 코스 개발, 반려동물 종합안내센터 운영 등 추진
- 태안군: '건강하개, 행복하개' 컨셉으로 반려견 동반 해수욕장, 반려동물 동반 여행프로그램(도그+요가) 개발, 동반 가능 숙박시설 운영 지원, 동반여행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추진



자료: 한국관광공사(2023)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원,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지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전략을 수립함

- 전라북도는 당 사업의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세부사업 선정을 전략적으로 대응하도록 함
- 이를 위해 1 사업계획(반려동물 문화센터 또는 놀이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2 사업추진(건립 및 향후 지속적 시설 운영을 위한 조직, 예산 및 인력 확보계획 수립, 수익(수요) 분석 실시), 3 부지선정(사업부지 확보, 지역사회 민원사항 대책 수립), 4 시설

운영(조성 시설운영 및 활용계획, 지자체 지원 및 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고 공모에 대응함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지원 공모사업' (2023년 기준)

사업목적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건립 지원을 통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독려
사업내용	반려동물 체험학습장, 교육장, 입양센터, 놀이터 등 반려동물 문화복합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
지원내용	시설 설치비,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공원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 기반시설: 경관시설, 진입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편의시설 등 - 테마공원: 교육장, 입양센터, 산책로, 탐방로, 공연장, 생태공원 등 - 실시설계: 사업 시행계획 수립 등 문화센터 조성 관련
지원기준	사업지구 당 총 사업비 80억 원 기준 최대 40억 원 지원(국비 50% 매칭) - 시·군·구 당 1개 사업지구 지원(2019년 기준 4개소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지원 공모사업' (2023년 기준)

사업목적	안전하고 쾌적한 반려동물 놀이터(동물복지시설) 조성으로 반려동물 스트레스 해소 및 비 반려인과의 사회적 갈등 완화 촉진
사업내용	기존 공원, 하천부지, 공휴지 등을 활용한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목줄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 수 있는) 조성
지원내용	시설 설치비, 사업 시행계획 수립 등 - 기반시설: 놀이공간 펜스 등 설치, 놀이기구 설치(장애물, 풀장 등) 등 - 편의시설: 벤치, 파라솔, 파고라 등 차양·편의시설 - 기타시설: 관리사무소(반려동물 등록 여부 확인, 이용수칙 서약·안내무 교부 접수대), 청소도구, 소독장비·약품 구비 목적 창고시설, CCTV 및 조명 등
지원기준	1년 간 총 사업비 1억 원 기준 최대 30백만 원 지원(국비 30% 매칭) - 2019년 기준 10개소 선정

4 반려동물 관련 전라북도 조례 제·개정

· 전라북도 반려동물 동반 문화 확산 및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함

- 가칭 '반려동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제정으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 반려동물 연관 산업 콘텐츠 및 예비창업자 발굴·육성 지원, 반려동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박람회 유치 등의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함

* 『전라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4133호)』,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등 현행 조례에는 관련 산업의 육성 및 문화 조성을 위한 규정이 반영되지 못함

5) 소요예산

연차별 재원투자계획 | 반려동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계
1 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 건립	800	1,200	5,500	2,000	-	9,500
2 반려동물 산업엑스포 개최	250	250	250	250	750	1,750
3 반려동물 국가 공모사업 대응	150	80	60	60	150	500
4 반려동물 전라북도 조례 제·개정	-	-	-	-	-	-

주석: 건립비는 설계·감리 및 조사비, 공사비(기반시설, 건축, 조경 및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

6) 기대효과

· 반려동물 동반 여행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라북도를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육성·발전시켜 생활인구 유입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관광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기반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기대함

2.2 기반시설

브라보 마이 라이프 빌리지 조성

1) 사업배경 및 목적

- 2025년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65세 고령인구 비율은 약 20%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100세 시대를 맞이해 제2의 인생을 희망하는 은퇴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전 세계적으로 고령인구 증가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이며, 은퇴자를 비롯한 고령인구의 주거, 생활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공동주택 또는 마을 조성을 적극 추진 중임
- 이와 맞물려 정부는 지역 인구감소의 해결책으로 은퇴자, 시니어, 귀국 희망 이주자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 기반 생활거점 조성을 추진 중임
- 따라서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전북도 은퇴자, 시니어, 해외 이주자 외 귀농·귀촌 희망자의 인구유입과 정착을 통한 도모하는 이른바 '브라보 마이 라이프 빌리지 조성' 사업으로 지역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 실제 남원시는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 이주 희망 수요에 안정적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역활력타운 시범사업*에 선정됨

    * (선정지역) 강원 인제, 충북 괴산, 충남 예산, 전북 남원, 전남 담양, 경북 청도, 경남 거창
- 브라보 마이 라이프 빌리지 조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 규모 산정 및 지역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를 우선 마련하고 문화관광자원 연계 콘텐츠 개발 등의 특화정책 마련이 필요함

2) 사업개요

구분	내용
대상지역	전라북도 일원
사업기간	2024년 - 2028년 (5개년)
총사업비	12,250백만 원 (국비 6,125, 도비 2,450, 시군비 3,675)
사업주체	전라북도, 14개 시·군

3) 기본컨셉 및 사업방향

-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 복합 생활거점 조성을 통해 귀농·귀촌 희망 은퇴자, 시니어 및 해외 이주자 및 귀농·귀촌 희망자 등의 이주 정착 기반을 마련함
- 액티브 시니어 교류 프로그램 및 교류 지역·기업 유치 등 새로운 모델의 로컬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4) 세부 사업내용

1 브라보 마이 라이프 빌리지 조성

- 전원주택형 공공마을 조성 정책 제도화 및 귀농어·귀촌 관련 조례 재·개정을 추진함

- 공공주택 공급 지원제도 마련 및 시군 협력 기반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 귀농어·귀촌 초기 지원기간 등을 반영한 전북특별법 개정*

  * 귀농어인·귀촌인 안정적 정착으로 인구 유입 및 농촌 활력 유도하기 위해 전북특별법 내 귀농어·귀촌 활성화 특례(제66조)가 포함되었으나 귀농어·귀촌 초기 지원기간 등은 미 규정

- 귀농어·귀촌 청년의 유입을 독려하기 위한 농어촌 취업 및 창업, 정주여견, 능력개발, 생활 안정 추진 목적의 도 단위의 세부계획 및 지침 수립
- 귀농어·귀촌 활성화 특례 실행 이후 시·군 단위의 체계적 세부 실행계획서 수립

· 지방에서 노후생활을 보내는 것을 희망하는 은퇴자, 시니어, 해외 이주자 및 귀농·귀촌희망자 대상 주거·돌봄·일자리 등이 복합화된 공동거주마을을 조성함

- 돌봄(고령), 취·창업(은퇴), 체험(이민), 교육(귀농·귀촌) 등 다양한 테마 구성
- 여가문화, 교육, 돌봄, 의료, 교통 및 주거 등이 일상 생활권 내에서 종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물리적 기반 조성
- 지역의 주요시설, 서비스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하며 특성에 따라 주거, 생활인프라*·서비스** 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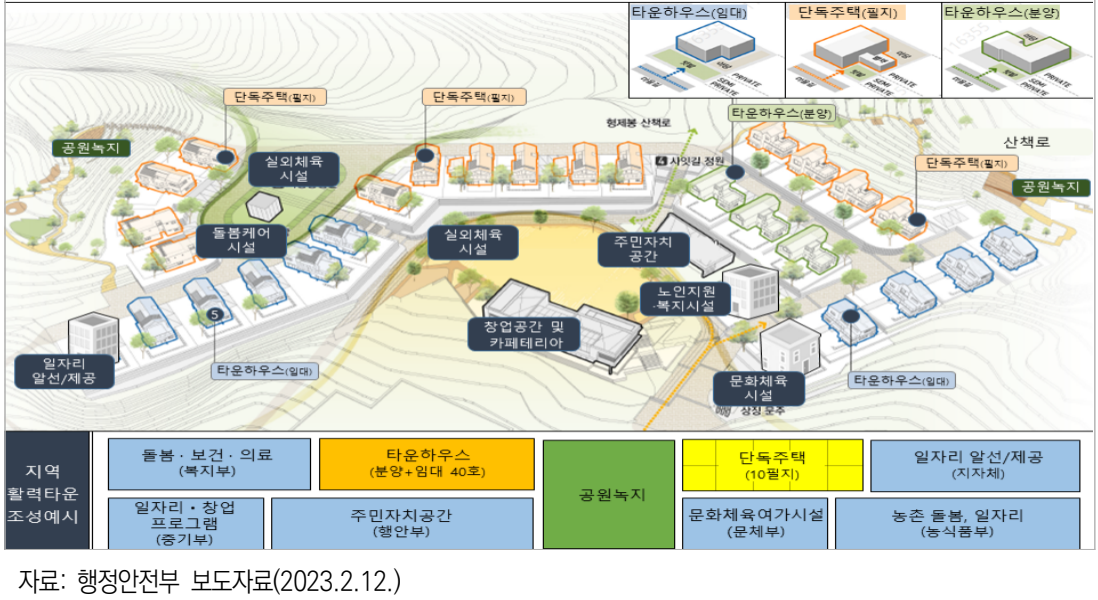
  * 지역 특성 및 수요별(지역주민+신규유입) 적정 규모(면적, 평형), 유형(매입, 분양), 입주대상 선정 등의 주거기반 마련 및 기존 생활 SOC 현황과 연계사업을 활용하는 생활인프라 기반 구축

  ** 거주지 인근 산업단지·기업, 관계 중앙부처·지자체의 지원사업과 연계한 취업 지원기반 마련 및 생활인프라를 활용한 돌봄·의료·요양서비스, 체육 서비스 등의 제공 방안 검토

‘지방소멸대응, 지역활력타운’

· 개요: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 지원 목적의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복합 주거단지 조성 사업
-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이주민의 지속 가능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돌봄·일자리·여가 등 필수 생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
- 다부처(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통합 공모사업으로 진행

  * 국토교통부: 공모절차 운영,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재생 사업 기반 안정적인 주거공급, 기반시설 구축 지원
  *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지역활력타운의 다양한 협력 사업 운영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체육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비도시 지역에 필수적인 농촌공동아이돌봄, 사회적농장 등 연계사업 제공
  * 보건복지부: 돌봄, 보건·의료 등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 등의 지원
  * 해양수산부: 어촌 지역활력타운 대상 숙박시설, 해양산책로 등 경제·생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사업 연계
  * 중소벤처기업부: 이주자 대상 지속적 직업 활동 지원 목적의 일자리 관련 연계사업 마련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3.2.12.)

‘전북 남원 지리산활력타운’

· 개요: 지역활력타운 시범사업
-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 마을,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건축, 유기체처럼 성장할 수 있는 마을 테마의 물리적 기반 조성
- 총사업비/면적 : 220억원/33,993㎡
- 입주대상 : 은퇴자, 귀농·귀촌자
- 주거시설 : 타운하우스 36호, 단독 32호, 타이니주택 10호
- 생활인프라 : 커뮤니티센터, 실내체육관



자료: 뉴스핌(2023.11.1.).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1101000817

2 액티브 시니어 교류 프로그램 운영

· 전북형 액티브 시니어 대상 교육체험 관광 콘텐츠를 기획·개발함
  - 지역 문화, 예술 및 일상체험형 교육관광 프로그램 운영
  - 지역 관광지 先경험 공유하기 프로그램으로 지역 애착 제고

· 세계 액티브 시니어 관광포럼을 개최하여 시니어 교육·교류 관광 거점화를 추진함
  - 해외 고령인구 지역 MOU 기반 추진 국가 간 시니어 교류 프로그램 운영

‘제1회 시니어 국제관광 포럼’

· 개요: 전 세계 시니어 계층 대상 관광목적지로서의 한국에 대한 인식 전환과 코로나 팬데믹 종식 이후 국제관광 재개를 위한 선제적 마케팅의 일환으로 개최
- 국내 업계 관계자 대상 방한 시니어관광 상품개발을 논의하는 기업 간 상담회 실시
- 포럼 연사, 패널리스트 및 해외 여행업계 관계자들이 서울, 강릉, 경주 일대 관광지를 둘러보는 팸투어 진행



자료: 스포츠조선(2021.10.26.). https://sports.chosun.com/life/2021-10-26/2021102701001838900012161?t=n1

3 전문인력 양성 및 교류지역·기업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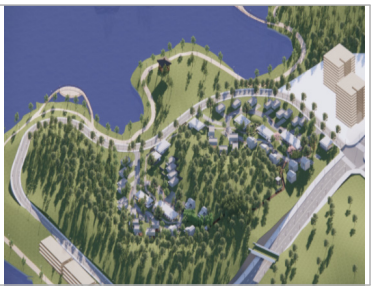
· 신중년의 은퇴 전·후 노후생활지원을 위해 전북문화관광재단과 연계한 전북형 시니어가이드 인력 양성 및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 과정을 운영함
  - 시니어 대상 지역문화 전문가 양성 과정 등 신중년 재교육 과정 운영
  - 신중년 대상 재교육 수요조사 및 전문가그룹 활용 신중년 교육과정 운영·수료증 발급
  - 재교육 이수자 대상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 국내·외 교류 지역 및 단체, 기업 유치를 기반으로 한 빌리지 운영으로 효율성을 강화함

‘경상북도, (가칭) 하회 과학자 마을’

· 개요: 은퇴 과학기술인의 연구, 강의, 창업생활 등을 융합 연구단지
- 사업규모: 총 사업비 400 억 원(조성부지 2만 8000㎡)

· 운영방식 및 지원혜택
- 은퇴 과학자 대상 연구 계획과 지역발전 방안 계획 심사로 50명 선발
- 2년 정도 주거 공간 제공 및 연간 4,000만 원 상당 연구비 지원
- 은퇴 과학자들은 대학과 연계한 강의, 기업·연구기관과 연구개발 수행



자료: 서울신문(2023.7.10).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3/07/10/20230710500059

- 국내(서울, 속초, 경북 등), 해외(플로리다 등) 은퇴자 마을 조성 지역 및 관계기관·단체(시니어교류협회) 간 업무 협약 추진

  * 속초의 경우 미국 필라델피아 한인식품인협회와 업무제휴협약서를 체결하며 미주 동포들의 국내 거주를 위한 은퇴자마을 조성을 추진

5) 소요예산

연차별 재원투자계획 | 브라보 마이 라이프 빌리 조성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계
1 브라보 마이 라이프 빌리지 조성	500	2,500	2,500	2,500	1,000	9,000
2 액티브 시니어 교류 프로그램 운영	200	200	500	200	200	1,300
3 전문인력 양성 및 교류자역·기업 유치	200	250	500	500	500	1,950

주석: 건립비는 설계·감리 및 조사비, 공사비(기반시설, 건축, 조경 및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

6) 기대효과

- 은퇴자, 시니어, 해외 이주자 및 귀농·귀촌 희망자 대상 공동거주 문화마을을 조성으로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결책으로 활용함

- 은퇴자 정주인구 확대 및 가족, 지인 등의 방문 증가에 따른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역 활력을 제고함

2.3 프로그램

전북 워케이션 브랜드 강화

1) 사업배경 및 목적

· 일(Work)과 휴양(Vacation)의 합성어인 워케이션은 근로자가 휴가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근무형태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이후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가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으며 수요가 크게 증가함

  - 실제 국내 사무직 근로자 중 68.2%가 워케이션 참여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해양 휴양지에 대한 선호가 높음(한국관광공사, 2021)

· 유럽, 미국, 일본 등지에서 노동유연성 및 워라밸 추구, 지방도시 재생 등을 목적으로 한 원격근무 정책을 보편적으로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2024년 1월 1일부터 해외 원격근무자 대상으로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시범 운영함

  - 네덜란드는 원격근무 도입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며 노동법을 통해 26주 이상 근속한 직원의 경우 근무 장소와 시간의 조정을 고용주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워케이션을 지방도시 재생과 연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장려하고 있으며 지역의 유휴시설을 통해 기업 위성사무실을 유치하고 있음

    * 일본의 워케이션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699억 엔이었으며 2025년에는 약 3,622억 엔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현재 전주시, 군산시, 부안군 및 무주군 등에서* 적극 추진 중인 시군 워케이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간 연계 교류 기반을 확대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함

  * 전북은 현재 전통문화형(전주), 산악휴양형(무주), 해양휴양형(군산·부안) 등의 사업을 운영 중

· 특히, 도농복합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체험형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등 지역 맞춤형 워케이션 사업 확대를 통해 농·생명 및 식품산업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워케이션 활성화는 관광산업 진흥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뿐 아니라 지역의 유휴공간 재생과 지역 커뮤니티 확산으로 지역소멸에 대한 적극적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함

2) 사업개요

구분	내용
대상지역	전라북도 일원
사업기간	2024년 - 2028년 (5개년)
총사업비	9,550백만 원 (국비 4,000, 도비 1,000, 시비 3,000, 기타 1,550) * 부지매입비 별도
사업주체	전라북도, 14개 시·군

3) 기본컨셉 및 사업방향

· 전라북도 워케이션 종합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시군 간 사업 및 참가자 연계 교류 활성화 기반 마련과 워케이션 시설 및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함

· 웰니스관광, 농촌형 워케이션 모델 개발, 문화산업진흥지구 특례 등과 연계된 지역 특화 관광 및 문화자원을 활용해 방문자 체류시간 연장을 도모함

4) 세부 사업내용

❶ 전북 워케이션 통합운영 거점센터 조성

도입시설(안)		내용
업무시설	워크스페이스	1인용 프라이빗 업무공간 및 오픈형 업무공간
	미팅룸	비디오 컨퍼런싱 시스템 구축으로 단체 및 화상회의 진행 기반시설
	폰부스	소수 인원이 전화통화나 음성/영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
부대시설	라운지	원데이클래스 등 워케이션 참여자 네트워킹
	미니바	식음료시설 및 락커 등 편의시설

· 지역 내 유휴공간 및 시설의 공간 재생을 통하여 리모트워크 업무 관련 인프라를 개선함

- 워케이션 운영 거점 및 운영지원 시설 조성을 통하여 워케이션 접근성 향상
- 비디오 컨퍼런싱 시스템 구축, 워크스페이스, 회의실, 교육장 등의 조성으로 안정적인 업무공간 확보
- 카페, 식당 및 문화시설 등이 복합된 문화공간 조성으로 일·휴식의 균형 도모

· 통합 운영 거점센터 조성으로 권역별로 원활한 원격 교류근무 인프라 개선 도모 및 참가자의 확대 유입을 독려하고 관계 프로그램 예약·홍보·지원 네트워킹 기반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함

- 시군별 차별화된 업무공간 및 체류공간 확충, 홍보 채널 운영으로 워케이션 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

· 위치: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14번길 7-8 아스티호텔 (24층 활용)
· 면적/규모: 전용면적 708㎡
–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60억 원) 활용 거점센터·위성센터 조성
· 운영주체: (재)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 주요시설: 업무공간(50석), 회의실 및 이벤트라운지 등 편의시설
· 거점센터 외에 4개의 워케이션 위성센터 운영을 통해 접근성 강화



자료: 부산워케이션센터(2023). https://www.busaness.com/introduce

❷ 워케이션 생태계 구축 기반 조성

·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해 국내·외 기업 대상으로 워케이션 목적지 지정 유치를 도모함

- 농생명, 식품산업, 바이오 등 전북 특화 산업자원 연계 기업 대상 워케이션 유치 및 파트너십 체결*

* 특례 추진 중인 농생명산업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해 관계된 워케이션 유치 기업과 지역 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 도모

· 국내·외 프랜차이즈 기업 근로자 분산 근무제도 지역 유치를 통해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함

- 근로자의 업무 효율 증대를 위하여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거점오피스* 도입 추세

*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워케이션 제도의 활성화로 인해 차츰 지방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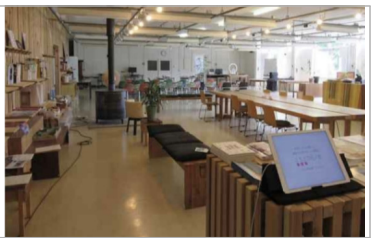
‘삼성전자 거점오피스 ‘딜라이트’’



· 개요: 삼성전자는 Work From Anywhere 정책의 일환으로 사내·외 유연근무공간 마련
- 사외 거점오피스 2개소(서울 서초사옥, 대구 ABL타워) 운영 및 사업장 내 자율근무존 4개소로 운영
- 수원(디지털시티), 서울(서울R&D캠퍼스), 구미(스마트시티), 광주(그린시티) 등 자율근무존 개소·운영

자료: 메트로신문(2023.11.14.).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31114500429

‘도쿠시마현의 위성사무실 유치를 통한 지역재생’



· 개요: 일본의 소도시인 도쿠시마현은 ICT 기업의 위성사무소를 유치해 지역재생 및 인구유입 도모
- 폐전통가옥 등 빈집과 유휴시설을 기업에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해 일과 삶이 공존하는 공간 구현
- 2020년 기준, 도쿠시마현 전역에 약 65개 기업의 위성사무소 운영 중

자료: 메트로신문(2023.11.14.).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31114500429

· 파트너십 체결 기업 워케이션 근로자의 편의 기반 구축 및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함
  - 워케이션 근로자 체류 편의 기반조성 및 기업 특화프로그램 제공 등 전방위적인 지원
  - 농촌 내 유휴공간을 기업에게 제공해 기업의 위성사무소나 직원복지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인

3 워케이션 전용 체험프로그램 운영

· 전북투어패스, 디지털 관광주민증 등의 사업과 연계한 워케이션 전용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함
  - 워케이션 유형에 따라 기업형(팀 단위 참가), 개인형(디지털노마드), 가족참여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수요를 충족하는 관광콘텐츠 및 코스 기획·제공*
    *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투어패스 72시간 이용권을 전북 전 지역으로 확대·운영하며, 기간 역시 워케이션 참여 전 시간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혜택 강화
  - 워케이션 근로자의 지역상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숙박시설, 대중교통 및 음식점 등 시설 이용 할인 바우처 제공
  - 전북투어패스 시설 등 주요 문화·관광자원 및 시군별 워케이션 시설이 함께 표기된 맵 제작으로 사용자 이용 및 접근 편의 강화
  -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 대상, 해당 지역에 대한 추가 관광 혜택 및 지역 특화 체험 프로그램 제공

· 지역 특색 기반 차별화된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워케이션 전용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함*
  * 현재 전북의 가장 큰 매력인 농촌체험형 프로그램이 미운영으로 농촌형 워케이션 모델 개발 필요

‘서울농장 농촌힐링 워케이션’



· 개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농촌체험 및 지역 상생교류 플랫폼 운영
- 2020년(1기) 경북 상주, 충북 괴산, 전남 영암 등 3개소 개장
- 2022년(2기) 강원 영월, 충남 부여, 경남 남해 등 3개소 개장

· 프로그램
- 공유오피스 운영 및 원데이클래스, 농촌체험, 액티비티 및 지역체험 등 다양한 지역활동 체험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5) 소요예산

연차별 재원투자계획 | 전북 워케이션 브랜드 이미지 강화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계
1 워케이션 통합운영 거점센터 조성	-	3,000	3,000	-	-	6,000
2 워케이션 생태계 구축 기반 조성	500	700	650	500	500	2,850
3 워케이션 전용 체험프로그램 운영	100	200	200	100	100	700

6) 기대효과

· 근로자의 지역 체류시간 확장으로 지역 인구유입 증가 효과와 함께 지역 및 커뮤니티 간 관계 형성으로 지역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며, 중·장기적으로 지역관광 체험 기회 확장으로 지역관광 경쟁력 제고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2.4 프로그램

체험형 문화예술공연 국제 축제 개최

1) 사업배경 및 목적

- 문화예술공연 및 체험형 축제 활성화는 국내 및 해외 전통문화 예술가 지역 유입에 기여하며, 국제적 문화교류 기반 확대, 대규모 인구 유입 및 체류시간 연장 등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기대할 수 있는 매력적 전략임

- 전라북도의 경우, 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및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등 다양한 매력적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자연, 전통문화 및 예술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대규모 방문객 유치 기반 조성에 강점을 지님

  - 전북에는 고인돌 유적(고창, 2002), 백제역사유적지구(익산, 2015), 한국의 서원(정읍 무성서원, 2019), 한국의 갯벌(고창 갯벌, 2021)* 및 가야고분군(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2022) 등 다수의 세계유산이 위치하고 있음

    * 한국의 갯벌은 2007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14년 만에 등재되는 국내 두 번째 세계자연유산으로 전 세계 약 210곳만 지정

  - 또한, 판소리 동편제(단독등재, 전라북도 일대, 2003), 매사냥(전국, 2010)* 및 농악(전국, 2014) 등과 같은 무형문화유산의 종류도 다양함**

    * 진안군에 매사냥 홍보관 및 한국민속매사냥 보존회가 위치해 있으며 전통 매사냥의 명맥을 잇고 있는 박정오 응사 등이 매년 지속적으로 매사냥 시연 실시

    ** 임실군에 임실 필봉문화촌(임실필봉농악 전수관)이 위치해 있으며, 매년 '농악'을 중심으로 국내외 다양한 무형유산을 초청, 문화적 다양성과 호혜의 의미를 찾는 임실 '필봉마을굿 축제' 개최 중

  - 더불어 전북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2018년 지정), 서해안 일대 지역의 세계지질공원(2023년 지정)* 및 음식 부문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로 지정된 전주(2012년 지정)** 등 다수의 문화·역사자원을 보유한 매력적 장소임

    * 해안형 세계지질공원이 인증 받은 국내 첫 사례로 고창 명사십리, 부안 채석강,고창 갯벌 등 지질명소 32곳 포함

    ** 유네스코(UNESCO)가 문화 다양성을 위한 국제연대사업의 일환으로 문학·음악·민속공예·디자인·영화·미디어·음식 등 7개 분야에서 뛰어난 창의성으로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의 도시 중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사업으로 전 세계 93개국 295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으며, 국내는 11개 도시(서울, 이천, 진주, 김해, 전주, 광주, 부산, 통영, 대구, 부천, 원주)가 가입

- 다만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매력적 콘텐츠 발굴하지 못하고 등재 사실 홍보를 통한 외부인 유입만을 독려하고 있어 장기적인 안목에 기반을 두고 세계유산자원을 활용하는 국제적인 공연·예술·문화축제 발굴·개최하는 것이 필요함

2) 사업개요

구분	내용
대상지역	전라북도 일원
사업기간	2024년 - 2028년 (5개년)
총사업비	13,867백만 원 (국비 6,933, 도비 2,773, 시군비 4,161)
사업주체	전라북도, 6개 시·군(전주, 익산, 정읍, 진안, 임실, 고창)

3) 기본컨셉 및 사업방향

- 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등의 지역 소재 세계유산자원을 활용해 문화유산 향유기회 및 국제 문화자원 교류 기반을 확대함

- 도내, 국내 및 해외 예술가, 단체 초청 문화예술형 공연 축제를 개최하여 규모 인구 유입 및 체류시간 연장, 지역관광 경쟁력 제고를 도모함

4) 세부 사업내용

❶ 유네스코 세계유산 페스티벌 개최

- 전주세계소리축제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페스티벌 개최를 추진, 거리공연·참여형 문화예술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대규모 융복합 축제를 활성화함
  - 전주세계소리축제 연계 기반 디지털 콘텐츠, AI 등이 융합된 축제 운영
  - 국내·외 전통음악 거리 퍼레이드, 세계 무형문화재(음악, 춤) 거리 콘서트 개최
  - 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 기념관,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등 지역의 세계유산과 관련된 장소에서 '전라북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연합 페스티벌' 동시 개최
- 관람객 참여형 문화예술 체험, 교육, 관람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
  - 시군별 전통음악(농악, 판소리 등) 체험 및 일일 교육프로그램 운영 개최
  - 거리공연, 거리극 등 관람객 상호작용 가능한 예술공연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함께 걷는 길풍류 임실삼락'

· 개요: 임실의 대표적 문화 관광지 사선대의 선녀이야기 및 임실 치즈, 농악을 주제로 한 연희 퍼레이드
– 임실의 사회, 환경 및 문화적 특징인 '숨쉬는 치즈 맛'과 '청정자연 환경 사선대와 옥정호 멋' 및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공동체문화의 꽃, 필봉농악 흥'을 소재로 임실만의 특화된 노상놀이를 차별화된 문화관광형 프로그램 구현



자료: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내부자료(2023)

- 야간관광 콘텐츠 보강 및 체계적 홍보·마케팅을 기반으로 야간관광 브랜드 구축을 추진하여 관광객 체류시간 확대, 야간 일자리 창출, 내·외국인 관광객 소비지출 확대를 진작함
  - 전주시 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과 연계해 밤마실, 공원 트래킹, 도보 투어, 유네스코 세계유산 체험 등 참여·체험형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을 확대 운영함*

    * 문체부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및 국가 관광육성 정책과 연계한 사업으로 국비 확보 또는 부서 예산(지방소멸기금 등)을 활용하여 야간관광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

    ** 거리공연, 거리극 등 관람객 상호작용 가능한 야간 예술공연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관람형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확대 추진
  - 유네스코 세계유산 콘텐츠와 ICT 기술(LED조명, 프로젝션맵핑 등) 활용 인터랙티브 야외 관람형 미디어아트 제작 등 야간 경관명소 구축 사업 실시
  - 맞춤형 야간 쇼핑 환경 조성 및 안내서비스 제공 등 야간관광 여건 개선*

    * 『전북특별법(야간관광산업의 육성 특례 제46조)』에 입각해 야간관광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개발 및 홍보, 공동 마케팅·홍보·관광객 유치 확대 등 전북 특화형 야간관광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

‘ 전주시 야간관광 특화도시 ’

· 개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 '2023년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사업' 공모 선정으로 통합적 야간관광 정책 및 체계 구축 추진

- 지역 청년과 주민공동체 연계 한옥마을에 집중된 관광의 외연을 확장 및 야간관광 선도 도모
- 야간관광 콘텐츠('365 전야 시네마극장'과 '덕진 빛의공원 프로젝트' 등의 상설 콘텐츠와 '팔복 프리덤 나잇' 등 비상설 콘텐츠), 야간 경관명소(야경 랜드마크 및 야간 조망명소 조성), 야간관광 여건개선(맞춤형 야간 쇼핑 환경 조성 및 안내서비스 제공, 이동편의 개선, 야간관광 마케팅, 야간관광 산업 육성)의 세 가지 유형의 사업 추진



자료: 뉴스핌(2023.2.28).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228000860

2 페스티벌 운영 기반 구축

· 페스티벌 정기 개최 및 운영 목적 정책·제도적 지원 기반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함

- 가칭『유네스코 세계유산 페스티벌 지원에 관한 조례』등 제정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페스티벌 운영을 위한 운영 조직 구성, 실시계획 수립 등의 사업 추진 기반 마련
- 세계유산 등재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6개 시·군(전주, 익산, 정읍, 진안, 임실, 고창)이 참여하는 합동 페스티벌 추진·기획 협의체 구성

· 유네스코 세계유산 페스티벌 운영 조직 구성 및 실시계획 수립 등을 추진함

- 국내·외 무형문화재(음악, 춤) 예술가 유치, 축제 홍보·마케팅 운영 계획 수립
- 시군별 분산 개최 목적 지역 간 관람객 이동 연계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지원 등

3 세계유산 페스티벌 관람객 지원제도

· 전북투어패스,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 등의 연계 기반 페스티벌 참여자 체류관광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

- ‘전북투어패스 전북자치도 유네스코 등재유산편’ 여행 테마를 설정하여 도내 유네스코

등재유산에 대한 정보 및 순례코스를 제공, 할인 및 이벤트 프로모션을 실시해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홍보 및 관광객 유치 도모

- 전북투어패스 관광지과 도내 유네스코 등재유산 연계 관광 상품 개발·보급*

  * 예시: 전주한옥마을 등 관광지 할인 + 유네스코 등재유산 남원판소리 체험(이리, 필봉농악)
  전주한옥마을 등 관광지 할인 + 유네스코 등재유산 미륵사지석탑 복원 견학 체험)
  전주한옥마을 등 관광지 할인 +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운곡람사르습지 탐방
  전주한옥마을 등 관광지 할인 + 진안 매사냥 체험

- 디지털 관광주민증* 연계 도내 문화예술 프로그램 이용 등의 편의 지원제도 구축

  * 현재 고창군, 남원시만 디지털 관광주민증 제도를 운영 중임에 따라 디지털 관광주민증 제도 운영 지자체를 익산, 정읍, 진안, 임실 권역까지 확대해 지역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혜택 제공 추진

5) 소요예산

연차별 재원투자계획 | 체험형 문화예술공연 국제 축제 개최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계
1 유네스코 세계유산 페스티벌 개최	3,000	3,817	2,000	2,000	2,000	12,817
2 페스티벌 운영 기반 구축	100	200	100	100	100	600
3 세계유산 페스티벌 관람객 지원제도	50	100	100	100	100	450

6) 기대효과

- 세계유산을 활용한 새로운 지역 보유자원의 가치 창출로 도민들의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와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의식을 함양함

- 국제 문화자원 교류 기반을 확대하여 대규모 인구 유입 및 체류시간 연장, 지역관광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함

2.5 프로그램

전북형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운영

1) 사업배경 및 목적

· 전국적인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나타난 전북의 청년 일손 부족 문제는 지역경제 기반 약화와 맞물려 지역의 생존권과 자생력을 크게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 간주됨

  - 2020년~2023년까지 최근 4년간 전북에서 총 33,319명의 청년 인구(20세 ~ 39세)가 다른 시도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 매년 약 8천 명의 청년이 전북을 떠나고 있음

    * 전북의 주력산업 중 하나인 농업의 경우 농가인구 18만 3,295명 중 청년인구는 9,884명으로 약 5%에 불과하지만, 고령인구는 절반에 육박해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심화 중

· 워킹홀리데이는 청년의 지역 유입을 촉진해 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서의 일 경험과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장래 지역 이주자 창출에 기여하기에 장기적으로 정주인구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임

  -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전북지역을 탐색하고, 지역 산업에 대한 선 경험을 통해 지식과 기술, 실무능력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데 크게 기여함

· 특히, 생활관광에 대한 선호 및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지역 일상을 체험하면서 관광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는 지역 인구 유입 전략에 있어 매력적 콘텐츠임

· 더욱이 전북은 『특별자치도 특례』를 통해 외국인 유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어 관광 연계 기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 유입을 독려하는 것은 효과적인 전략이 됨

2) 사업개요

구분	내용
대상지역	전라북도 일원
사업기간	2024년 - 2028년 (4개년)
총사업비	2,570백만 원 (국비 500, 도비 500, 시비 1,000, 기타 570)
사업주체	전라북도, 14개 시·군

3) 기본컨셉 및 사업방향

· 지역의 차별적인 생활 체험의 기회와 지역관광 향유 경험를 통해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도모하며 동시에 지역의 관광매력도를 증진하는 전략적 방향을 고려함

· 특히, 청년, 중장년 등 참가자의 생애주기와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운영으로 적극적인 생활인구 유입 기반을 구축함

4) 세부 사업내용

1 전북형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운영

· 도내 시군 간 일손 유치 과열 경쟁 방지와 참가자의 다양한 체험 가치 제공을 위한 협업 과정

으로 시군별 특화·차별적 체험형 일자리 및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함

- 단순 농가체험 또는 지역관광 위주의 프로그램이 아닌 시군별 특화 산업 기반 체험형 일자리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 전북투어패스 등을 활용한 시군 간 연계 관광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여 워홀러의 도내 지역관광 향유 극대화

‘2023 울릉 워킹홀리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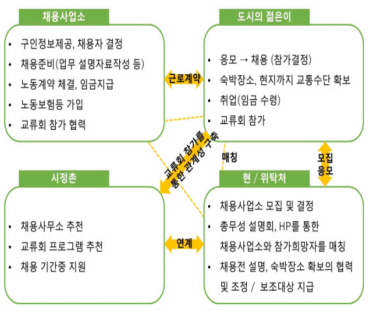
· 개요: 경상북도에서 최초 도입된 사업
- 울릉군 지역 내 청·장년층 인구감소, 노령화 문제로 발생된 인력부족 문제 해결의 대안책으로 시행
- 궁극적인 지역 내 일손 부족문제 해결 및 울릉도 문화·생활체험 기회 제공으로 지역 이주 독려 차원의 사업
- 관광성수기 동안 관광업체(숙박, 요식업, 여행사 등) 대상 운영
- 청년(20세 이상 30세 이하) 또는 중·장년(50세 이상 65세 이하) 대상으로 약 45명 참가

· 근무조건 및 프로그램
- 근무조건 준수 및 만기 근무자 대상 약 80만 원 인센티브 지급
- 울릉도 및 독도탐방 등 해설사 동반 울릉도 여행 기회 제공



‘일본 ‘후루사토(고향) 워킹홀리데이’’

· 개요: 도시 청년 대상 휴학/휴가기간의 지방 일자리 경험 프로그램
- 인구감소 지역 내 청년층의 지역 활동 활성화 도모 사업
- 지역에서 일·생활을 경험하는 ‘관계인구’로 중장기적 미래에 지역으로 이주 및 정주 독려 목적으로 운영
- 특히, 오키나와현은 코로나 이후 워킹홀리데이를 응용해 ‘부모 아이 워케이션’을 기획·운영해 지역 내 인구 선순환 효과 창출
- 2017년~2022년까지 6년간 약 3,800명이 참가해 체험자의 약 2.3% 실제 정주 효과 창출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2)

· 도내 빈집과 유휴공간을 활용해 참가자 정주(체류) 기반을 마련하며, 동시에 일상 체험을 지원하는 농가민박 프로젝트로 확장해 추진함

-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워킹홀리데이 참여기간 동안 체류 지원 기반 마련
- 방치 경작지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농가 일상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농산물 경작 등의 체험프로그램 기반 치유·휴식 콘텐츠 개발 및 운영

❷ 전북 일자리 바로 알기 박람회 개최

프로그램(안)	내용
전북형 워킹홀리데이 설명회	시군별 특화 산업 체험형 일자리 및 관광프로그램 홍보
채용관	도내 기업 현장면접 및 채용, 이력서 접수 대행 등
일자리 홍보관	도내 공공기관 및 유수기업 일자리 홍보
취업 컨설팅	이력서 첨삭 및 면접 실무교육 등 취업 컨설팅
기타 부대행사	이력서 사진촬영, 이미지컨설팅, 취업특강 등

· 전북 워킹홀리데이 참여 프로그램 홍보 및 일손 유치

- 전북형 워킹홀리데이 홍보 채널 개설을 통한 체험형 일자리 및 관광프로그램 등 홍보
- 해외 홍보자료 제작을 통한 외국인 대상 워킹홀리데이 참여 독려

· 구인·구직자 대상 도내 기업 취업 연계 프로그램 및 취업 컨설팅

- 도내 유수 기업 현장 면접 및 채용프로그램 운영, 지역 기업 일자리 홍보관 운영 등

3 전북형 워킹홀리데이 지원 기반 구축

· 지역 소재 대학교와 연계한 워킹홀리데이 장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전공과 연계된 일자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사제도 개편 및 프로그램 신설 운영 협력
- 지역 특화 및 주력산업 연계 체험 일자리 개발 및 일·생활 체험 기반 마련*

  *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농생명산업지구 등의 특례 기반 추진 사업지구 연계 기반 마련 및 농생명산업, 식품산업, 바이오산업 등 지역 주력산업 연계

- 참가자 장학금 지원제도 운영 기반 마련*

  * 등록금 일부 지원, 급여 제공 등 장학금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등의 추진

‘전북 청년·대학생 농어촌 워킹홀리데이’

· 개요: 지역 청년·대학생 대상 농어촌의 다양한 일자리 이해·체험 및 경험 기회 제공을 통한 농촌지역 취·창업 독려 프로그램
- 지역 청년인구 유출에 따른 농촌지역 쇠락 문제, 고령화 문제 대안책

· 운영주체: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

· 프로그램
- 농업·농촌 가치 및 농촌지역 산업과 일자리 이해 교육
- 단기간 농어촌 경영체 근무 기반 일 경험 프로그램 운영

· 모집대상 및 활동기간
- 전라북도 거주 청년(만 39세 이하) 또는 도내 대학 재학 중 학생



자료: 전북도민일보(2022.06.26.)

· 전북형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대상 지역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제도·기반 마련

- 지역 내 기업 취업 시 정착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제도 구축
- 도내 취·창업 희망자 대상 컨설팅 등

5) 소요예산

연차별 재원투자계획 | 전북형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운영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계
1 전북형 워킹홀리데이 운영	50	150	150	150	150	650
2 전북 일자리 박람회 개최	250	250	250	250	250	1,250
3 전북형 워킹홀리데이 기반 구축	100	120	150	150	150	670

6) 기대효과

· 지역 기업,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한 일자리 홍보 및 유치 사업을 통한 인구유입과 지역에서의 생활 및 일 경험으로 토대로 형성된 지역의 긍정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중장기적인 정주인구 유입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함

2.6 프로그램

프로스포츠 연계 체류형 관광 생태계 조성사업

1) 사업배경 및 목적

- 프로스포츠는 스포츠용품업, 시설업 외에도 관람객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과의 높은 연계성으로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크며, 지역 연고에 기반을 두고 운영됨에 따라 매우 강한 지역 밀착성을 갖고 도시 브랜드 강화, 지역관광 발전에 이점이 있음
  - 스포츠 경기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선수, 팀 관계자, 언론매체, 스폰서 등) 뿐 아니라 관람객과 지역민의 도시 유입 마중물로써 체류형 관광 실현의 전략적 산업이기도 함
- 전라북도는 전주시 연고 프로축구 구단(전북현대모터스, 1994년 - 현재)으로 많은 관람객의 도내 유입 경험이 있어* 프로스포츠 기반 생활인구 유입 전략 수립에 충분한 경쟁력과 매력을 지니고 있지만, 현재 여건은 그에 따른 큰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다소 부족함
  - 현재 전북은 단일 프로스포츠 구단만 유치하고 있어 유입된 관람객의 체류시간 확장에 따른 경제적 낙수효과가 미미해* 체류형 관광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2023년 기준, 전북현대모터스는 소속 K1리그 프로축구단(12개 구단) 중 평균관중 수 전체 1위(총 23만 8,759명, 평균관중 1만 2,566명) 기록 [29]

    ** 전북은 프로야구(쌍방울레이더스, 1991년 - 1999년), 프로농구(KCC이지스, 2001년 - 2023년) 등 다양한 프로스포츠 구단이 연고지로 삼았으나, 현재는 프로축구단 1개가 유일한 연고 구단
- 따라서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e스포츠 프로화와 지역 연고제 도입 법제화 추진 상황을 고려해 관련 스포츠를 활용한 생활인구 범위 확장을 고려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음
  - 최근 개최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정식 종목인 e스포츠는 청년층 및 일반 대중에의 높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고, 디지털 비즈니스, 문화·관광산업과 큰 밀접성이 있어 지역 생활인구 유입 확대와 지역 활력 증진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음
- 새로운 프로스포츠 구단(e스포츠)의 지역 연고 유치와 현재의 프로스포츠(프로축구)를 적극 활용한 지역 관광상품 개발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새로운 관계 산업(게임산업) 연계 지역소멸 대응 선도모델 전략 수립으로 지역 생활인구 선순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구분	내용
대상지역	전라북도 일원
사업기간	2024년 - 2028년 (5개년)
총사업비	11,200백만 원 (국비 3,000, 도비 2,000, 시비 5,000, 기타 1,200) * 부지매입비 별도
사업주체	전라북도, 14개 시·군

3) 기본컨셉 및 사업방향

- 지역 연고 프로스포츠와 연계한 특화 스포츠관광 상품 개발로 스포츠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생활인구 유입 확대 기반을 구축하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통핸 지역 신성장 동력을 확보함

[29] 프로스포츠 정보광장(2023). data.prosports.or.kr

· e스포츠 선도도시 브랜드화를 목적으로 관련 인프라 조성과 진흥사업을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로 지역소멸 위기 대응의 적극적 대책을 마련함

4) 세부 사업내용

1 e스포츠 상설 경기장 조성

도입시설(안)		내용
핵심시설	주경기장	e스포츠 대회와 각종 문화행사 및 공연 개최가 가능한 다목적시설
	보조경기장	e스포츠 대회/교육, R&D 연구를 위한 훈련/경기장 시설
부대시설	선수대기실	선수들의 휴식, 연습 및 회의 등을 위한 시설
	미디어실	행사 운영 및 취재, 방송 송출 등을 위한 인프라
	편의시설	카페, 펍 등의 식음료시설 및 기념품 스토어, 유아휴게실 등 편의시설

· e스포츠 경기를 상설 개최하고 관련된 e스포츠 콘텐츠 및 다양한 미래형 첨단스포츠 체험이 가능한 공간·콘텐츠 기반의 '전라북도 게임문화 Complex'를 조성함

- 도내 유휴 공연시설 및 실내 공간 활용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조성*
  * 전북대학교 프로농구 지역 구단 '전주KCC' 경기장 활용 등의 방안 모색
- 게임방송사, 콘텐츠 진흥원 등 관계 기관 연계 정기적 e스포츠 대회 유치 및 개최
- e스포츠, 시뮬레이션 스포츠 체험 및 기타 부대행사 개최(e스포츠 대회 유휴일)
- e스포츠 및 융복합 스포츠 콘텐츠 운영을 통한 방문객(대회 관람객) 및 지역민 체험 욕구 강화 외 다각적 경기장 활용 방안(지역 미디어 및 산업 연계) 세부계획 수립*
  * (재)전북문화관광재단 등 지역 내 문화·관광콘텐츠 전문기관 및 조직 활용 방안 모색

· e스포츠 산업 활성화로 각 지역별 새로운 산업 기반 구축, 전략화 및 문화산업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자 국가 지원사업(KOCCA 지원) 기반으로 다양한 경기장이 조성되고 있는 추세임

'부산광역시 e스포츠 상설경기장 'BRENA(Busan Esports ARENA)''

· 위치: 부산광역시 진구 중앙대로 서면 삼정타워(15~16층 활용)
· 면적/규모: 전용면적 2,739㎡ (2개 층 400석 규모)
- 조성비: 60억 원(국비 30억, 시비 30억)
· 운영주체: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 주요시설: 주경기장(330석), 보조경기장(128석) 및 선수대기실 등 편의시설



자료: 부산 이스포츠 경기장(2023). https://bit.ly/3ONXNXw

'광주광역시 e스포츠 상설경기장'

· 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조선대학교 해오름관 내
· 면적/규모: 전용면적 4,290㎡ (2층 규모)
- 조성비: 60억 원(국비 30억, 시비 30억)
· 운영주체: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주요시설: 주경기장(1,005석), 보조경기장(160석) 및 미니스튜디오 등
· 연계사업: e스포츠대회 콘텐츠 기획자 공모사업 'We made eSports' 운영(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e스포츠 체험 및 문화관광 해설사 프로그램 운영(광주광역시관광협회), 광주 e스포츠산업 플랫폼 조성(조선대학교 위탁) 등



자료: 광주광역시(2023)

2 e스포츠 문화조성 및 브랜드화 사업

· 전라북도 e스포츠 경기장(가칭 '게임문화 Complex') 시설 견학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e스포츠 교육·훈련캠프 개발, e스포츠 구단 전지훈련 프로그램 개발·유치 운영 등을 운영함

- e스포츠 경기장 시설 견합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도내·외 여행사 참여 팸투어 실행) 및 지역 대학 연계 e스포츠 교육프로그램(e스포츠 관련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등) 운영
- 국내·외 e스포츠 구단 전지훈련 프로그램 운영(수요 맞춤형 전술훈련 연습 콘텐츠·시설 운영, 체력훈련 시설 운영 등) 유치 및 지역 여행사·숙박시설, 관련 산업 연계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운영
- 국제 규모의 e스포츠 대회 기획 및 체류형 관광상품 연계 국제교류·훈련 프로그램 등

· 도내 축제·이벤트 연계 '전북 게임주간' 선포 및 지역관광 연계 콘텐츠 등을 개발·운영함

- 전북 대표 브랜드 게임대회 '(가칭) 전북 e스포츠 오픈' 기획 및 연 1회 이상 개최*
  * 지역 대표기업 글로벌 스폰서쉽 게임대회 기획 및 상설화를 통한 지역사회 문화향유 기반 확대와 글로벌 e스포츠 거점 도시로의 성장 도모
- '(가칭) 온 가족이 함께 게임문화 배우기' 및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운영으로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 기반 마련*
  * 온 가족이 함께 게임 기획·제작 및 팀으로서의 대회 참여를 통해 가정 내 건전한 게임문화 만들기 독려 및 전국 단위 관련 캠프 확대 운영 기반 도모
- 일상적 e스포츠 이벤트 상설화 및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 콘텐츠 운영 등으로 지역의 문화생활 향유 및 지역 간 문화교류 기반 확대 도모

'안산시 e스포츠 서머 페스티벌'

· 개요: 국제적 규모의 아마추어 게이머 축제
- 학생 및 청년 대상 e스포츠 콘텐츠 체험기회 확대 및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과 인식 개선 목적으로 2023년 9월 첫 개최
- 850명의 아마추어 선수, 1,700여 명의 관람객 유치(2023년)
- 일본, 대만 등 국제 아마추어 선수 참여

· 프로그램
- 관내 학교대항전(게임명 '리그오브레전드') 및 전국대회 개최
- 플리마켓 및 e스포츠 진로 상담, 게임 콘텐츠체험부스 운영(콘솔게임, 사격게임 체험, 증강현실 체험 부스) 등 부대행사



자료: 안산뉴스(2023.09.04.). https://bit.ly/48nbTWQ

'2022 전북 게임문화 가족캠프'

· 개요: 다양한 연령층 대상 게임 이해도 제고 및 올바른 게임문화 구축
- 1박 2일 행사(2022.12.2.~3), 변산 소노벨호텔에서 개최
- 도내 초등학생 자녀를 둔 50가족 모집(150명 참여)

· 운영주체: (재)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글로벌게임센터

· 프로그램
- 참가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또래 참가자 간 협업 기반 게임 제작 특화프로그램 구성·운영
-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가족 게임대회, 게임 리터러시 교육, 게임공감 토크쇼, 미니 게임올림픽 등 다양한 체험·부대행사 기획·운영



자료: 투데이안(2022.11.09.). https://bit.ly/49jjc3i

3 프로스포츠 - 전북투어패스 - 디지털 관광주민증 연계관광 활성화

· 도내 시군의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 참여 독려 및 도내 프로스포츠(프로축구 및 e스포츠) 체류형 관광상품 연계 활성화 콘텐츠를 개발·운영함

*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 (2023년 기준)

사업목적	인구감소지역과 방문객 간 유대관계 형성 및 지역관광 기반 생활인구 유입 확대 촉진, 지역활력 제고 도모
사업내용	인구감소지역 명예 주민증('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바일앱 내에서 발급) 발급 후 QR코드 활용, 해당 지역 내 관광지 입장권, 숙박, 식음료, 관람, 쇼핑 및 체험 콘텐츠 등의 각종 여행편의시설 할인 제도
참여지역	총 15개 시·군(2023년 기준) - 영도구(부산), 강화(인천), 연천, 평창, 정선(강원), 태안(충남), 제천, 단양, 옥천(충북), 신안(전남), 남원, 고창(전북), 거창, 고령, 하동(경남),
시행효과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 중 해당지역 방문 후 할인혜택 경험률 약 22% 수준(1만 2,870건)으로 실제 관광소비 증가 및 지역경제 활력 효과 확인





-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민 관심 독려 및 소액 예산 기반 지역관광 활성화 목적의 시군 참여 확대 토대 마련*

  * (재)전북문화관광재단 등 도내 전문기관 및 조직 활용 '전략계획 및 방안 수립' 등 추진

-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 대상 프로축구 '전북현대모터스' 경기장 및 훈련시설 견학 프로그램, 일일 축구교실, 관련 체류형 스포츠 관광상품 등의 연계 콘텐츠* 운영

  * 경기 무료/할인 입장, 관련 상품(유니폼, 용품 등) 구매 할인혜택 및 기념품 증정 등

- 새로운 프로스포츠(e스포츠) 구단 유치 시 전북투어패스 -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연계한 체험형 콘텐츠 기획 및 운영*

  * e스포츠 대회 관람권 증정 및 선수 팬미팅 참여 기회 제공, 연계 지역 관광상품(지역문화콘텐츠 체험 프로그램 등) 할인 등

‘디스커버서울패스 - 서울 이랜드FC(프로축구단) 무료 제휴’

· 개요: 서울 이랜드FC 프로축구단 외국인 전용 서울관광패스 ‘디스커버 서울패스’ 무료 제휴시설 협약
- 당 패스 구매 외국인 대상 서울 이랜드FC 홈경기 및 N서울타워, 롯데월드, 코엑스 아쿠아리움 등 주요 관광지 총 60개소 자유입장권 제공
- 축구경기 관람 희망자는 모바일 앱 또는 패스카드 스캔 후 경기자 입장



자료: 동아일보(2023.08.01.). https://bit.ly/3T34ilG

5) 소요예산

연차별 재원투자계획 | 프로스포츠 연계 체류형 관광 생태계 조성사업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계
1 e스포츠 상설 경기장 조성	-	3,000	3,000	-	-	6,000
2 e스포츠 문화조성 및 브랜드화	450	450	650	700	2,100	4,350
3 프로스포츠 연계관광 활성화	50	100	100	150	450	850

주석: 상설 경기장 조성 사업비는 장비 구입·설치, 운영계획 수립 용역 포함(부지매입비 및 운영·관리비 제외)

6) 기대효과

- e스포츠 프로구단 유치(법제화 완료 시), 인프라(상설 경기장 등) 조성, 지역관광 콘텐츠 연계 기반 활성화를 통해 지역관광 활력 제고 및 관계 콘텐츠 산업 동반성장의 기회를 확대함
- e스포츠에 대한 국민 선호도 및 관계 산업 확대 기류에 따라 건전한 게임문화 체험·교육에 관한 전라북도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관련 생활인구 유입 기반을 확대함
- 프로스포츠 생활인구(선수, 관람객, 구단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지역관광 콘텐츠 체험 기회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함

2.7 프로그램

생활SOC 기반 생활스포츠 활성화

1) 사업배경 및 목적

- 생활체육은 건강 증진 및 여가 향유를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필수적 활동으로 인식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의 약 61.2%는 생활체육에 적극 참여 중이며, 국민 대다수가 체육과 스포츠 활동의 일상화를 경험 중임
    - 특히, 2020년 기준, 전라북도 내 생활체육클럽은 4,617개로 동호인이 약 162,689명 등이 활동하고 있음(전라북도 내부자료, 2023)
    - 이와 함께 지역의 스포츠클럽은 총 20개소로 약 130명이 지도자가 활동 중이며, 연간 609,644명이 클럽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임(전라북도 내부자료, 2023)
- 이러한 생활체육인의 증가에도 여전히 국가 및 지역의 체육정책은 엘리트 체육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생활체육 분야의 정책은 단순 기반시설 구축에 그치고 있으나, 전라북도는 도민 누구나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체육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공공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 중임
- 따라서 지역의 경쟁적 강점을 적극 활용해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 구축 목적의 생활체육 산업화, 체육 기반시설 추가 확대 및 생활체육 기회 확장을 연계하는 정책 운영으로 생활체육 기반 생활인구 유입 확대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인프라의 적극적 활용으로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 전북도민체육대회 등을 개최해 동호인 리그 활성화, 스포츠클럽 간 스포츠 교류 활성화 기반 마련 추진
    ** 연령별·대상별 맞춤형 동호인리그와 생활체육대회 개최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인근 지역 간 연계 활성화로 적극적 생활인구 유입 독려 기반 마련
- 기 조성된 생활SOC 기반 시설을 활용해 국제·전국 규모의 종합생활체육대회 및 축전을 개최·유치함으로써 도내 생활체육 활성화, 전라북도의 브랜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도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인구 선순환 체계 확립에 기여할 전망임
    - 신규시설 조성 없이 도내 14개 시·군에 기 조성된 생활SOC기반을 활용한 시·군 연계 개최로 최소 비용으로 최대 경제적 파급효과 도모

2) 사업개요

구분	내용
대상지역	전라북도 일원
사업기간	2024년 - 2028년 (5개년)
총사업비	6,500백만 원 (도비 3,250, 시군비 3,250)
사업주체	전라북도, 14개 시·군

3) 기본컨셉 및 사업방향

- 도내 시·군에 기 조성된 생활 SOC기반 시설을 활용, 국제·전국 규모 시·군 간 연계 종합생활체육대회 개최는 지역 간의 인구교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전망임
- 국내·외 생활체육 동호인의 활력 거점화 추진으로 지역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함

4) 세부 사업내용

❶ 국제 규모 종합생활체육대회 개최

· 기 조성된 생활SOC 기반으로* 시군별 분산화된 국제·전국 규모의 종합생활체육대회를 기획 및 개최함

* 전라북도는 2018년 전국체육대회, 2019년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전국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만큼 체육대회와 관련한 인프라 기반 구축·조성 완료

- 도내 특정 또는 일부 지역 개최 지양 및 14개 시군 간 연계* 협력 개최·유치 추진**

* 도내 시·군에 분산 조성된 생활SOC 기반시설을 활용·개최하는 연계 협력 방안 수립

** 참가자, 동반인 만족도 제고 도모를 위해 대회 운영 방식 외 교통·숙박·안전관리 등 전 분야에 대한 철저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올림픽 수준의 다양한 종목 선수가 참여할 수 있는 동호인 대회로 개최·유치
- 연령별·대상별, 누구나 건강과 활력을 경쟁하는 경기 프로그램을 기획·운영

‘세계 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

· 개요: 전 세계 35세 이상의 육상 동호인 참가하는 생활체육축제
- 항공, 숙박, 참가비 등을 필요 제반비용은 참가자 자부담
- 실내·외 경기대회 각각 격년 개최
- 개최비용의 일부를 참가비로 충당하는 경제적인 대회
- 연령대별 마스터즈가 참여하는 스포츠 축제의 성격이 강한 대회
- 2026년 대회는 우리나라 대구광역시에서 14일 간 개최 예정(약 90국 1만1000명 참가 전망, 35개 종목 운영 예정)



자료: 동아일보(2017.3.21.). https://v.daum.net/v/20170321030536300

‘세계대학경기대회’

· 개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édération internationale du sport universitaire, FISU) 주관 대학생 종합 운동 경기 대회
- 대회 출전 시점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학적이 등록되어 있거나, 국가로부터 대학(원)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는 기관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 참가
- 육상, 농구, 배구 등 필수 15개 종목 하계대회,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컬링 등 필수 9개 종목 동계대회로 구분 개최



자료: 세계대학경기대회 홈페이지(2023.11.22.). https://rhineruhr2025.com/en)

❷ 교류 생활스포츠 활성화 기반 조성

‘울산·경주·포항, 해오름동맹 우수클럽 초청 풋살대회’

· 개요: 해오름 동맹 세 도시(울산, 경주, 포항)의 체육인의 서로 간 소통 및 화합을 추구하고 생활스포츠를 통한 세 도시의 동맹 강화 목적 개최
- 2018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
- 주최 : 해오름동맹 스포츠클럽
- 참가 대상 : 20대부, 30대부, 장년부(40대이상), 여성부
- 참가 인원 : 매년 약 30개팀, 250명 이상



자료: 브레이크뉴스(2023.11.07.). https://breaknews.com/996817

· 배후 광역시·도 및 해외 지자체와 교류 협력 기반으로 지자체 간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협약을 계기로 공동 생활체육 축전 등의 정기이벤트를 개최·운영해 지역 간 우호 및 교류를 도모함

- 지자체 간 상생협력 목적 배후 광역시·도와의 협약 추진 및 지자체 간 공동 축전 개최*

  * 전북 자매 우호 도시(미국 워싱턴주, 미국 뉴저지주, 중국 장쑤성, 중국 산둥성, 중국 상하이시, 일본 이시키와현, 일본 기고시마현 등) 간 우호 강화 및 협력을 위한 생활스포츠 대회 개최 추진

· 정기적인 도민 생활체육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체육 관련 정책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함

- 생활체육은 사회 환경변화에 민감한 변화를 보이는 특성이 있어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적절한 정책 마련 추진*

  * 현재 전라북도 도민 생활체육 실태조사가 없어 관련 기초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으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 불가

- 정부의 국민생활체육조사 조사표를 기초로 설문 문항을 재구성하고 2년 주기의 정기적 참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 성과, 현황 및 한계, 문제점, 생활체육 욕구, 사회환경 및 의식의 변화 등 파악 추진

- 축적된 실태조사 DB를 토대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생활체육지원 정책 발굴 및 기획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조사 ❜

· 개요: 국민의 체육활동 실태 및 수요를 파악해 생활체육 참여 촉진 및 참여 만족도 극대화 도모 정책 자료수집 목적
- 조사근거 : 통계법 제 33조에 의한 국가승인 지정통계(제113003호)
- 조사주기 : 연 1회
- 조사대상 : 2023년 기준 대한민국 내 만 10세 이상 국민
- 조사도구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1:1 가구 방문 면접조사
- 표본추출 : 통계청으로부터 제공 받은 조사구 대상 다단계층화집락추출
- 전북표본 : 전체 9,000명 중 446명(2023 국민생활체육조사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3)

3 전국 생활체육인 연계 관광 활성화

· 전북투어패스 및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연계한 지역 방문 생활체육인(생활체육대회 참여자 등) 체류형 관광상품 연계 활성화 콘텐츠를 개발·운영함

- 지역 방문 생활체육인의 체류시간 연장을 목적으로 생활체육인 대상의 전북투어패스 프로그램 기획·운영*

  * 생활체육대회 참가자 유형을 장기체류형, 가족동반형, 체험연계형으로 분류하고 유형의 특징에 맞는 관광콘텐츠 및 코스를 기획·제공

-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 대상, 체류형 스포츠 관광상품 등의 연계 콘텐츠* 운영

  * 스포츠시설 무료/할인 이용, 관련 상품(유니폼, 용품 등) 구매 할인혜택 및 기념품 증정 등

❛ 광주광역시, 스포츠케이션 추진 ❜

· 개요: '365일 더(The) 활력 넘치는 스포츠관광 도시, 광주' 브랜드 구축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9대 추진과제 발표
- 대회를 장기체류형, 가족동반형, 체험 연계형으로 분류하고, 스포츠와 관광이 결합한 전국수영선수권대회(6월), 생활체육 탁구대회(8월), 전국 파크골프대회(10월) 등을 개최
- 장애유형별로 참가하는 장애인 파크골프대회를 광주 지역 최초로 개최 예정이며, 장애인 이용 특장버스를 제공해 오매광주 무장애여행을 연계



자료: 광주광역시 보도자료(2024)

5) 소요예산

연차별 재원투자계획 | 생활SOC 기반 생활스포츠 활성화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계
1 국제 규모 종합생활체육대회 개최	650	1,125	1,125	1,125	1,125	5,150
2 교류 생활스포츠 활성화 기반 조성	200	150	200	150	200	900
3 전국 생활체육인 연계 관광 활성화	50	100	100	100	100	450

6) 기대효과

-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및 생활체육 대축전 등 전국대회 개최로 도민 화합 도모 및 동호인 리그 활성화, 스포츠클럽 간 스포츠 교류 활성화를 도모함
- 도내 체육시설의 적극적인 활용, 국제·전국 규모 대회 유치를 통해 생활체육 거점화와 관련된 지역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지역경제효과 창출을 기대함
- 배후 광역시·도 및 해외 지자체와 공동 생활체육 축전 등 정기이벤트를 개최·운영하여 지자체 간 우호 및 교류를 강화를 기대함

V

연구의 요약

1. 연구결과 요약
2. 제언사업 요약

1. 연구 추진사항

1.1 연구배경 및 목적

- 전국적인 인구감소 문제로 인해 지역소멸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자, 정부는 높은 지역과의 관계성에 기반을 둔 생활인구 확대를 국가·지역적 위기 상황의 중요 해결책으로 인식함
  -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계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도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특히, 낮은 출산율 등으로 국가 전체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정주인구 확대 정책은 지역 간 제로섬 게임으로 유효한 성과를 창출하기 어려워, 인구 이동성의 개념이 내재된 생활인구* 확대를 적극 고려하고 있음
    *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지역의 실질적 활력을 높이며, 대표적으로 통근, 통학, 여행·관광객 등을 의미
- 실제로 지역소멸 위기는 정주인구의 감소로 인한 사회적 기능 저하로부터 시작되므로 지역과 높은 상호작용성을 갖고 있는 인구의 교류를 통해서 지역사회 기반을 재구조화하는 것부터 지역의 위기는 다소 낮아지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전라북도의 경우 낮은 출산율, 급격한 고령화 추이 및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따른 인구의 지역 외 유출로부터 인구감소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지역경제 기반과 사회적 기반시설의 약화가 시작됨
  - 이러한 지역의 약화된 기반은 다시 정주여건을 악화시키고 지역 내 인구가 보다 나은 생활여건을 가진 곳으로 이탈하는 악순환을 초래함
  -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통근, 통학, 관광 등) 지역 찾는 인구가 증가한다면, 한계 지역에 내재된 사회기반의 구조적인 약점을 개선하는 효과를 창출하고 이는 다시 지역활력을 제고하는 토대로 작용할 여지가 높음
-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구 한계지역인 강원도 양양군의 경우, 청년층 대상 문화·관광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적극 독려해 지역재생 효과를 창출함*
  * 강원도 양양은 서핑과 휴가의 개념이 결합된 '스포츠케이션' 활성화를 통해 2023년 기준 관광객 190만 명 유치 및 약 665억 원의 지역경제 활력 증진 효과 창출
- 전라북도는 우리나라 지역소멸 위기의 대표 지역으로 2023년 기준,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의 모든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새로운 인구정책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지역의 재생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최근 4년 간 전북 지역의 출생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2023년 5월 전국 평균 대비 고령인구 비율이 약 5.2%p 높은 23.6%로 나타나 적극적인 지역활력 제고 목적에서 새로운 인구정책 고려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확대됨(통계청, 2023)

·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생활인구 범주 중 관광객은 지역 역동성 강화에 가장 효과적 영향을 파급하는 유형으로 실제 정부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기반 한 '방문자 경제' 실현으로 지역소멸의 위기를 해소할 것을 권고함*

*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인구 한계 지역 내에서 관광객이 창출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정주인구 대비 약 6배 이상의 수준(한국관광학회, 2022)

· 따라서 본 연구는 전라북도가 직면한 지역소멸의 위기 해법 강구를 위해 생활인구의 개념이 적용된 인구정책을 계획하는데 유의미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특히, 한계 지역의 구조적 악순환 개선에 유의미한 효과를 내재한 것으로 알려진 문화·관광형 생활인구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 탐색으로 지역 재생의 실질적인 기대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궁극적인 본 연구의 목적은 1 전라북도 지역소멸의 위기 이해를 통해 실효성 높은 대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2 지역 특화형 문화·관광전략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3 이를 바탕으로 지역활력을 기대하기 위한 유효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음

【 표 31 】본 연구의 목적과 방향 요약

지향점	필요성	방향성
전북 지역소멸 위기 이해로 실효성 높은 인구정책 수립 근거 제공	실제적 지역소멸 위기 대응책 마련을 위해 인구감소에 의한 지역 내 이슈 확인 및 기본현황 파악 필요	전라북도 지역별 인구구조 변화 및 인구이동 등에 대한 현황 분석으로 생활인구 관점의 지역 현황 이해
증거 기반의 지역특화 문화관광 진흥 전략으로 생활인구 확대 기틀 구축	생활인구 범주 중 지역의 구조적 약화 기반 강화에 유효한 관광객 확대를 위해 객관적 증거 기반의 지역 여건 파악 필요	다양한 국내·외 정책, 제도 및 사례의 검토를 통한 차별화된 관점에서 전북 지역의 특화 전략 탐색 도모
국가적 차원의 전북 지역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정책 발굴 모색	한계 지역 소멸압박 이슈는 지역을 넘어 국가의 지속적 성장과 높은 관계가 있어 정부·관계 부처의 적극적 개입 필요	중앙정부 연계·협력형 특화 정책 모색을 통해 전북 지역의 새로운 인구 증진 기반 마련 및 지역 자생력의 실효성 강화 도모

· 특히, 지역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파급하고 기대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에 부합된 특화형 콘텐츠 및 전략 발굴이 요구됨에 따라 본 연구는 지역 현안문제를 토대로 신규 정책 및 전략을 모색함

· 나아가 실제 구현 가능하고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 기대되는 전략을 제언함으로써 전라북도의 궁극적인 지역소멸 위기 대응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함

1.2 연구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전라북도 지역소멸 위기의 해법으로 생활인구 확대의 효과적 방향성을 문화·관광 부문에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유효한 지역 특화 문화·관광전략 수립의 지침서 성격을 우선 고려하고자 함

- 따라서 전북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로 관찰되는 다양한 이슈를 확인하고 생활인구 현황 파악을 통해 유효한 전략의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함

- 전라북도는 2021년 20년 만에 총 인구 180만 명의 선이 붕괴되는 심각한 인구감소의 현실에 직면하였고, 높아진 지역 내 고령화 인구 비율과 맞물려 19세 - 34세 청년인구 유출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2022년에 이르러, 전라북도는 인구감소의 중요한 원인인 자연감소(출생-사망) 수치가 사회감소(전입-전출) 수치를 앞지르는 일명 '데드크로스' 현상의 급격한 격차가 발생해 실질적인 축소사회, 즉 지역소멸의 시대로 진입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열악한 지역 정주여건(일자리 등) 문제로 지역 내 청년인구가 급격히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사회기반 시설의 약화가 지속 심화되는 모양새임

    * 2022년 기준, 전북 지역 인구의 자연감소 수는 -10,820명으로 출생자 대비 사망자가 현격히 높고 청년인구의 시도 간 전출 수도 +8,666명으로 인구감소세가 가속페달을 밟은 상황

- 이러한 지역적 상황은 빈집 증가의 문제* 및 사회기반 시설 약화** 등의 부정적 상황을 유발하고 지역의 또 다른 정주인구마저 지역 유출을 고려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번져나감

  * 2022년 기준 전북 지역 빈집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 수준(약 11.9%, 9만 호)

  ** 최근 5년 간(2018년 - 2022년) 도내 버스터미널 6개소 폐업(총 24개소 운영 중), 2023년 전통시장 6개소 소멸(총 59개소 유지 중)

- 이 같은 전라북도의 부정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높은 관계성 및 상호작용성을 가진 생활인구 유입을 적극 독려해 지역사회의 구조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통근, 통학 등 다양한 생활인구 범주 중 지역사회 활력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화·관광형 인구 유입을 적극 독려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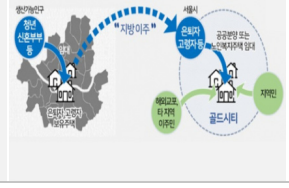
  - 관광객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있어 정주인구 대비 약 6배의 경제적 파급력을 갖고 있으며, 특히 2021년 정부 분석(한국관광공사, 2021)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지역 밖 소비액은 평균 893.9만 원 수준으로 지역 내(평균 744.5만 원) 대비 약 149만 원 정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기준에 따르면, 관광객 41.7명의 소비액은 지역 정주인구 1인의 지역 내 소비 효과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함(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

    * 자료에 따라(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관광객 수에는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관광객의 소비액은 정주인구의 소비수준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이는 문화·관광형 생활인구 확대 당위성 및 필요성 제시의 중요 준거

-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적 사실에 근거해 전라북도 문화·관광 진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에 특화된 가치를 바탕으로 유의미한 전략을 수립할 목적에서 동질적 지역소멸 이슈에 직면한 지역의 실질적인 대책(추진사업 등)을 검토함

【 표 32 】 본 연구가 검토한 대표 사례

분야	사례 주요내용	
생활관광 유형		· 우프(WWOOF) - 농촌지역 일손 돕기(일자리 체험) 및 문화·관광활동 향유를 통한 지역사회 이해도 제고 * 출처: 우프코리아 홈페이지(2023) https://wwoofkorea.org/
스포츠활동 유형		· 미국 시니어올림픽 대회 - 50세 이상의 성인 동호인 대상, 미주 전역에서 매년 개최되는 스포츠 대회로 지역간 인구교류 기반 확대 및 지역사회 활력 증진에 기여 * 출처: 브런치코리아 홈페이지(2023) https://brunch.co.kr/@evesy/199
문화·예술이벤트 유형		· 경기도 의정부음악극축제 - 국내 대표 공연예술축제로 관람·참여형 융복합 콘텐츠 운영 등으로 2022년 약 61천 명의 방문객 지역 유입 독려 및 지역사회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출처: 뉴스스테이지(2019) http://m.newstage.co.kr/
정주기반 유형		· 서울·삼척시 공동의 은퇴자마을 - 은퇴 서울시민의 지역(강원도 삼척) 유입을 독려하고 실질적인 정주를 도모할 목적에서 시니어 타운 조성 추진 * 출처: 브라보마이라이프(2023.12.11.) https://bravo.etoday.co.kr/

- 이와 함께 검토된 사례 기반으로 전북 지역의 특화된 콘텐츠를 발굴·제언할 목적에서 문화 및 관광분야의 다양한 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현안문제의 개선과 새로운 전략 수립의 유효한 방향성을 검토함

  * 총 8인의 전문가 그룹을 조성해 시간제한 없는 무제한 브레인스토밍 기반 의견 교환 추진

- 브레인스토밍에 입각한 의견 교환의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은 대표적으로 [1] 도내 지역 간의 연계, [2] 도외 지역 간의 연계 및 [3] 특화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생활인구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언함

- 특히, 생활인구는 지역 외 유입뿐만 아니라 도내에서의 활발한 인구교류를 통해서 각 시·군의 약화된 정주여건의 개선과 재생을 도모하는 방식에서 유입을 독려할 필요성을 확인함

  - 현재, 전라북도는 14개 시·군 가운데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사회적 기반시설 약화 및 붕괴 현상을 관찰할 수 있어 시·군 간의 유기적인 인구교류 기반 토대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더불어 실질적인 지역 외에서의 인구유입을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특화 콘텐츠 발굴 및 기반 마련으로 전북 지역이 직면한 소멸의 위기를 해소하고 원활하고 유기적인 도내·외 지역 간의 인구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제언하고자 함

-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총 7개의 전북 특화형 문화·관광진흥 전략을 제언하고자 함

2. 연구결과 요약

2.1 제안사업 요약

【 표 33 】 전라북도 생활(관계)인구 유입 및 확대를 위한 제안사업 핵심 요약

실천과제	과제개요	세부과제
(기반시설) 반려동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	· 대상지역 : 전라북도 일원 · 사업기간 : 2024년~2027년(4개년) · 총사업비 : 11,750백만 원 · 사업주체 : 전라북도, 14개 시·군	· 거점형 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 건립 · 반려동물 산업엑스포 개최 · 반려동물 국가 공모사업 대응 · 반려동물 관련 전라북도 조례 제·개정
(기반시설) 브라보 마이 라이프 빌리지 조성	· 대상지역 : 전라북도 일원 · 사업기간 : 2024년~2028년(5개년) · 총사업비 : 12,250백만 원 · 사업주체 : 전라북도, 14개 시·군	· 브라보 마이 라이프 빌리지 조성 · 액티브 시니어 교류 프로그램 운영 · 전문인력 양성 및 교류지역·기업 유치
(프로그램) 전북 워케이션 브랜드 강화	· 대상지역 : 전라북도 일원 · 사업기간 : 2024년~2028년(5개년) · 총사업비 : 9,550백만 원 · 사업주체 : 전라북도, 14개 시·군	· 전북 워케이션 통합운영 거점센터 조성 · 워케이션 생태계 구축 기반 조성 · 워케이션 전용 체험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체험형 문화예술공연 국제 축제 개최	· 대상지역 : 전라북도 일원 · 사업기간 : 2024년~2028년(5개년) · 총사업비 : 13,867백만 원 · 사업주체 : 전라북도, 6개 시·군 - 전주, 익산, 정읍, 진안, 임실, 고창	· 유네스코 세계유산 페스티벌 개최 · 페스티벌 운영 기반 구축 · 세계유산 페스티벌 관람객 지원제도
(프로그램) 전북형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운영	· 대상지역 : 전라북도 일원 · 사업기간 : 2024년~2028년(5개년) · 총사업비 : 2,570백만 원 · 사업주체 : 전라북도, 14개 시·군	· 전북형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운영 · 전북 일자리 바로 알기 박람회 개최 · 전북형 워킹홀리데이 지원 기반 구축
(프로그램) 프로스포츠 연계 체류형 관광 생태계 조성사업	· 대상지역 : 전라북도 일원 · 사업기간 : 2024년~2028년(5개년) · 총사업비 : 11,200백만 원 · 사업주체 : 전라북도, 14개 시·군	· e스포츠 상설 경기장 조성 · e스포츠 문화조성 및 브랜드화 사업 · 프로스포츠전북투어패스디지털 · 관광주민증 연계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생활SOC 기반 생활스포츠 활성화	· 대상지역 : 전라북도 일원 · 사업기간 : 2024년~2028년(5개년) · 총사업비 : 6,500백만 원 · 사업주체 : 전라북도, 14개 시·군	· 국제 규모 종합생활체육대회 개최 · 교류 생활스포츠 활성화 기반 조성 · 전국 생활체육인 연계 관광 활성화

2.2 연구결과 함의

- 본 연구는 갈수록 심화되는 전라북도의 지역소멸 위기를 상쇄시킬 실제적인 인구대책을 수립할 목적에서 검토되며, 특히 국가 전반의 인구감소 문제로 정주인구 확대가 난항을 겪고 있어 생활인구라는 전략적 인구개념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특히, 정부(행정안전부) 주도로 지역과 높은 관계성을 갖는 생활인구가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필요한 인구 개념으로 간주됨에 따라 유사한 맥락에서 전북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지역적 특색을 고려할 때, 다양한 범주의 생활인구 가운데 문화·관광형 인구 확대가 지역이 직면한 위기를 해소할 유효한 방향으로 보고 지역 특화형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방향성을 제언하고자 함

- 다만, 본 연구에서 검토·제언된 전략적 방향은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에 유효한 자극을 부여할 수 있지만, 인구감소의 문제는 지역 차원을 넘어 사회적 이슈로 단기간에 해소 또는 상쇄되기 어려울 수 있음

    - 실제 지역소멸의 위기란 지역 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론적 내용이며 이는 낮은 출산율 등에 기인한 것으로 즉각적 해소는 기대가 어려움

- 그럼에도 전북 지역의 실질적 정주인구 확대가 어려운 현재, 지역을 자주 찾고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관광객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지역의 재생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문화·관광형 생활인구 확대는 정주인구 감소로 유발된 지역의 사회기반 시설 약화 및 이에 따른 인구의 지속적 유출 등 인구와 관련해 지역 내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부정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방안일 것임

    - 실제로 관광객은 지역활력 제고에 다양한 긍정적 영향성을 파급하며, 이는 지역사회의 재구조화와 자생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음*

        * 대표적으로 강원도 양양군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관광객의 지속적 유입은 지역 내 소비활력 제고 및 이에 따른 경제적 기반의 재생에 크게 기여

    - 이러한 맥락에서 전라북도는 지역 특화된 문화·관광정책 및 사업의 시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본 연구에서 제언된 사업을 넘어 새로운 생활인구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유입을 적극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으로 지역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사회기반의 개선을 영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본 연구는 이의 맥락에서 ① 전라북도 문화·관광 생활인구 전담 모니터링 조직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규 발굴한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기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문화·관광정책 사업 관리를 강조함

- ② 행정기관 내 사업의 총괄·조정 및 부서 신설 등을 통해 개별 부서가 추진하는 유사 맥락의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협력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성과지표 개발 등으로 문화·관광형 전략이 단순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수단이 아닌 인구감소지역 활력 제고에 필요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및 시·군별 재단 등 지역관광조직과의 유기적 연대를 통해서 생활인구 맥락의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기반을 구축해 지역소멸 위기에 가장 높은 효과를 가진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그림 22】 전라북도 문화·관광형 생활인구 확대 추진조직 구성(안)

연 구 진

세종대학교 관광혁신연구소	책임연구원	교 수	이 충 훈
	공동연구원	교 수	김 형 곤
		연구교수	장 재 협
		연 구 원	강 지 현

전라북도 문화관광 진흥을 통한 생활(관계)인구 유입 및 확대방안 연구

· 발행일 : 2023년 12월
· 인쇄일 : 2023년 12월
· 발행인 : 전라북도의회
· 발행처 : 전라북도의회